

2024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교사와 학생, 학교가 함께하는

# 학생부종합전형 이야기

열 번째 시리즈



광운대학교  
KwangWoon University



## CONTENTS

학생부종합전형, 열 번째 이야기

### 추천사 | 4

김문석 광운대학교 입학처장

### 발간 10주년 축하의 글 |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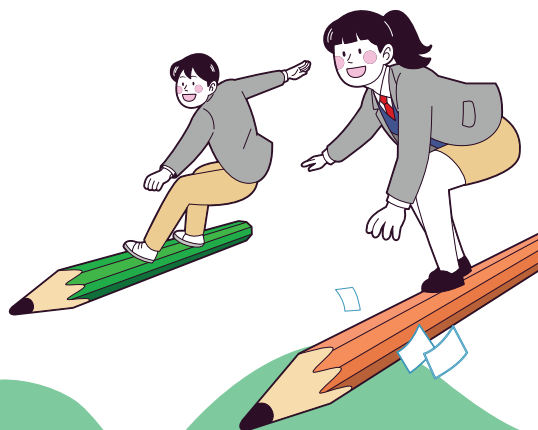
전진호 광운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부경희 광운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문상현 광운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도승연 광운대학교 인제니움대학 교수

이혜영 광운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외부 집필진의 글은 광운대학교 입학처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01/ 2028 대입 개편 | 9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알아보기: 취지와 논점 | 10

권오현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고교학점제 적용에 따른

2028년 학생부 중심 전형은 어떻게 변화할까? | 26

한상혁 여주고등학교 교감

## 02/ 전면 도입되는 고교학점제 | 37

교사의 수업과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 38

조만기 남양주다산고등학교 교사

학생의 과목 선택은 어떻게 해야 할까? | 56

김용진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영석고등학교 교사

## 03/ 무전공 선발 확대 | 69

무전공 선발을 준비하는 대학의 자세 | 70

김윤식 경상국립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2025학년도 대학별 무전공 모집과 우리의 선택 | 81

이용찬 광운대학교 선임입학사정관

## 부록 | 93

광운대학교 학부 및 학과 안내 | 94

## 추천사



김문석

광운대학교 입학처장

### 학생부종합전형, 열 번째 이야기

2014년부터 발간을 시작한 광운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 이야기’가 드디어 열 번째 시리즈를 맞이하였습니다.

먼저 ‘학생부종합전형 이야기’를 꾸준히 발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교육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대학 ‘학생부종합전형 이야기’는 각종 언론에도 수험생 친화 우수 사례로 소개된 바 있으며, 수험생은 물론 특히 고교 선생님들과 학부모들께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학생부종합전형 이야기’는 교육부의 예산 지원으로 발간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대입 전형의 공정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대학에 예산을 지원하는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도 당 사업에 참여하여 2012년부터 올해까지 12년 연속 사업수행의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대학입시 관련해서 많은 변화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자율전공제도의 시행입니다. 자율전공선택제는 학생이 전공을 정하지 않고 입학한 학생이 대학의 체계적인 지원 아래 진로를 탐색한 후 자유롭게 전공을 선택하는 제도입니다. 2025학년도에는 수도권대학이나 국립대 신입생 중 ‘4명 중 1명’ 정도는 자율전공으로 대학에 입학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각 대학들도 자율전공으로 입학하는 학생을 위한 학사과정 및 행정 지원부터 시작해서 수업 개설 등 대학 내의 다양한 분야에서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또한 의대 증원과 다양한 첨단학과 개설 등 올해 대입에 있어서 이러한 큰 변화가 수험생은 물론, 수험생을 둔 고교현장의 진학지도를 하시는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님들에게는 올해 입시전략을 짜는데 매우 혼란스러운 한 해가 될까 걱정스럽습니다.

고등학교 교육 현장에도 큰 변화가 있습니다. 2025학년도에는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됩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주요취지는 학생에 수업 선택권을 보장하고, 선택과목을 통해 학생의 진로와 연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올해의 학생부종합전형 이야기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2028 대입 개편안 및 대학의 학과·전공 융합 선발'을 주제로 대입 환경의 변화에 따른 학생부종합전형 대비와 무전공 선발 확대에 따른 진로 진학 준비 방법의 길잡이가 되고자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학생부종합전형 이야기의 주요 내용은 '2028 대입 개편', '고교학점제', '무전공 선발 확대'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2028 대입 개편' 부분에서는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 내용과 2028 대입 개편 이후 학생부 중심 전형은 어떻게 변화할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고교학점제' 부분에서는 고교학점제에서 '교사의 수업과 학생부 기록이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대한 내용과 '학생의 과목 선택은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지침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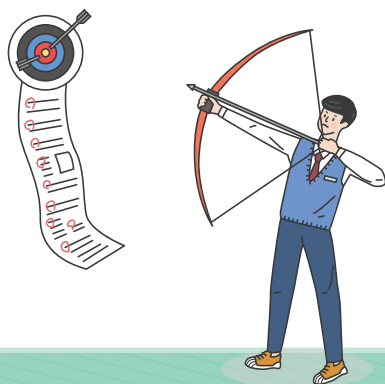
'무전공 선발 확대' 부분에서는 2025학년도 대학별 무전공 모집현황 분석내용과 무전공 선발을 준비하는 대학의 자세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우리 대학 '학생부종합전형 이야기'에 소중하고 값진 원고를 제공해주신 권오현 교수(서울대학교), 한상혁 교감(여주고등학교), 조만기 교사(다산고등학교), 김용진 교사(동국대부속영석고등학교), 김윤식 교수(경상국립대학교), 이용찬 입학사정관(광운대학교)님께 광운대학교를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성공적인 대학입시 전략을 위한 여정을 출발해 보겠습니다!

광운대학교 입학처장

김복석



## 발간 10주년 축하의 글

학생부종합전형 이야기 발간 10주년을 축하합니다. 입학사정관 전형이란 이름으로 학생부종합전형을 시작한 것이 엇그제 같은데 벌써 10돌을 맞았습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은 실시 10여 년 만에 광운대학의 대표적인 전형으로 자리 잡았으며, 2013년 처음으로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선정된 이래 12년 연속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2012년 입학처에 입학사정관실을 설치하여 입학사정관실과 입학관리팀 선생님들이 몇 주를 밤을 새다시피하여 지원사업 신청서를 작성하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선정된 지 12년, 광운대학교는 학생부종합전형을 선도하는 대학이 되었고, 우리대학이 발간하는 학생부종합전형 이야기가 이러한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입학관계자가 아닌 교실에서 학생들을 접하는 교수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의 높은 성취도와 학과 적응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향후에도 학생부종합전형 이야기가 많은 학생들을 광운대학교로 안내하는 좋은 길잡이가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소중한 책자의 간행에 관계하는 분들에게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전 입학처장 **전진호** (광운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지난 10여 년은 교수로서 참 신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입학 직후 많이 지치고 힘들어하는 학생들을 일으켜 좋아하는 일이 무엇이었는지, 무엇이 그들의 가슴 뛰게 하는지를 물으며 힘겹게 수업을 진행하던 이전 수업 분위기와는 너무도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고 싶은 것, 가고 싶은 방향을 장착하고 입학한 학생들이 어떤 일든 적극적으로 스스로 찾아 배우고 듣고 활동하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학생들의 긍정적인 태도와 의지는 무엇보다 학생부종합전형의 힘에서 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옳은 방향이건 아직 선분은 방향이건 자신의 길을 교사와 학생이 고민하고 탐구한 것만으로도, 이미 너무 바람직한 방향인데 더구나 이 모든 노력이 기록되고 읽히는 학생부종합전형 이야기야말로 함께 만들어나가는 사회를 맞게 될 학생들에게 이미 좋은 수업이었다고 믿습니다. 너무 많은 다양한 경험들을 읽은 또는 읽을 미래 입학생들이 또 어떤 기발한 생각을 위해 도전하고 성취할지 은퇴를 앞둔 노 교수가 된 것이 아쉽습니다. 이 작지만 큰 기적을 만들어주신 일선의 선생님들과 10년을 지치지 않고 노력해 주신 우리 입학처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10년, 20년 계속 광운대학교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머리와 가슴에 오래 남아 작은 햇불이 되길 바라면서 광운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 이야기 출간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전 입학처장 **부경희** (광운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광운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 이야기의 발간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14년 첫 발간을 시작으로 이 책은 학생들에게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대학 입시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은 학생의 다양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평가하는 전형입니다. 이 전형을 통해 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창의성과 개성을 발휘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동안 광운대학교는 학생부종합전형 이야기 발간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든든한 길잡이 역할을 해왔습니다. 특히, 광운대학교의 학생부종합전형 이야기는 단순한 지침서가 아닌, 교사와 학생들의

깊이 있는 조언과 경험을 담아내어 더욱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소중한 글을 기고해 주신 저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귀중한 기여 덕분에 더욱 풍부하고 유익한 내용을 담을 수 있었습니다. 책 발간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입학처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 덕분에 기쁜 10주년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광운대학교의 교육철학과 가치를 널리 알리는 학생부종합전형 이야기가 더욱 발전하기를 기원하며, 앞으로의 10년도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전 입학처장 **문상현** (광운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광운대학교의 <학생부종합전형 이야기>의 10번째 시리즈의 발간을 축하합니다.

대학 입학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우리 학교의 <학생부종합 전형 이야기>는 10년 남짓한 긴 시간 동안 수험생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광운대학교의 학종에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해준,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광운대학교 교정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우리 학생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것은 그저 얻어진 것이 아닌 입학처 사정관 선생님들의 학생들에 대한 애정과 노력의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십년 가까이 쌓인 이 글들은 단순한 정보가 아닌 우리 모두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학종을 준비하며 긴장했던 경험, 하지만 이를 통해 더욱 성장했다는 선배의 이야기, 새롭게 변한 입학의 트렌드를 기민하게 대응하며 그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설명해주셨던 입학 전문가들과 이를 적용하며 학생의 미래를 고민하셨던 고교 현장의 이야기,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조율하며 하나의 책으로 발간하는 입학처 모든 분들의 이야기들이 여기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 소중한 이야기들과 경험들이 앞으로도 광운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을 참고할 많은 이들에게 큰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 입학처장 **도승연** (광운대학교 인제니움대학 교수)

<학생부종합전형 이야기> 시리즈의 10번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학생부종합전형 이야기>는 입학처장으로 재직할 때 자부심을 가지고 소개했던 소중한 자산이자, 개인적으로는 수험생 부모로서 학생부종합전형을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을 준 귀중한 길잡이였습니다. 이 책은 풍부한 사례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고교 교육과정과 입시 제도의 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하며, 학생부종합전형을 준비하는 수험생, 학부모, 교사, 그리고 교육부 관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학생부종합전형 이야기>는 수많은 학생들에게 꿈을 이루는 길을 제시하고, 학부모와 교사들에게는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해 온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책에는 많은 분들의 노력과 정성이 깃들어 있습니다. 입학사정관 선생님들의 세심한 기획부터 교육 전문가와 교사들의 협력, 그리고 학생들의 경험담까지, 모두가 함께 만들어 낸 결실입니다. 10년 동안 변함없는 열정과 헌신으로 이 책을 완성해 오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학생부종합전형 이야기>가 수많은 학생들에게 꿈을 이루는 용기와 지혜를 전하는 등대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책을 꼭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다시 한번, <학생부종합전형 이야기>의 10번째 발간을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발전을 기원합니다.

전 입학처장 **이혜영** (광운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교사와 학생, 학교가 함께하는

# 학생부종합전형 이야기

열 번째 시리즈



# 01 / 2028 대입 개편



#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알아보기: 취지와 논점



## 권오현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前 국가교육과정 개정위원회 위원

前 서울대학교 입학본부 본부장

## 1. 들어가는 말

작년 12월 22일 국가교육위원회가 「2028 대입제도 개편 시안」에 대한 의견을 최종 의결함으로써 교육부는 2025년 고1부터 적용받는 새로운 대입제도를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수능에서 국어, 수학, 사회, 과학의 선택과목을 폐지하고 심화 수학을 수능에서 제외한 것, 내신에서는 주요 교과에 5단계 성취평가 외에 5등급 상대평가를 함께 기재하되, 사회와 과학 교과의 융합선택 과목에 한해 상대평가 병기를 제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최종안을 보면<sup>1</sup>, 아쉬운 점도 없지 않지만, 새로운 교육과정에 맞춰 학교 현장의 긍정적 변화를 유도하면서 학교교육과 대학입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고민한 흔적이 역력하다. 특히 내신에서 석차 9등급 체제를 5등급으로 축소할 것은 등급 간 격차를 줄여 학생들의 무한경쟁을 조금이라도 완화함과 아울러, 성적 부풀리기, 학교 및 과목 간 내신 유불리를 방지하여 대입에서 고교 내신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확보하겠다는 뜻을 함께 담은 것으로 보인다.

2028 대입제도가 제대로 자리 잡으려면 여러 사항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최근, 입시에 기대하는 역할과 방향이 이전보다 훨씬 복잡해졌다. 과거에는 전국적으로 똑똑한 학생을 고르는 방안을 찾는 데 골몰하였다면, 지금은 우리 대학에 필요한 학생이 누군지 더욱 고민한다. 다양한 기대와 현실이 서로 충돌하는 대입제도에서 국민의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서는, 교사 학부모 학생 모두 대학입시에 대해 가장 기본적인 내용부터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그리하여 본 기고문은 현재 대입제도의 근거가 되는 법적, 정책적 핵심 사항들을 정리하고, 이를 통해 2028 대입 개편의 의미와 취지를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려 한다.

<sup>1</sup> 교육부(2023) :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확정안(2023.12.27.)

## 2. 한국 대입제도에 대한 기본 이해

### 1) 법적 기반

대학입시는 고등학교 수준의 교육을 성공적으로 마친 학생이 대학에서 학업을 계속하기 위해 통과해야 하는 제도적 장치이면서 학교와 대학 사이에 교육적 연계가 이루어지는 경로이다. 이러한 대학입시는 정해진 제도와 규정에 따라 각자가 바라는 바를 성취하고자 하는 상황을 전제하기에 불가피하게 경쟁 요소가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입시가 진행되면 전국적 범위의 경쟁을 어떻게 이겨낼까 하는 수험생의 지원 전략과, 개별 대학과 모집단위에서의 학업에 가장 적합한 학생을 확보하려는 대학의 선발 전략이 교차하게 된다.

대학이 입시라는 장치를 통해 적합한 학생을 구분하여 선발하는 국가적 근거는 교육에 관한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헌법 제31조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조항의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교육의 균등성은 헌법이 추구하는 핵심 가치이지만 이러한 가치의 구현은 능력의 구분을 전제한다는 의미이다. 헌법에서만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의 균등성은 적성, 소질이라는 개인 특성보다는 객관적 비교에 의존하는 능력의 구분에 더욱 의존한다. 그리하여 능력을 구분하는 장치로서 대입전형이 확고하게 자리 잡으며 지원자들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줄을 세우는 선발형 입시제도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헌법에 제시된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구현하려면, 대입에서 평가해야 할 능력이 어떤 자질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 능력을 어떤 방식으로 평가해야 하는지가 중요한 문제로 등장한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 교육기본법은 평가에 대한 큰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교육기본법 제26조(평가 및 인증)는 다음과 같다 : “① 국가는 국민의 학습 성과 등이 공정하게 평가되어 사회적으로 통용될 수 있도록 학력평가와 능력인증에 관한 제도를 수립·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 및 인증제도는 학교의 교육과정 등 교육제도와 상호 연계되어야 한다.” 이 조항에 따르면, 국민들이 자신에게 맞는 교육과정을 선택하고 이를 이수하여 일정한 성과를 이루었다면 그에 부합하는 평가를 수행하여 합당한 결과에 이르게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이며, 만약 제도가 미흡하여 학습 성과와 평가 방법 사이에 근본적인 불일치가 존재한다면 이를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것도 국가가 해야 할 과제라 할 수 있다.

이때 국가가 마련하는 평가제도는 학교의 교육과정 및 교육제도와 상호 연계되어야 한다는 교육기본법의 규정(제26조 2항)은 특히 눈여겨볼 부분이다. 대학입시처럼 개인의 능력을 평가하는 제도를 마련할 때 우선해야 할 기준은 학교에서 이수한 교육과정과 대입 평가제도 사이에 연계성과 상호의존성을 부여하는 것임을 교육기본법은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수능의 소위 킬러 문항들은 교육기본법의 규정을 위반한 사례들이며, 학교 교육과정을 포기한 채 학교 밖에서 준비한 학생들에게 유리하도록 대입 제도를 운영하는 것도 교육기본법의 정신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다.

평가를 학교의 교육과정 등 교육제도와 상호 연계하여 진행해야 한다는 교육기본법의 기본 취지에서 보면, 대학입시는 학교 교육과정을 근거로 평가를 진행하는 학생부기반 전형(교과, 종합)이 바람직하다. 특히 학교 교육과정은 교과별 성취분 아니라 학교 내 다양한 활동들을 두루 아우르는 넓은 개념이기에, 대입평가에서는

교과와 교과 외 활동을 모두 반영하는 학생부종합전형이 교육기본법의 규정을 가장 충실히 반영하는 전형이라 할 수 있다.

교육기본법이 규정한 이러한 평가에 대한 기본 방향들을 고등교육법은 더욱 구체화하여 제시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는 다음과 같다 : “① 대학의 장이 [...] 입학자를 선발함에 있어서는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초·중등교육이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운영되는 것을 도모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립대학의 장은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도록 하는 방안을 함께 강구하여야 한다. ② 대학의 장은 [...] 입학전형을 함에 있어서 학생의 소질·적성 및 능력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 방법 및 기준을 다양하게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즉, 고등교육법(시행령)은 대학입시의 기본 방향을 ‘A.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함, B. 초·중등교육이 교육의 본래 목적을 구현하도록 지원함, C. 학생의 소질, 적성, 능력을 반영한 다양한 방법과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함. 그 외 D. 특히 국립대학은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방안을 마련함’으로 명확하게 설정하고 있다.

입학전형 운영의 기본 방향 가운데, 항목 A는 헌법 31조 1항을 반복한 내용이며, 항목 B는 평가와 학교 교육의 연계성을 규정한 교육기본법 제26조와 일맥상통한다. 그리고 항목 D는 대학입시의 사회통합적 기능을 국립대에 더욱 강하게 요구하는 부가적 사항이다. 무엇보다도 항목 C가 대입전형에서 큰 의미를 지니는데, 헌법에 제시된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 조항이 학생의 선발 방법과 기준으로 가면, “소질, 적성, 능력의 반영”으로 더욱 구체화 됨을 알 수 있다. 대학 입학전형의 기본 방향인 항목 C는 특히 대학입시에서 소질, 적성,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현재의 수시(학생부종합전형) 체제에 큰 힘을 실어 준다고 하겠다.

소질, 적성, 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수능처럼 점수를 기반으로 한 줄을 세우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생이 장기간 수행한 성과와 활동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전문가가 필요하다. 이러한 전문가의 육성과 운영을 위해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보다도 강한 법적 기반을 마련해 두고 있다. 즉, 학교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지원자의 소질, 적성, 능력을 판단하는 대입전형을 설계하고 수행하는 전문가로서 <대학 입학 사정관>의 채용과 운영을 시행령보다 더욱 높은 법령에 근거하여 국가가 적극적으로 장려한다 : “대학의 학생 선발이 초·중등 교육의 정상적 운영과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에 기여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학의 장 및 [...] 사립학교 경영자에게 입학사정관의 채용 및 운영을 권장할 수 있으며, 국가는 입학사정관의 채용 및 운영에 사용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등교육법 34조 2항).<sup>2</sup>

대학입시 분야에서 법적인 근거를 두고 운영하는 제도 가운데 가장 한국적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으며 긍정적으로 보이는 부분은 ‘대입전형 사전 예고제’라 생각된다. 아마 다른 나라들이 이런 예고제를 운영한다면 굳이 법적으로 규정하기보다는 대부분 교육 당국의 정책적 수준에서 도입할 것이다. 학년의 흐름에 맞춰 교육수요자들에게 자신의 대입제도에 대한 사전 예측이 가능하도록 주요 내용을 법적으로 미리 공지하도록 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모범적 사례라 할 수 있다. 필자는 이러한 고등교육법 제34조의

2 이 조항은 지금의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을 운영하는 법적 근거이기도 하다.

5(대학입학 전형계획의 공표) 상의 4년 예고제 내용을 다음과 같이 표로 정리하였다.<sup>3</sup>

〈표 1〉 대학입시 사전 예고제 체계와 주요 내용

| 예고제                 | 주체                 | 발표물                               | 주요 내용                                                                                                                                            |
|---------------------|--------------------|-----------------------------------|--------------------------------------------------------------------------------------------------------------------------------------------------|
| 4년 예고제<br>(중3/ 2월말) | 교육부                | 주요 대입정책<br>(변경 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능시험의 기본방향 및 과목, 평가방법, 출제형식 등</li> <li>해당 입학 연도에 대학 지원 총 횟수</li> <li>기타 대학입학 관련 주요 변경 사항</li> </ul>       |
| 3년 예고제<br>(고1/ 8월말) | 대교협                | 대학입학전형<br>기본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형유형별(일반전형, 특별전형) 기본사항</li> <li>전형요소(학생부, 수능, 대학별고사) 설명</li> <li>주요 전형 일정(수시, 정시, 추가)</li> </ul>          |
| 2년 예고제<br>(고2/ 4월말) | 대학<br>입학처<br>(대교협) | 대학입학전형<br>시행계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학의 모집단위와 전형별 모집인원</li> <li>대학의 전형별 주요사항 안내<br/>(지원자격, 전형방법, 면접 등)</li> </ul>                             |
| 1년 예고제<br>(고3/ 5월말) | 대학<br>입학처          | 대학입시 요강<br>(수시모집 안내)<br>(정시모집 안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집단위와 세부 모집인원</li> <li>전형별 일정표</li> <li>입학지원서 접수절차와 전형료</li> <li>전형별 제출서류</li> <li>지원자 필독 사항 등</li> </ul> |

물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과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의 공표 시기는 달리 정할 수 있다. 그리고 대교협과 각 대학은 앞서 공표한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과 ‘대학입학전형 시행 계획’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안 되며, 예고하는 내용들은 앞서 발표된 사항을 지켜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의 제정이나 개정, 대학의 정원 조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2) 정책적 기반 : 응시 기회와 선발 경로의 다양화

우리나라는 법적 장치 외에 정부의 정책 수준에서도 촘촘한 규정을 두어 대학입시를 관리한다.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부교과전형, 수능위주전형, 논술위주전형 등으로 구성된 ‘전형유형’은 대표적으로 정책 차원의 용어들이다. 이러한 전형유형에 관한 용어들은 ‘일반전형, 특별전형’ 구분(고등교육법)이나 ‘수시 모집, 정시모집, 추가모집’ 구분(고등교육법 시행령) 그리고 ‘학생부기록, 국가시험, 대학별고사’ 등 전형자료/

<sup>3</sup> 이 표는 고등교육법 제34조의5와 대교협 및 개별 대학의 실제 발표물 내용을 종합하여 작성하였다.

전형요소 제시(고등교육법 시행령) 등과는 달리, 법적 기반을 지닌 용어들이 아니기에 정권의 의지에 따라 쉽게 바뀔 수 있다.

이러한 전형유형 분류나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2019.11.28.) 등과 같은 정책 수준의 대입제도 설계는 기본적으로 대입전형을 교육수요자(학생, 학부모) 친화적으로 운영하려는 취지를 강하게 반영한다. 교육열이 유난히 높고 학력이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는 데 영향력이 큰 우리 사회에서는 인재를 육성하는 핵심 통로로서의 대입제도가 무엇보다도 기회의 다양성과 선발의 공정성 원칙을 준수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국가가 법적 기준에서 나아가 추가로 학생부(종합, 교과), 수능, 논술 등 전형유형을 정책적으로 설계하여 운영하는 취지는 전형자료, 응시 기회, 능력평가 방식을 다양화 하는 데 있다. 이러한 기회와 선발의 다양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맞추어, 우리나라 대입제도는 2000년대 들어 대입전형을 세 가지 유형으로 표준화하여 운영하는 특성을 보인다. 이러한 세 가지 유형을 필자는 기회의 다양성과 선발의 공정성 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정리한다.

〈표 2〉 우리나라 대입전형 설계의 기본 3유형<sup>4</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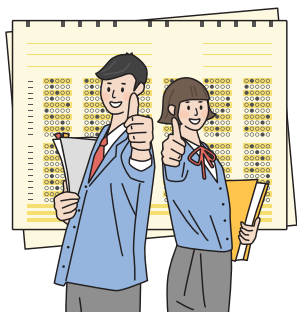
| 기본 이념        | 능력주의                                                                                              | 연계주의                                                                                                                                                                                                                            | 균형주의                                                                                                     |
|--------------|---------------------------------------------------------------------------------------------------|---------------------------------------------------------------------------------------------------------------------------------------------------------------------------------------------------------------------------------|----------------------------------------------------------------------------------------------------------|
| 중심 가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국 단위 경쟁</li> <li>• 성적 순위 중심</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와 대학의 교육 연계</li> <li>• 학업의 의미 중심</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 배려 / 지역 균형</li> <li>• 학업의 형평성 중심</li> </ul>                  |
| 선별 준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편적 학업 성취도(점수)</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업적합도 기준 (전공적합성)</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자 특성과 여건 (지역, 가정 등)</li> </ul>                                |
| 공정성 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절차적 공정성</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적론적 공정성</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체적 공정성</li> </ul>                                             |
| 주요 전형 (전형요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시 일반전형 (수능)</li> <li>• 논술위주(논술)</li> </ul>              |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div style="margin-right: 10px;">가) →</div> <div style="margin-right: 10px;">← 나)</div>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시 일반전형 (학생부)</li> </ul> </div> </div>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균형 전형</li> <li>• 지역인재 전형</li> <li>• 사회배려자 전형 (학생부)</li> </ul> |
| 핵심 논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국적 서열화</li> <li>• 지역/학교 편중</li> <li>• N수생 급증</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 신뢰도 문제</li> <li>• 학교별 대응 역량 차이</li> <li>• 교사 업무 과중</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역차별 가능성</li> <li>• 학업역량의 격차</li> </ul>                          |

4 이 표는 「권오현 외(2011): 고교교육과 대학입학 연계방안에 대한 연구(교육부) 17쪽」을 근거로 작성되었다.

우리나라 대학입시가 수시 정시로 나뉘고 여러가지 전형자료들을 활용하는 것은 이러한 기본 3유형의 분류에 근거를 둔다. 물론 각 전형을 구성하는 개별 요소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엮여 있어서 명확히 구분하기 쉽지 않다. 그러나 지금의 대입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적절한 유형으로 분류하여 각 요소들이 경쟁적으로 혹은 협력적으로 작용하는 모습들을 관찰하는 방식이 유익하다. 그동안 우리 대입제도는 대학교육의 성격과 이념의 변화에 따라 일반적 학업능력을 중심으로 소수 정예를 선발하는 능력주의(학력고사, 수능)에서, 성취도와 교육 기회의 형평성(Equity)을 존중하는 균형주의와, 대학 및 모집단위 학업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고교에서 준비한 학업 적합도(Readiness)를 보는 연계주의로 성격과 이념을 확장하여 왔다. 이와 같이 3유형에 기반을 둔 우리의 대입제도 설계는 사회적 수요에 맞추어 전형별 정체성을 분명히 함으로써 그동안 선발 기회를 확대하는 데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때 <표 2>에서 주목해 보아야 할 부분은 능력주의와 연계주의를 연결하는 2개의 화살표이다. 화살표 가)는 연계주의를 능력주의 전형요소로 균형을 잡아주는 방식으로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의 적용이 여기에 해당한다. 반면에 화살표 나)는 능력주의를 연계주의(학생부 기록)로 균형을 이루게 하는 형태로서 정시 전형이 수능 100% 반영에서 벗어나 학생부 기록 등을 평가에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다방면으로 수능의 한계점이 드러나면서 정시에도 다른 전형요소를 추가하는 현상이 관찰되는데 이는 바람직한 변화라 할 수 있다. 아마 2028 대입부터는 정시에서 전형요소의 다양화가 더욱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서울대는 2023학년도부터 정시에 ‘교과평가’ 제도를 도입하였다. 연계주의 전형요소 가운데 ‘교과 외 부분’을 제외하고 ‘교과 부분’만 반영하는 것이 특히 눈에 띈다. 교과와 교과 외 부분을 균형 있게 반영하는 학생부종합전형이 교육적으로는 타당할 수 있으나 수상, 봉사, 동아리 등 다양한 교과 외 활동들을 강조하면 할수록 대학입시는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다. 이는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문제 제기가 교실수업 보다는 주로 교과 외 활동 부분에서 제기된 사실(학교간 격차, 셀프 기재 등)에서도 드러난다. 고교학점제 취지를 잘 반영하는 학교교육 기반 대입전형 체제를 정착시키려 한다면, 교과 외 활동은 기본적으로 학교 교육에 맡겨두거나 교실수업과 연동되도록 하고, 대학입시는 교실수업에서 확인되는 사실, 즉 지원자의 교과목 선택, 교과 성적, 수업관련 활동과 참여 태도 등에 치중하여 대학 입학사정관이 정성적으로 판단하게 하는 구도가 더욱 적합하다고 하겠다. 이런 점에서 서울대 정시의 교과부분 정성평가 체제 도입은 2028 대입제도 운영에 큰 시사점을 던져주기에, 서울대의 정시 교과평가 경험을 향후 전국 대학에 공유하는 기회를 만들면 좋겠다.



### 3. 2028학년도 대입제도의 변화 : 의미와 논점

#### 1) 수능 부분

국가고시로서의 수능은 대입전형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관심을 국가 수준에서 관리하는 제도로서 전국의 모든 학생이 동일한 무대 위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순위를 부여받는 능력주의 관점의 평가를 대표한다. 그리하여 고등교육법은 수능제도에 4년 예고제를 적용하여 시험의 기본방향 및 과목, 평가방법, 출제형식 등에 대해 중3 때부터 알 수 있도록 한다. 이번에 발표한 2028 대입제도의 주요 내용이 수능시험에 초점을 맞춘 것도 이 때문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2028학년도 수능 제도가 논의될 때 상당히 hard한 개편이 이루어져 시험의 성격 변화(자격고사화), 서/논술식 문항 도입, 심지어 수시·정시 통합 방안 등을 반영할 것이라 예상하였지만, 결과는 수능과목만 조정하는 soft한 개편임이 드러났다. 이러한 개편의 방향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에 맞추려면 수능의 영향력을 확대해서는 안 된다는 수능 마이너스(-) 정책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2028학년도 수능과목 조정의 핵심 기준은 단연 통합화와 단순화이다. 논/서술식 대신 객관식 유지,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에 수능과목 지위 부여, 국어 수학 선택과목 폐지 등에서 보면, 향후 수능의 영향력은 대입의 기능적 역할(정시 1단계 선별 등)에 한정되고, 유의미한 교육적 변별력은 학교 내신에서 찾는 현상이 더욱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수능 개편의 주요 논점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능 선택과목 폐지이다. 2028 수능은 미래 사회가 필요로 하는 융합적 사고력을 다양한 과목의 맞춤형 응시보다는 단순화된 통합과목 운영을 통해 구현하려 한다. 이에 따라 국어와 수학의 선택과목이 폐지되고,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공통으로 응시하는 체제가 도입되었다. 이는 일견 맞춤형, 개별화, 다양화를 추구하는 학교교육의 메가 트렌드와 상충되는 역주행으로 보이지만, 국가주도 시험으로서 수능의 역할에 대한 신뢰가 낮아진 현실에서 보면 수능과목의 통합화와 단순화는 오히려 학교가 학생맞춤형 교육을 강화할 바탕을 더욱 넓혀줄 것이다. 그리고 수능 선택과목 폐지는 어떤 과목에 응시하느냐에 따라 표준점수와 등급에서 윗불리가 나타나는 현실적 문제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심화수학을 두지 않기로 한 부분이다. 국가교육위원회의 설명처럼, 심화수학이 미래 디지털 시대에 기본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 필요한 과목이라는 점은 누구나 동의한다. 하지만 오늘날에도 심화수학 학습을 국가주도 시험을 통해 장려해야 하는지는 의문이 든다. 현대 교육은 시험을 대비하여 심화된 공부를 하기보다는 심화학습을 자기 관심에 따라 학교교육과 대학교육을 연계하여 수행하도록 한다. 또한 통합형 수능의 기본 취지, 사교육 증가 문제, 수험생 시험 부담 등을 고려하면, 심화수학은 원하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수능과 관계없이 해당 교과목을 학습하고 대학이 그 평가 결과를 자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방식이 더욱 타당하다.

셋째, 사회와 과학 교과에서 1학년의 공통과목을 수능과목으로 설정한 것이다. 이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편제표에서 사회와 과학 교과의 변화를 반영한 교육지책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중학교까지는 ‘교과’를, 고등학교에서는 개별 ‘과목’으로 나누어 세부 콘텐츠를 가르치는 나라이다.<sup>5</sup> 그리하여 다양

5 반면에 독일의 경우에는 초·중·고 과정 모두 수업을 국어, 수학 등 교과 단위로 운영한다.

한 선택과목 군을 특정 기준에 따라 분류하는데, 대개 각 교과를 구성하는 기본 분야들은 ‘일반선택’으로, 교과와 다양한 관심요소들은 진로선택(심화, 진로)과 융합선택(융합, 생활)으로 편성하여 운영한다. 그 결과, 수능과목은 교과의 기본 분야들인 일반선택 과목으로 설정하는데, 이번에 사회와 과학 교과는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즉, 사회 교과의 경우, 2015 교육과정 때 9개이던 일반선택과목이 과학 교과의 과목 수와 맞추다 보니 4개로 축소되었는데, 이 4과목만을 사회의 수능과목으로 설정하는 것은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을 노출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사회와 과학 교과의 진로선택까지 수능과목으로 편성하면 과목 수가 지나치게 많아져(사회 13개, 과학 12개) 이는 수능 영향력 축소라는 큰 방향과 맞지 않게 된다. 사실 1학년 때 배우는 공통과목을 수능과목으로 운영하는 것은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통과목의 취지와 내용이 수능의 객관식 문항에 맞지 않으며, 학습 시기와 시험응시 사이의 시간차도 계속 문제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수능에 올인하는 학생들이 2/3학년의 사회·과학 교과를 형식적으로 학습하는 현상들도 대비해야 한다.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능과목이 아니더라도 수시를 대비하여 사회와 과학 교과의 일반/진로/융합선택과목을 충실히 이수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 수능제도는 계류과 같은 존재이다. 사회적으로는 필요하면서도 그 영향력이 크면 학교교육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함정이 될 수 있다. 표준화된 시험 성적이 대학진학을 판정하는 강력한 수단일 때의 국가고사(학력고사 등)는 고교의 학업성적을 잘 반영하고 대학에서의 학업수행을 효과적으로 예측하도록 해주는 대표적 장치로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오늘날은 대학이 수능 외에도 다양한 전형요소를 활용하기 때문에 그 역할을 국가고사에만 부여할 필요가 없으며, 각 전형요소들 사이에서 수능이 어떤 기능을 수행 하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2028학년도 이후에는 각 대학이 수능 성적을 필요한 방식으로 참고 자료로 활용하거나 다른 전형자료(학생부, 대학별고사)와 연동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면, 수능은 학생 선발을 위한 유용한 도구가 될 뿐 아니라 대입전형의 교육적 타당성도 한층 높여줄 것이다.

## 2) 내신 부분

내신제도 개편의 핵심은 5단계 성취평가와 5등급 상대평가를 병기하는 점이다. 이에 대한 교육계의 평가는 엇갈린다. 물론 기존의 9등급을 5등급으로 축소한 것은 대단히 긍정적으로 보인다. 교육의 본질에서 보면, 학교에서 성적을 상대평가로 산출하는 것은 아주 잘못되었다. 공부를 잘하면 그만인데, 굳이 남들보다 공부를 더 잘하는지 따지기 때문이다. 또한 상대평가 병기가 학생들의 과목 선택을 제한한다면 이는 고교학점제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 하지만 현재의 여건에서 볼 때 성취평가제 전면 도입 시 나타날 다양한 민원들을 학교가 감당할 수 있을지도 냉정하게 검토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대학이 학교교육을 기반으로 대입전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도 순화된 상대평가가 아직은 필요하다는 현실론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전면 성취평가제 도입에 대한 우려가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내신제도 개편은 여러 가지 아쉬움을 남긴다. 우선 성취등급에 석차등급을 병기하는 것을 공통과목과 일반선택과목에만 적용 하였으면 교육과정 개편의 취지가 더욱 잘 반영되었을 터인데, 진로/융합선택 그룹까지 확대한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 대학입시와 교육수요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상대평가를 유지한다면 그 범위는 일정 수 이상의 학생들이 수강하는 과목군들에 한정하는 것이 옳으며, 선택의 폭이 넓은 과목들은 개별 학생의 관심을 존중 해주며 성취등급만 산출하는 것이 맞다. 특히 융합선택에 편성된 탐구형 과목들(언어생활탐구, 수학과제탐구 등)까지 학생 간 상대적 비교를 통해 성적을 부여하는 방식은 문제가 많다고 본다.

내신제도 개편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국가가 추구하는 학교교육의 기본 방향에 대한 철학이 누락된 것도 아쉬운 부분이다. 앞서 교육과정 개편 시 발표된 내용은 모든 선택과목의 5단계 성취평가제로 전환이었는데, 이후의 대입 개편 발표가 이를 상대평가 병기로 변경하였다면 국가가 추구하는 평가의 기본 방향이 무엇 인지를 법적 근거와 정책 방향에 맞춰 분명해 밝혀야 하는데, 그런 과정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 하였다. 국가가 지향하는 학교교육의 방향은 성취평가제임을 분명히 하되 그 도입을 단계별로 진행하겠다는 설명이 없다 보니 상대평가 병기도 결국은 교육수요자와 대학입시의 눈치보기에 따른 결정이라는 인상을 준다. 그 결과 사회와 과학 교과와 융합선택 과목에 한해 상대평가를 폐지한 것도 다른 교과와 융합선택 및 전체 진로선택과목으로 확대 적용하는 과정으로 받아들여지기보다는 아주 어정쩡한 개편 내용이라는 느낌만 주게 된다.

아무튼 2028 대입부터 석차등급이 5단계로 축소되면 수시전형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 우선 정량적 수치에 의존하는 학생부교과전형은 운영하기 어렵게 될 것이므로 학생부교과전형과 종합전형이 하나의 '학교교육 기반 대입전형'으로 통합될 가능성이 크다. 학생부종합전형에서도 교과 부분에 대한 정성평가의 변화가 불가피한데, 9등급 시절의 상대 비교를 통한 학업역량 확인보다는 이수과목의 내용 수준(기초/심화), 이수과목의 조합 구성(전공적합성, 과목 위계), 학생의 수업 참여 태도(세특 기록) 등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내신제도 개편이 평가의 변별력을 훼손하며 학교교육 기반 대입전형의 존립 타격을 위협할지, 아니면 수치에 근거한 비교를 줄이고 질적 평가를 강화하여 학교교육과 대학입시의 연계성을 더욱 굳건하게 할지 궁금하다. 새로운 내신 산출방식과 학생부종합전형이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학생부 기재에 보완하는 방안도 필요해 보인다. 보완 방법으로는 ① 성취/석차 등급 제시에서 나아가 그 등급이 구체적으로 어떤 자질을 나타내는지 기준 참조 해석 정보를 자세히 제공하는 방안, ② 교과마다 성취한 역량을 구체적으로 나누고 역량별 성취/석차 등급과 수업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 ③ 학생부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부분을 개인별로 변별력 있게 작성하여 정성적 평가의 핵심 근거자료 역할을 하게 하는 방안 등이 검토 가능하다. 그러나 이런 방안들은 공식 기록으로서 학생부의 양식을 바꾸는 것이며, 또한 상세한 정보 제시에 따른 교사 업무의 증가 문제를 현실적으로 해결할 때 논의될 수 있다. 나아가 학생부 기록을 내실화하는 것 외에도 교사들의 평가 역량과 책임감을 높여주는 것, 인재상에 따른 역량들의 수준과 기록 내용 사이 연관성을 체계화 하는 것, 해당 자료들을 전문적으로 읽어내는 입학사정관의 역량을 키워주는 것, 그리고 이러한 정성 평가에 대한 국민들의 심리적 동의를 얻는 것 등이 두루 요구된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학교에서 내신 평가를 전면 성취평가제로 전환해야 한다. 물론 한국 사회는 비교에 의거하여 가치 판단을 내리며 자신의 소유, 희망, 성취 등 무엇이라도 다른 사람과의 상대적 위치 속에서

생각하는 데 익숙해 있다. 특히 학교에서 평가는 일정한 준거에 다른 학생이면 누구나 동일한 등급을 받는 절대평가 체제가 당연하지만, 아직도 많은 교육수요자들이 상대평가를 통해 일정한 인원만 해당 등급을 주는 형태가 더욱 공정하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상대평가에 따라 순위 상의 위치가 매겨져야 신뢰를 보내는 우리 사회의 체질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평가 도입 시 예상되는 부작용들(성적 부풀리기, 변별력 상실 등)로 인하여 학교교육에 대한 불신이 더욱 커질 것이다. 미래형 대학입시는 소수의 탁월한 인재를 육성하는 엘리트 교육뿐 아니라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고등교육 기회를 부여하는 대중지향적 목표를 함께 추구하기에, 전국적 서열보다는 학생 각자의 소질·적성 및 능력이 합리적으로 반영되도록 전형유형과 기준을 다양화하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여야 한다.

## 4. 2028학년도 대입제도가 성공하려면

### 1) 공정성에 대한 새로운 시각

우리나라는 워낙 치열한 병목사회이다 보니 대학입시에서도 미래 비전이나 교육적 타당성보다는 공정성을 최상위에 두고 논의를 진행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렇게 공정성 논의를 우위에 두려 한다면, 대학입시에 적용하는 공정성이 무엇이며 어떤 가치를 대변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먼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공정성이나 언론에 의해 포퓰리즘으로 변한 공정성 이슈는 대입제도 개편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 가능성이 크다. 지난 몇 년간 우리는 ‘The future creates the present. 미래가 현재(제도)를 만든다’는 미래교육 명제 대신에, ‘공정성 열풍이 현재를 만드는 현상’을 실감나게 경험하였다.

공정성이 그렇게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이제 공정성에 대한 다면적 논의와 새로운 시각이 필요할 때이다.

특히 대학입시는 미래 진로와 삶의 방향을 선택할 권리를 할당하는 장치이기에 그 설계와 운영에서 사회적 공정성과 타당성에 기반을 두지 않으면 안 된다. 일반적으로 권리 할당에서 공정성과 타당성을 부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예를 들어 하나의 피리를 가지려 10명이 경쟁을 할 때 피리를 갖는 권리 할당은 다음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택하게 된다. 첫째는 권리 할당 방식을 동일화 하여, 즉 10명의 구성원이 모두 같은 달리기를 하여 선두 주자가 피리를 갖도록 합의를 하였다면, 합의한 달리기 결과에 따라 피리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이런 방식은 다분히 절차론적 정의를 중시하며 기회의 평등성에 초점을 맞춘 권리 할당을 추구한다. 둘째는 피리의 취지와 가치를 중심에 두고 권리 할당 방식을 개별화하는 것이다. 이런 경우, 피리의 목적과 특성은 무엇이며 피리를 누구에게 할당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지에 관심을 갖는다. 적합성을 우위에 두는 방식은 목적론적 정의를 추구하며 권리 할당의 합목적적 타당성을 기회의 평등성보다 중요하게 여긴다.

이러한 절차론적 정의관과 목적론적 정의관의 이원화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현상을 설계하는 기준점이 되는데, 필자가 보기에 수시와 정시의 구분도 이러한 이원화의 대표적 사례이다. 수시는 전형유형이나 모집

단위 특성에 맞는 적합성을 기준으로 하여 여기에 맞는 준비를 학교에서 잘 갖춘 학생에게 입학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이며, 정시는 기준점을 일반화 하여 모집단위 특성보다는 보편적 학업의 결과로 나온 점수(계량적 수치)에 근거하여 권리를 할당한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대학입시에서 권리 할당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는 구조를 지니기에 목적론적 타당성보다는 절차론적 평등성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강하다. 사회나 언론에서 공정성을 다룬다면 목적론은 관심의 대상에 오르지 못하고 오로지 절차론적 관점에서만 논의를 진행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사회의 진화나 발전은 일반적 규범인 절차론적 타당성을 기본으로 한 채, 사회 각 분야가 지닌 목적론적 취지와 가치를 존중하고 이를 치열하게 전개해 나가지 않으면 이뤄내기 어렵다. 우리의 학교교육과 대학입시가 세계와 경쟁하며 각 분야를 리드해 갈 인재를 키우려 한다면, 무엇보다도 절차론과 목적론의 규범이 상호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두 가지 정의론의 차이를 대입전형(수시와 정시)에서의 권리 할당 방식과 연관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대입전형(수시, 정시)의 정의론 구분<sup>6</sup>

| 정시 (수능)                                                                                                        | 수시 (학생부종합)                                                                                                            |
|----------------------------------------------------------------------------------------------------------------|-----------------------------------------------------------------------------------------------------------------------|
| 절차론적 정의<br>(J. 롤즈)                                                                                             | 목적론적 정의<br>(아리스토텔레스, P.리퀴르, H. 요나스)                                                                                   |
| 1) 개인성, 평등성 추구<br>2) 자유 의지에 따른 학업<br>3) 원초적 입장, 절차적 진행<br>4) 의(義 the Right)를 우선<br>5) 도덕 (Morality) 중심 : 보편 기준 | 1) 적합성, 형평성 추구<br>2) 목적과 공익에 맞는 학업<br>3) 맥락 존중, 교육적 의미(역량, 목표 등)<br>4) 선(善 the Good)을 우선<br>5) 윤리 (Ethics) 중심 : 가치 기준 |

〈표 3〉의 정의론 구분에서 본다면, 몇해 전 정치적 논리로 정시 비중을 늘린 근거가 된 공정성 논의는 전제부터 잘못되었다. 정시에 해당되는 절차론적 공정성 관점을 수시 학생부종합전형에 과도하게 적용하여 16개 대학 정시 확대 및 ‘대입공정성 강화 방안’을 추진한 결과, 현재 대학 서열화 고착, N수생 증가, 사교육 열풍, 교과 외 활동의 축소, 학교교육 이탈자 증가 등 심각한 교육문제들을 심화시키고 있다. 그리하여 2028 대입제도 시행 후에 학교교육 기반 대입전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무엇보다도 교육 종사자나 수요자 모두 수시전형의 공정성 기준을 정시와 구분하여 판단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다시 말하면, 향후 수시전형의 공정성을 다룰 때는 기회의 평등성을 넘어 목적론에 근거한 타당성의 관점에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마이클 샌들의 『정의란 무엇인가』(제8강)에는 목적론에 대해 다음과 같이

6 이 표는 「송안정(2007) : 한스 요나스의 목적론적 사고(현상학과 현대철학33, 149-180쪽)」를 근거로 만들었다.

언급하고 있다 : “정의는 적합성의 문제다. 권리 할당이란 사회조직의 텔로스(=목적)를 확인한 뒤에 그것과 관련한 역할에 적합한 사람을 찾아 그에게 본성을 실현할 기회를 주는 일이다.” 샌들 교수의 목적론적 정의에 대한 언급들은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을 논의할 때 유익한 판단 기준이 된다. 타당한 권리 할당은 사회조직(대학의 전공)의 텔로스(전공의 목적과 내용)를 확인하고 그 역할에 적합한 사람을 찾아(적합성) 그 본성을 실현할 기회(자아실현)를 주는 것이라는 언급은 학생부종합전형이 추구하는 가치 및 지향점과 놀랍도록 일치한다.

대학입시에서의 텔로스는 대학과 전공분야의 목적뿐 아니라 사회적 목적을 두루 아우르는 가치의 집합체이다. 즉, 대학입시의 텔로스는 대학의 학생 선발을 넘어 사회 공익적 가치 실현에 넓게 걸쳐있기에, 학생부 종합전형을 담당하는 입학사정관은 미래 사회에 맞는 인재 육성, 학교교육의 역량 강화, 진로를 개척해 가는 학생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 사회적 균형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며 평가를 진행한다. 이러한 텔로스와 가치를 구현하는 학생부종합전형이 2028학년도 이후에도 대학입시의 중심에 서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교교육 기반 평가의 체계화 및 전형 운영의 신뢰성을 확립하는 노력 뿐 아니라 목적론적 공정성에 대한 철학과 가치를 국민들과 언론이 널리 공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겠다.

## 2) 수시 정시 비율의 대학 자율화

앞에서 설명한 바처럼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안(2023.12.27.)」에서 수능은 자격고사화를 추진하는 대신에 시험 과목을 단순화하고 객관식 출제를 유지하였다. 이번 개편안은 수능 제도에는 객관식 평가 방식을 그대로 두는 반면에, 학교에서의 평가는 “지식암기 위주 평가(5지 선다형)를 지양하고 사고력·문제해결력을 평가할 수 있는 논·서술형 평가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5쪽). 이 말은 수시전형은 주로 논·서술형 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정시의 수능은 객관식 평가 결과를 활용하겠다는 뜻이다. 국가 수준의 시험에서 문항에 대한 이의 제기나 운영 상의 복잡성을 줄이려면 객관식 문항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수능과목이 단순화되고 객관식 풀이 형식을 고수한다면 많은 학생들이 부담되는 내신의 논·서술형 평가보다는 비교적 부담이 적은 수능의 객관식 평가를 통해 대학 진학을 준비하려 할 것이다. 하버드 대학 Eric Mazur 교수가 “평가는 학습을 은밀하게 죽이는 킬러”라고 하였듯이, 학교교육의 방향을 아무리 미래 지향적으로 바꾸더라도 수능의 비중이 높은 한 고교교육은 파행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요구하는 상위 16개 대학의 정시 40% 선발 조건이 바뀌지 않으면 정시 준비를 위해 학교교육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급증하리라 예상된다. 그리하여 2028 대입제도가 제대로 운영되려면 16개 대학 정시 40% 선발 조건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

대학교육의 자율성과 학교교육의 충실성은 국가가 대입정책을 설계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두 축이다. 국가는 이 두 축이 학교와 대학의 생태적 흐름 속에서 스스로 진화해 가도록 유도해야 한다. 그런 와중에 수능 비중 40% 이상을 요구하는 것처럼 국가가 디테일한 영역까지 개입하는 방식은 학교교육과 대학교육에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4년 예고제 같은 대입 운영의 행정적 제도적 측면은 국가 수준에서 일괄

관리하는 형태가 효과적이겠지만, 수시 정시 비율은 대학의 인재상, 대학별 모집 여건, 입학생의 특성이 반영되며 자연스럽게 정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가 수준의 강제적 개입은 심각한 교육생태계 훼손으로 이어질 것이다.

따라서 앞에 언급한 공정성 기준에 따라 수시와 정시를 각각 학생부위주와 수능위주로 운영한다면, 이제 그 선발 비중은 개별 대학의 결정에 맡겨야 한다. 수시 정시 사이의 비중 조정은 두 공정성의 가치에 대한 개별 대학의 입장을 근거로 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학별 특성에 따라 전국적 서열을 우위에 둘 것인지, 교육적 타당성과 대학마다 다른 맥락을 우위에 둘 것인지, 대학이 스스로 판단하여 정시 혹은 수시 확대를 결정하도록 자율성을 허용해야 한다. 아마 대학별 신입생의 안정적 확보, 대학교육의 특성화 경향, 맞춤형 개별화 교육 강화 등의 방향성에서 보면, 대부분의 대학들은 수시전형 선발을 늘리려 할 것이다. 수시는 입학생 구성의 다양화, 사회적 지역적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학교와 대학 사이 교육적 연계를 통해 학교교육 역량 강화에도 기여하여 국가·사회적 명분도 정시보다 훨씬 명확하다.

지난번처럼 목적론적 타당성은 멀리한 채 절차적 공정성과 서열적 순위만 강조하면, 자칫 대학 입학이라는 권리 할당은 사회적 자본(경제력, 사교육, N수 등)을 활용할 기회가 많은 집단의 전유물이 될 가능성이 커진다. 2019년 한국교육개발원이 2000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 연구한 바에 따르면<sup>7</sup>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대학 입시에서 수능 성적 반영의 확대를 선호하였다. 그리하여 정치권에서도 정시 확대는 지금까지 흘려온 교육개혁 흐름을 역행하는 정책이라는 목소리가 나오며, 교육 전문가들도 정시는 쏟아붓는 사교육 효과가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전형으로서 학종에 대한 오해가 정시에 대한 맹목적인 선호를 유발하지만 수능이 실제로 사회적 교육적 공정성을 대변하는지 의심스럽다는 의견을 자주 피력한다.<sup>8</sup>

필자가 경험한 바로는, 정치권과 정부, 학계와 기관 그리고 대학과 학교 종사자 모두에게 대입전형은 학교교육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었다. 특히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교생활충실도를 기반으로 학생을 선발함으로써 정책 당국과 대학 및 학교 현장의 호평과 공감을 받고 있기에, 앞으로도 지속적 발전을 견인하는 정책을 계속 추진할 필요가 있다. 수시 학생부종합 전형을 선호하는 이유는 대학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수시 입학생이 대학에서의 학업을 더욱 충실하게 수행한다는 데는 대부분의 대학이 의견을 같이 한다. 그리고 중하위권 대학들은 학생을 모집하는 데 수시가 유리하다는 판단 하에 수시 중심의 입시전략을 운영하게 되는데, 이러한 전략은 최근 학생수가 급감하면서 더욱 힘을 받고 있다. 정부의 요구에 따라 2023학년도에 서울소재 16개 대학이 정시 비중을 40%로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는 그 해가 오히려 정시모집 비중이 최저를 기록한 사실을 보면, 수시모집 인원의 증가는 학교와 대학에서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생태학적 변화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제 수시 정시 비중의 결정을 정책 논리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교육 생태계의 흐름에 맡겨두기를 요청하는 바이다.

<sup>7</sup> 한국경제 2019.03.31. 보도

<sup>8</sup> 수능 창시자인 박도순 교수는 현재의 수능 시험은 10년 후에도 써먹을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없다고 하였다. 아주대 박형주 전 총장은 수능 문제로는 생각하는 힘이 길러지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히며, 세계수학자대회에서 수학자들에게 2017학년도 수능 수학 가형 30번을 보여주었더니 다들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하였다.

### 3) 고교교육과 대학입시의 연계성 강화

끝으로, 2028 대입제도가 자리 잡으려면 고교교육과 대학입시의 연계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대학이 대학별고사를 통해 고교교육을 견인하는 형태는 사교육 민감성이 높은 한국 사회에서 정착하기 어렵고, 국가고사가 고교 교육을 이끌어가는 형태도 다양성의 시대에 맞지 않는다. 그보다는 학교와 대학이 협력적으로 인재를 육성하는 ‘고교-대학 연계교육’ 관점이 교육의 본질에도 맞으며 우리 실정에도 더욱 적합해 보인다.

고교-대학 연계교육은 고교와 대학이 공동의 목표와 책임의식 하에 협력적으로 필요한 인재를 육성해 가는 체제를 말한다. 이러한 연계교육 체제가 자리잡기 위해서는 고등학교를 오로지 대학 진학을 위한 과정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고교가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교육활동을 대학입시가 추후 반영하는 ‘고교 → 대학’ 방향의 자연스런 흐름이 중요하다. 대학진학에 대비하는 것이 연계가 아니라 고등학교 교육을 충실하게 이행함이 고교-대학 연계의 시발점이 된다는 의미이다. 즉, 고등학교에서 각자가 진로희망에 맞게 소질과 적성을 계발하는 다양한 활동을 하고 그러한 활동을 통해 대학의 해당 전공으로 진학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이제는 ‘준비를 위한 학교교육’이 아니라 ‘학교교육을 통한 준비’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고교-대학 연계교육은 고교학점제의 취지와 밀접하게 연결되기에 앞으로 2022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 더욱 자리를 잡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고교학점제 운영과 연계교육 관점의 대입제도가 잘 맞물려 운영 되면, 맞춤형 교육과정과 특성화 및 개별화 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패러다임이 자리 잡고 이는 기존의 암기식·주입식 교육에 비해 더욱 높은 교육 경쟁력을 낼 것이다.

고교교육과 대학입시의 연계성 강화는 학생부종합전형의 취지와 일치한다. 학생부종합전형 도입 후 대학 입시는 학교교육을 출발점으로 존재한다는 공감대 속에서 중등교육과 대학입시의 심리적 제도적 단절을 해소하고, 대입전형을 ‘선발’이 아니라 ‘교육적 연계’라는 기본 시각을 전파하였다. 이러한 고교-대학 연계 교육 관점의 입시 정책이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대학과 중등학교가 다양한 차원에서 협력을 강화해 가야 한다.

이를 위해 유념해야 할 점을 몇 가지를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등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충실히 운영하려는 의지가 중요하다. 학생의 진로나 꿈과 관련된 교과목을 다양하게 개설하고,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경험과 활동들을 자극함으로써 교과과 비교과 활동이 자연스럽게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중등학교와 대학이 함께 인재를 키운다는 인식을 깊이 공유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각 학교급 별 교육은 나름대로 밀도 있게 이뤄지나 상하 학교급 사이의 연계성이 미흡함으로써 각자가 엄청난 힘을 쏟지만 그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비효율적 구조에 머물러 있다. 공교육 기반의 협력적 인재 양성 체제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중등과 대학이 자신의 교육목표와 내용 설정에 있어서 전후 학교의 목표 및 내용과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려는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셋째, 학교 수업의 질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교과 수업에서는 강의와 모둠활동 및 협동학습을 조화

롭게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교사와 학생이 함께 전형자료를 만들면서 진정성을 보여주어야 한다. 학생부는 교육적 삶의 엄중한 기록이기에 교사와 학생이 신중하고 공정하게 기록하는 환경이 조성되고 당사자들도 그러한 공적 책무성을 깊이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 5. 맺는 말

정리하자면, 2028 대입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먼저 고려하여야 한다.

첫째, 대학의 자율성 원칙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 어떤 형태의 조직체이건 그 조직체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인적 자원을 스스로 선발, 훈련, 배치하는 자기 결정성이 전제된다. 대학에서 자유로운 의사결정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학문사회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

둘째, 대입제도가 학교교육 활동을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 학교에서 학생이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교과 및 교과 외 활동이 자연스럽게 대입전형의 준비로 이어지는 형태가 바람직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교육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시종일관 학교생활충실도를 근간으로 대입전형을 설계·운영해야 한다.

셋째, 대입전형이 학교교육에도 긍정적인 자극제 역할을 해야 한다. 즉, 대입전형이 학교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공유하고 지원함으로써 학교와 학생의 전체적인 질적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

넷째, 대입전형이 단순히 절차적 공정성만을 대변할 것이 아니라 교육적 목적과 사회 정의를 중요하게 여기는 목적론적 공정성에도 함께 기반을 두어야 한다. 즉, 대입전형은 우리 사회의 바탕을 이루는 가치 규범에 부합하면서, 개인과 사회에 두루 유익함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다섯째, 선발 방법과 과정이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 대입전형은 수험생들에게 권리를 할당하는 성격을 지니기에, 경쟁에 참여한 사람들이 그 결과를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여기서 합리성은 타당성, 신뢰성, 공정성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대학입시는 특별한 가치를 전제하는 분야이다. 대입제도가 추구하는 가치를 구현하려면 마냥 다수결로 결정하는 논의 구조 속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대입제도는 교육적 사회적 개인적 요구사항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분야이기에,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문제 자체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우선해야 한다. 그런데 대개 대입제도 논의에서는 문제 자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문제가 시대마다 혹은 같은 시대라도 보는 관점에 따라 크게 흔들리기 때문에, 단순히 교육수요자나 언론이 제기하는 문제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개편을 추진해서는 장기간 유효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어렵다. 2028 대입부터는 국민이 요구하니 정책이 답하는 신호-반응 관점보다는 국가의 교육 이념과 미래 전략을 먼저 확립하고 이를 국민에게 설득함으로써 대입의 기본에 충실하며 교육의 본질에도 맞는 대입제도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아 가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교육부(2023) :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확정안(2023.12.27.)
- 교육부(2019) :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2019.11.28.)
- 권오현 외(2011) : 고교교육과 대학입학 연계방안에 대한 연구, 교육과학기술부
- 권오현 외(2020) : 고등학교 교육과정 구성 방안 연구, 교육부 정책연구
- 권오현 외(2021) : 대학의 인재상 구현과 공정성 강화를 위한 전형안 개발 연구, 서울대
- 김기복(2013) : 정의에 대한 목적론적 접근, 존재론 연구 제33집
- 박형주(2023) : 디지털 전환 시대와 교육의 변화, 서울대 교종원 교육포럼(2023.3.31.) 발표물
- 샌들, 마이클(2013) : 정의란 무엇인가?(이창신 역), 김영사
- 송안정(2007) : 한스 요나스의 목적론적 사고, 현상학과 현대철학 33(2007.05)



---

## 고교학점제 적용에 따른 2028년 학생부 중심 전형은 어떻게 변화할까?

(부제 : 2022년 개정교육과정 적용에 따른 변화)

---



### 한상혁

여주고등학교 교감

교육부 수업평가 중앙현장지원단 전문 트레이너 및 컨설턴트

경기도교육청 수업평가 정책지원단, 성취평가제 정책연구회 회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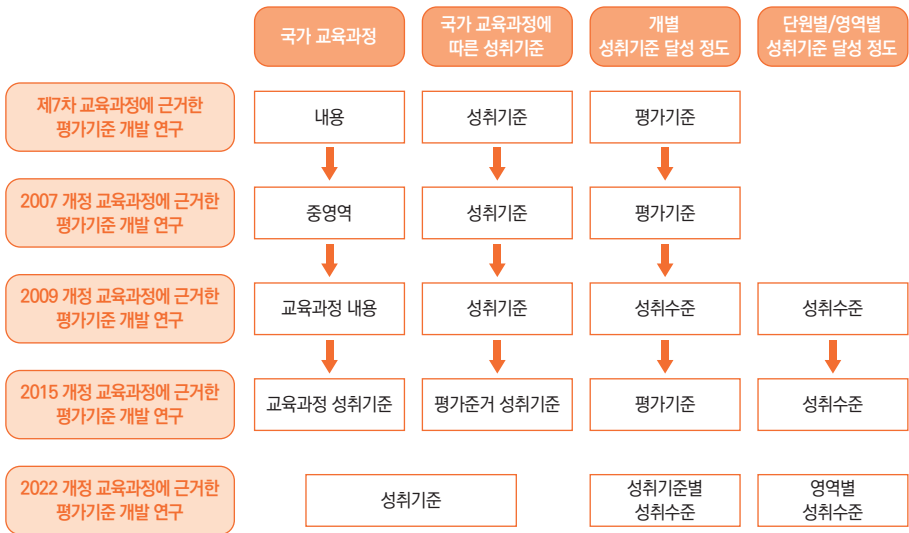
### I. 들어가는 글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한다. 과연 현재 교육은 백년지대계를 바탕으로 만들어져야 할까? 미래 사회는 매우 빠른 속도로 변화되고 있고 이를 예측하기 위한 모델을 개발해 내고 있다. 그러나 이 모델조차도 변화의 속도를 앞지를 수 없기 때문에 적용 모델은 주기적 변경에서 수시 변경 모델로 변화되고 있다. 이러한 미래 사회 적응을 위해 여러 역량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한다. 대표적인 역량으로 복합적 문제 해결력, 비판적 사고력, 휴먼 관리 능력, 협업 능력 등을 이야기하고 앞으로는 AI 리더십과 같은 AI 관련 역량도 미래사회에는 필요하다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이러한 역량은 모든 사람이 갖추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직업군별 필요 역량이 있고 이를 분석하고 체계화시켜 개인별 역량개발이 이루어져야 미래 사회에 적용될 수 있다. 교육이 미래를 내다보고 이루어지는 것은 과거나 지금이나 동일하지만, 교육에 대한 목표나 방향은 100년을 내다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 변화에 따라 능동적으로 변화되는 형태로 교육의 방향이 전환되어야 하고, 지식 위주의 과거 교육은 역량 위주의 교육으로 변화되어야 미래사회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다. 이러한 역량 중심 교육과정의 변화가 대학입학 전형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 II. 학교의 변화

### 1. 교육과정의 변화

교육과정이 2015 개정교육과정부터 체계가 바뀌었다. 일부 교사들은 이 체계 변화에 대해 알지 못한 채 2022 개정교육과정을 접하고 있다. 2009 개정교육과정에서 2015 개정교육과정의 가장 큰 변화는 국가 교육과정이 내용요소(지식)에서 성취기준에 근거한 교육과정으로 변화되었다는 부분이다. 이 부분을 평가 영역에서는 성취평가제 적용이라고 표현한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2009 개정교육과정에서는 교사가 학생들에게 필요한 내용요소(지식)들을 설명하거나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내용요소를 아는 것뿐만 아니라 이 내용요소를 통해 어떤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기능요소라고 한다. 그래서 2015 개정교육과정의 국가교육과정은 내용요소인 지식과 이를 통해 키울 수 있는 역량인 기능, 그리고 이러한 역량의 가치를 보여주는 태도로 이루어져 있다. 2015 개정교육과정이 지식, 기능, 태도로 이루어진 성취기준에 기반되어 있어 이를 역량중심 교육과정이라고 하고 중요한 역량을 핵심 역량이라고 불렀다. 2015 개정교육과정을 조금 더 설명하자면 성취기준을 통해 수업과 평가를 설계하고 적용하였으며, 성취기준을 어느 정도 도달하였는지를 평가기준과 영역별 성취수준을 통해 평가하여 제공하는 방식을 도입하였다.



[그림 1] 평가기준 관련 용어의 변화<sup>1)</sup>

<sup>1</sup> 교육부(2023),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연계 고교 성취평가 선도교원 연수

그러면 선생님들은 어떻게 교육과정을 학교에 적용하였을까? 많은 분들이 학교는 변화되지 않았다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필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과거에 비해 생활기록부 기록이 풍부해졌고 이를 두고 생활기록부가 상향 평준화되었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생활기록부가 어떻게 풍부하게 바뀌었을까? 개인이 밖에서 활동한 내용을 생활기록부에 적어서 표현하는 것은 불법이다. 또한 하지도 않은 활동내용을 적는 것 또한 불법이다. 이러한 불법적인 것을 교사가 적어서 생활기록부가 풍부해진 것일까? 당연히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즉, 생활기록부에 적기 위해서라도 다양한 활동을 교사들이 하기 시작했고 이는 곧 생활기록부에 반영되어 2015 개정교육과정 초반에 빈약했던 과목별 세부능력 특기사항이 풍부해지기 시작했다. 또한 이를 교사들이 다양한 방법과 연수를 통해 공유함으로써 특정 학교만의 특색을 찾기 힘들 만큼 다양해졌다. 다만 활동이 풍부해졌을 뿐 학생들의 역량에 대한 평가 부분이 풍부해지지는 않았다. 즉 '무슨 활동을 했는가'에 대한 내용은 많이 있지만 이러한 활동을 통해 '어떤 역량을 키울 수 있었는가'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생활기록부인 것이다. 교수학습 설계부터 역량중심 수업과 평가에 중점을 두지 않고 내용적인 활동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지다 보니 생활기록부에 활동 내용에 대한 기록 위주의 생활기록부가 만들어졌다.

다시 앞에서 언급한 미래교육의 방향에 대해 살펴보면 학생의 역량 개발에 중점을 두고 개인 맞춤형 교육과정이 이루어져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그 정도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즉 한 번 더 교실에서의 변화가 있어야 하고, 이는 고교학점제 즉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2. 고교학점제의 적용

2025년 신입생부터 본격적인 고교학점제가 시행된다. 2023년 6월 공교육 정상화 방안부터 2023년 10월 시안이 발표되고, 12월 국가 교육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 2028 대입제도 개선안까지 고교학점제를 위한 실질적인 적용이라고 볼 수 있다. 고교학점제 적용을 위해 2018년부터 선택형 교육과정이 시행되고 내년부터는 학기단위 편제로 1학년부터 변경된다. 지금은 많은 학교들이 학년단위 과목 개설을 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학기 단위로 과목이 개설되고 온라인학교, 공동교육과정 등이 확대됨으로써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또한 다양한 형태의 수업 및 학생중심 교육활동 여건 조성을 위하여 스마트 교실, 가변형교실, 온라인 학습실, 홈베이스 등 다양한 학점제형 공간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고교학점제 적용을 통해 학교는 어떻게 변화될까?

고교학점제를 시행하기 위해 2022 개정교육과정이 시행된다. 고등학교에서의 2022 개정교육과정은 공통과목과 일반, 진로, 융합으로 분류된 선택과목 그리고 전문교과로 되어 있다. 이러한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학교는 학기단위 편제와 학생선택형 교육과정으로 편성하여 개인별 맞춤형 교육과정을 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만, 대학수학능력시험 준비를 위한 과목과 교원 수급의 문제점이 있는 과목에 대해서 개설이 제한될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온라인학교, 공동교육과정을 통해 학생선택형 교육과정을 보장하고 있다. 즉,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는 다양한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되어 있다.

고교학점제의 학생선택형 교육과정 다음으로 이야기되는 것이 졸업학점 이수에 대한 내용이다. 과목별로 학점 이수 제도를 도입하고 졸업시 최소 이수 학점을 취득해야 졸업이 가능한 부분이다. 교육과정 측면에서 볼 때 모든 학생이 최소 성취수준을 이수해야 한다는 책임교육의 한 부분으로 이해하면 된다. 그러나 이 부분은 대학입학의 필수 선행 조건이고 충실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이라면 문제 되지 않는다. 그러면 대학입학과 연관된 고교학점제 적용은 성취평가제이다.

성취평가제는 2015 개정교육과정에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무엇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 성취평가제를 나타내는 좋은 문구이다. 여기서 ‘무엇을’은 성취기준을 이야기하고 국가교육과정을 이야기한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핵심역량을 기초로 지식, 기능, 태도로 구성되어 있다. ‘어느 정도’는 성취수준을 이야기한다. 성취수준은 A~E까지 수준으로 구별되고 학습자가 어느 성취수준에 도달했는지를 교사가 평가하는 방식이다. 과거 수미양가의 단순한 점수를 기 준한 절대평가 방식은 ‘어느 정도 학생이 역량을 갖추었는가’를 대변하는 성취평가제와는 차별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10월 발표된 2028 대입제도 개선안에서 2015 교육과정에 적용된 9등급산출 방식을 폐지하는 대신 5등급으로 변경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예체능과 과학탐구실험, 교양을 제외하고 전문교과를 모두 포함하는 교과목을 5단계 성취도 A~E까지 산출한다고 발표가 되었다. 다만 12월에 국가교육위원회 결정에 따라 사회·과학 융합과목 9개 과목에 대해서는 등급산출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성취평가제가 본격 시행되는 2025년부터 학교는 이에 맞추어 변화를 보여줄 것이다. 우선 수업에서 학생들이 성취기준을 학습할 수 있는 형태로 수업이 구성되어 진행되고 성취수준 도달 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평가가 설계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사의 역량이 매우 필요함으로 교육부에서는 각 학교에 1명 이상의 선도교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2023년 겨울부터 성취평가제 교원 연수를 진행하고 있다.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2025년부터는 전국의 모든 학교에 성취평가 선도교원이 1인 이상씩 배치 완료될 예정이며 각 시도 교육청에서 추가적인 연수를 진행하여 교사의 역량강화에 힘쓰고 있다. 이는 성취평가제가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역량 중심 수업과 평가로의 변화는 대학입시에서의 변환점이 될 수 있다. 학생은 자신의 삶을 중심으로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함으로써 개인 맞춤형 교육과정을 스스로 만들어 적용하게 되고, 교사는 학생이 선택한 교과에서 역량 중심 수업과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학생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역량을 대학에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학은 학생 선발이 이루어지는 구조를 가지게 된다.

### 3. 고교학점제 적용을 위한 대학입시의 변화

대학의 학생 선발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는 지속적으로 이야기되어 왔다. 특히 많은 수험생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변별력에 대한 이의제기에 의해 2028 대입제도 개선안에서 일선 교사들이 주장하는 성취평가제 단독시행이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었다. 다만, 9등급 상대평가 병기에서 5등급 상대평가 병기라는 형태로 변경되어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훼손하지는 않았다. 2022 개정교육과정은 내년 1학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2028년도 대입에 반영되게 된다. 고교학점제의 변화가 대입제도에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제시해 주기를 원하지만 아직 고교학점제의 틀을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선불리 대입제도의 변화를 확고히 예측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고교학점제 적용에 따른 학교변화를 통해 대학입학 제도가 변화되어야 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다.

☑ 2025학년도 1학년 학생부터 기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변경

| 5등급제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
| 석차비율 | 10% | 24% | 32% | 24% | 10%  |
| 누적비율 | 10% | 34% | 66% | 90% | 100% |

☑ 과목 평가결과는 성취도(A~E)와 석차등급(1~5등급)을 함께 기재

※ 체육, 예술, 교양 교과(군), 과학탐구실험 과목은 성취도만 기재

| 과목별 성적 산출 및 대학 제공 방식(확정) |

| 구분           | 절대평가 |           | 상대평가 | 통계정보         |      |      |
|--------------|------|-----------|------|--------------|------|------|
|              | 원점수  | 성취도       | 석차등급 | 성취도별<br>분포비율 | 과목평균 | 수강자수 |
| 보통교과         | ●    | A·B·C·D·E | 5등급  | ●            | ●    | ●    |
| 사회·과학 융합선택   | ●    | A·B·C·D·E | -    | ●            | ●    | ●    |
| 체육·예술/과학탐구실험 | -    | A·B·C     | -    | -            | -    | -    |
| 교양           | -    | P         | -    | -            | -    | -    |
| 전문교과         | ●    | A·B·C·D·E | 5등급  | ●            | ●    | ●    |

[그림 2] 2028 대입 개편에 따른 2025년 고교 내신체제 변경<sup>2</sup>

고교학점제의 적용에 따른 학교의 변화 중 가장 큰 것은 역량중심의 수업과 평가로 앞에서 말씀드렸다. 또한 평가 기록은 예체능, 교양, 과학탐구실험을 제외하고는 모두 5단계 성취도로 표시되는 형태로 기록되며 5등급 상대평가가 병기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또한 성적표에는 표준편차는 제공되지 않으며 원점수와 성취도별 분포비율, 과목평균, 수강자수가 제공된다. 지식암기 위주의 평가는 지양하고 논서술형 평가 문항 확대를 교육부는 권장하고 있다. 이를 통해 생활기록부 기록은 학생활동 중심에 역량 중심 기재사항이 추가되어 학생 역량에 대한 다양성이 제시될 수 있다. 또한 지식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식을 활용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 지에 대한 부분이 중요해진다.

2 교육부(2023),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확정안

학교의 변화가 학생의 평가에 영향을 미치고 이를 미래 지향적 대학입시와 연관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면 대학은 학생들의 역량을 어떻게 평가하여 대학입시에 반영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방향성을 찾을 수 있다.

### III. 고교학점제의 도전

#### 1. 고교학점제 적용을 위한 대학의 학생부 중심 전형 선택

대학의 학생 선발방법에는 크게 수시와 정시로 구분하고 있다. 수시는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부 교과전형, 대학별고사로 불리는 논술전형, 그리고 예체능 학과 선발을 위한 실기전형 등이 있다. 정시전형은 대부분이 수능위주 전형이 많다. 물론 지방대 일부에서 정시에도 학생부 교과 전형을 실시하기도 하지만 정시는 수능위주 전형이라는 인식이 많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고교학점제 즉 2022 개정교육과정은 학생이 교과목을 선택하고 지식암기 위주가 아닌 역량중심 평가를 통해 성취수준에 도달하고 이를 성취도로 표현하여 제공한다. 또한 성취수준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을 역량 중심으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여 제공한다. 이러한 역량 중심 생활기록부 제공이 대학선발에 중요한 자료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제공된 9등급의 상대평가는 학생들을 1등부터 줄을 세우고 이에 맞는 비율로 학생들의 등급을 부여하는 방식의 선발에 필요한 변별력 위주의 평가방식이었다. 특히 학생부 교과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활용하기 매우 좋은 평가방식이다.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이러한 평가방식이 5등급으로 변화된다. 9등급의 상대평가 변화가 5등급으로 변화됨으로써 발생하는 현상을 밖에서는 두 가지 견해로 이야기한다. 첫 번째는 어차피 상대평가 결과가 존재하므로 성취평가제의 성취도는 지금처럼 무의미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두 번째는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변경되면서 변별력의 영향이 줄어들어서 5등급 상대평가는 성적부풀리기(성적 과대평가)를 예방하는 차원에서의 방지 기능만을 가질 것이라는 부분이다. 이런 측면을 기초로 각 전형에 대해 간단히 살펴 보겠다.

먼저 학생부종합전형이다. 입학사정관이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사항을 토대로 정성적인 평가를 통해 선발하는 방식이다. 물론 일부 상위권 대학에서는 학생부교과전형을 정량과 정성으로 나누고 정성평가를 이렇게 반영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전형에서 2022 개정교육과정의 학교생활기록부는 매우 환영할 만한 변화라고 본다. 현재까지 기재 사항이 성취수준과 동떨어진, 즉 학교 수업과 연계성이 적고 오직 학생활동에 초점이 맞추어 있었다면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는 수업과 연계되어 성취수준 도달 정도를 교사가 역량중심으로 평가한 내용이 기재되어야 하고, 이를 학생선발에 활용함으로써 역량중심 선발이라는 미래의 대학 학생선발 구조를 갖게 된다.

두 번째는 학생부교과전형이다. 상위권 대학은 대부분 정성과 정량을 반영하기 때문에 크게 변경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이다. 또한 정량 부분의 변별력이 떨어지므로 정성적인 평가가 학생선발의 주요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 또는 현재 등급 반영 방식에서 성취도를 이용한 방식으로 변화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자칫 성적 과대평가를 일으킬 수 있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성취평가제가 안착된 이후에나 가능하고 현재 교육부에서도 성취평가 적용에 따른 성적부풀리기(성적과대평가)를 예방하고 정상적인 성취평가제 운영을 위한 평가관리센터 설치 운영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면 현 학생부교과전형 방식을 사용한다면 수도권 이하 대학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식에 문제점이 발생한다. 특히 학생 변별력이 중요한 대학들은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그러기 때문에 학생부교과전형을 학생모집에 주로 사용하고 변별력이 필요한 대학에서는 2022 개정교육과정 적용에 따른 2028년도 대입을 지금부터 고민하고 있고 연구하고 있다.

세 번째 논술전형이다. 논술전형은 학교 교육현장과 동떨어진 학생 선발 방식으로 인식되고 있다. 원래 논술에 강한 학생들을 위한 전형이 되어야 하지만 현실은 내신이 나쁜 학생들이 볼 수 있는 수시 전형으로 인식되고 있다. 2023년 6월에 교육부 발표를 통해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의 논술형 평가 확대를 이야기했고 실제 현장에서는 IB 교육에 대한 병행 정책이 실시되고 있다. 이러한 취지대로 진행된다면 고등학교 수업 평가에서 논술형 평가 확대가 논술 전형의 취지와 부합됨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학생부 교과전형의 축소와 맞물려 논술전형의 확대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고교학점제 적용 취지와는 약간 상이한 흐름으로 볼 수 있다.

네 번째 대학수학능력평가 전형이다. 아직도 대부분의 학교가 대학수학능력평가와 학교수업은 별개로 보고 있다. 대학수학능력평가는 성취수준에 입각한 평가 방식이 아닌 철저히 변별력에 기인한 평가로 대학에서 변별을 통한 학생선발을 손쉽게 할 수 있는 전형방법이다. 2028 대입제도 개선안에서 수능출제과목은 선택형에서 필수로 변경되고 수학의 경우 기하와 미적분Ⅱ와 같은 과목이 제외되고 과학탐구와 사회탐구에서 선택과목이 모두 배제됨으로써 선택과목에 따른 유불리 부분이 없어졌다. 하지만 아직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최저학력 기준으로 활용할 예정이고 정시의 선발 기능으로 활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소위 킬러 문항은 없어졌지만 변별력을 위한 상위 문제 위주 출제는 불가피해 보인다. 또한 현재와 동일하게 영어와 한국사를 제외한 과목이 등급 및 백분위 산출이 되기 때문에 지금과는 별반 다르지 않은 형태로 유지될 것이다.

각 전형을 살펴본 결과 학생부종합전형은 2022 개정교육과정의 최대 수혜전형이다. 하지만 학생부교과전형은 2028 대입제도 개선안에 따라 변화가 제일 크게 나타나는 전형으로 이 변화에 따라 고교학점제 적용의 성공과 실패가 예견될 수 있다.

## 2. 학생부 중심 전형 변동에 대한 학교의 변화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생들의 역량을 평가하고 선발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가장 적합한 전형방법이다. 다만, 대학에서 이를 공정한 눈으로 바라보기 위해서는 교사가 성취평가제를 올바르게 적용하고 성취수준에 따른 학생평가가 교사의 전문성에 기인하여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입학사정관의 의심에서 시작되는 평가방식이 지속될 수밖에 없고 대학에서 실시되는 면접도 학생 역량을 판단하기 위한 면접이 아닌 학생생활기록부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면접으로 활용될 수밖에 없다. 또한 학생부 교과 전형의 경우도 학생 변별력의 문제점으로 인해 전형이 변화되어야 한다면 학생부종합

전형, 논술전형, 수능전형 등으로 선발 인원이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 이때 2022 개정교육과정의 취지에 부합되는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이동이 되면 문제가 없지만 논술전형과 정시 수능전형이 확대된다면 고교 학점제 적용의 의미가 퇴색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2028학년도 대학입시의 올바른 방향성은 고교 학점제의 올바른 적용과 정착을 전제로 고등학교와 대학의 연계된 입시 제도 정착에 있다. 그래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성취평가제 정착이 선행되어야 하는 과제이고 이를 위해서 교육부 및 각 시도 교육청이 대규모 연수 및 평가관리센터 구축에 힘쓰고 있다.

## IV. 미래를 위한 과제

### 1. 교사의 준비

2022 개정교육과정은 2015 개정교육과정과 내용상으로 크게 바뀐 것 같지 않지만 실제 평가 결과 산출이 바뀌어서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했어야 하는 것들을 안한 현재 시점에서 큰 변화로 인식되고 있다. 9등급 상대평가에서 학생들의 역량을 평가하는 성취평가제로서의 변화는 과거 어느 교육과정 변경 때보다 큰 파도로 다가오고 있다. 큰 파도가 올 때 파도를 맞서는 것보다 파도에 올라타서 흐름을 타는 것이 파도를 이기는 방법이라고 한다. 2022 교육과정의 성공 여부는 미래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도 연계되어 있다. 성취평가제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이를 위해 학생들을 위한 수업설계를 하고 평가하여 가치 있는 학교 생활기록부를 대학에 제공함으로써 교사의 가치를 한층 더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성적 부풀리기(성적 과대평가)는 결국 교사의 평가권을 포기하는 행위로 당장은 가르치는 학생들이 좋은 대학에 가겠지만 궁극적으로 대학이 고등학교 교사를 믿지 못하게 하는 첫 번째 지름길이다. 그러므로 교사의 전문성을 향상시켜 성취수준에 맞는 평가를 함으로써 학생의 삶이 풍요롭게 행복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 2. 대학의 준비

고교학점제를 바라보는 대학은 고등학교 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의심을 없애고 교사의 성취평가제에 따른 평가 내용을 믿고 이를 학생의 역량 평가에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단순히 정량적인 수치뿐만 아니라 정성적인 교사의 평가 내용이 대입에 반영되어 올바르게 학생을 평가하고 선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내년부터 시행되는 고교학점제가 올바르게 적용되고 정착될 수 있다.

### 3. 학생, 학부모의 준비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부모님이 바라보는 고등학교의 수업은 과거 부모님들이 배웠던 시절과는 완전히 다르다. 또한 현시점에서의 학생들이 생각하는 미래는 부모님이 생각하는 미래와 다를 수 있다. 그런데 학업성취도가 좋은 학생이건 낮은 학생이건 거의 모든 부모님들은 대학 졸업하고 먹고사는 걱정 없고 돈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을 가졌으면 한다. 학생들은 다양한 학생들이 존재하는데 부모님은 하나의 부모님만

존재하는 것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된다. 기초교과(소위 국영수)를 못하는 친구는 고등학교 수업을 따라가기 힘들다고 생각해서 학원과 같은 사교육 시장으로 내보낸다. 공부를 잘하고 좋아하는 학생이 있는 반면 춤추고 다양한 끼를 보여주는 친구도 있다. 즉 학생의 다양성에 대한 부모님의 인정부터가 미래 사회를 올바르게 이끄는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자신이 좋아하고 잘 할 수 있는 적성부터 찾고 이를 자신의 직업으로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2022 개정교육과정의 취지이고, 교사의 수업 평가 전문성을 바탕으로 학교와 교사를 믿어주고 함께 자신의 삶을 만들어 가는 것이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의 진정한 학생의 준비이다. 자신의 꿈을 위해 과목을 선택하고 수업에서 여러 학습경험을 통해 역량을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학에 진학한다면 올바른 취지의 고교학점제를 활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고교 학점제 적용에 따라 고등학생의 입시 준비는 입학부터 졸업까지 충실한 학교 수업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충실한 학교 수업을 하지 않고 생활기록부를 풍부하게 한다거나 처음부터 학교 생활기록부를 포기하고 논술, 정시 수능위주로 준비한다면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버리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2028 대입제도 개선안에서는 향후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를 위해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 논의 과정에서 제안되었던 수능 및 수시·정시의 시기 조정 방안을 국가교육발전 계획과 연계하여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가 협의·검토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학교생활에 충실한 학생 즉, 자신의 삶을 위해 자신의 역량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학생을 선발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고 이에 맞추어 대학입시도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 V. 맺는 글

2018년 고교학점제 연수를 처음 들으면서 설마 고교학점제가 실행될 수 있겠는가에 의구심을 가졌었다. 지금도 많은 학생, 학부모, 교사 그리고 대학 관계자분들이 똑같이 이야기한다. 그런 분들을 만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라는 질문을 하면

‘예전처럼 하면 안 되나요?’라고 한다.

‘그때는 먹고사는 것이 문제였던 때이고 지금은 행복한 삶이 문제 아닐까요?’라고 답변 하면

‘그때는 그래도 대학 가려면 공부만 하면 되었잖아요?’라고 대화를 이어간다.

과연 제시된 동일 내용만 공부하면 대학 갈 수 있는 것이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키워주는 것일까?

학생들에게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해보면

‘돈 많이 벌고 싶어요!’라고 대답하는 학생이 있다.

‘얼마나 많이 벌고 싶은데?’라고 질문하면

‘100억이요’, ‘200억이요’라고 대답한다.

‘그 돈 다 벌고 나면 무엇을 하고 싶은데?’라고 물어보면

‘그 돈으로 000을 하고 싶어요!’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돈 못 벌면 000은 못 하겠네!’라면 그건 아니란다.

인생의 목표가 돈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학생들이 하고 싶은 일을 통해서 행복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통해서 사회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한 시기에 왔다.

학생은 자신의 삶을 위해, 자신의 꿈을 위해 노력하여 역량을 키우고 이를 부모님과 교사가 도와주는 형태가 되어야만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고 이를 통해 건강한 사회가 만들어진다는 것에 의심하지 않는다. 대학은 미래를 위한 삶을 만들 수 있도록 확장시켜 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역량 있는 학생을 선발하고 키워줄 수 있는 학습장으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다. 고교학점제, 2022 개정교육과정은 미래 사회를 준비하기 위한 필수적인 교육의 변화이다. 학생의 삶이 사회구성원으로 올바르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진정한 미래 교육의 방향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글을 맺는다.

#### 참고문헌

-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확정안, 교육부, 2023
- 모든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 교육부, 2023

교사와 학생, 학교가 함께하는

# 학생부종합전형 이야기

열 번째 시리즈



## 02 / 전면 도입되는 고교학점제



## 교사의 수업과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 조만기

남양주다산고등학교 교사  
경기도 진학지도리더교사단  
前 대입제도개편위원회 교육전문가 자문위원  
前 대입정보포털 온라인상담 운영팀장

고교학점제란 학생이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누적하여 졸업하는 제도로 정의되고 있다. 2022 교육과정과 함께 고등학교 현장에는 2025년부터 실시가 될 예정이다.

고교학점제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교육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고 있다.

- 학생 맞춤형 교육을 통해 잡자는 교실을 깨울 수 있다.
-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기르기 위해 필요하다.
- 학생 개개인의 다양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



하지만 대입제도의 틀이 바뀌지 않는 한 고교학점제가 애초에 계획한 바대로 진행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도입되는 고교학점제를 잘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2022 교육과정에서 강조되고 있는 부분을 잘 파악하여 수업의 변화와 함께 공교육을 통해 길러내야 할 미래 인재들에게는 어떠한 부분을 채워 주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고교학점제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서 운영될 것이다. 학생의 과목 선택권이 충분히 보장되는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학생의 수요조사를 반영하여 개설이 가능한 과목을 확정한다.

학생은 개설된 과목 중에서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여 개인 시간표에 따라 수업을 진행하게 된다. 학생이 성취 기준에 도달한 수준을 절대 기준으로 평가하고 목표한 성취 수준에 충분히 도달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점을 인정하여 일정 기준 이상 학점이 취득되면 졸업을 인정받게 된다.

현재 고등학교에서 운영 중인 2015 교육과정에서도 학생들에게 진로와 적성에 따른 과목을 선택하도록 강조되어 오고 있었다.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서 학점을 취득하여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로 변경되기는 하지만 실제 고등학교 현장에서는 2022 교육과정이 도입되는 것을 가장 크게 고교학점제로 인식하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실제로 학생, 학부모, 교사가 고교학점제가 고등학교 현장에 도입이 되었을 때 가장 많이 신경을 써 온 부분은 바로 절대 기준으로 학생들을 평가한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2023년 12월에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2028 대입제도 개편 확정안이 발표되었다. 확정안에 따르면 고등학교 내신 체제는 기존의 9등급에서 5등급제로 개편되었다. 상대평가의 적용을 받는 교과는 고시 과목 총 151과목 중 체육, 예술, 교양, 사회·과학 융합선택과목 9과목을 제외한 모든 교과, 125과목(82.7%)으로 2015 교육과정에 비해 확대되었다. 2028 대입제도를 결정하는 상황에서 성취평가제의 전면 도입을 준비해 온 고교학점제는 결국 상대평가의 양적 확대라는 모습으로 변경되었다. 교육부가 밝힌 5등급 체제 결정의 이유는 “세계 주요국 대부분 5등급제 평가를 실시하며, 학교 내신에서 주제 글쓰기, 보고서 평가 등 논·서술형 평가를 지향하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 주요국의 고등학교 내신 평가 방식〉

| 국가 | 미국   | 일본   | 프랑스  | 홍콩   | 중국   | 영국   |
|----|------|------|------|------|------|------|
| 등급 | 5등급  | 5등급  | 5등급  | 5등급  | 5등급  | 5등급  |
| 방식 | 절대평가 | 절대평가 | 절대평가 | 절대평가 | 절대평가 | 절대평가 |



따라서 애초에 고교학점제를 성취평가제를 염두에 두고 설계했던 내용과 방향성은 많이 달라졌다. 상대 평가 9등급제가 5등급제로 개편되었지만 여전히 2028 대입제도 개편안이 적용되는 앞으로의 고등학교 현장에서는 등수에 의한 등급 결정 구조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는 수업과 평가가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성적 산출 구조가 바뀐 부분은 기존의 2015 교육과정보다는 교과성적이 가지는 변별력이 줄어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대학교 입시에서 정량평가 중심의 전형에서는 정성평가가 새롭게 추가되는 방향으로 전형이 설계되고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생각한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생활기록부의 숫자가 아닌 기록의 영역이 대입 전형 전반에서 평가에 활용될 가능성은 매우 커질 것이다. 따라서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을 위한 수업 준비와 평가 설계, 그리고 관찰을 통한 학교 생활기록부 기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

### 〈9등급제와 5등급제 비교〉

|            |            |            |            |             |            |            |           |            |
|------------|------------|------------|------------|-------------|------------|------------|-----------|------------|
| 4<br>(4)   | 7<br>(11)  | 12<br>(23) | 17<br>(40) | 20<br>(60)  | 17<br>(77) | 12<br>(89) | 7<br>(96) | 4<br>(100) |
| 10<br>(10) | 24<br>(34) | 32<br>(66) | 24<br>(90) | 10<br>(100) |            |            |           |            |

1등급의 비율이 4%에서 10%로 증가함에 따라 최상위권 학생들을 단순한 내신성적만으로 변별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여러 예상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은 최소 4~6% 정도의 학생들이 1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최상위권 학생들이 지원하는 대학교와 의약계열 학과에서는 2028 대입제도 개편안을 바탕으로 대입전형을 설계할 때, 학생부종합전형뿐만 아니라 학생부교과전형과 정시 수능위주 전형에서도 정성평가를 활용해야만 학생들을 변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2022 교육과정 총론의 원론적인 부분에서도 수업의 변화는 필요하지만 대입전형을 바라보고 준비하는 측면에서도 일선 고등학교에서는 서류평가의 강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2022교육과정의 핵심 요소들을 활용한 수업의 변화와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의 내실화를 위해서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발표된 2026 시행계획안을 살펴봐도 학생부교과전형에서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한양대 등에서 서류평가를 반영하고 있고,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한양대는 정시에서도 학교생활기록부 또는 서류평가를 반영하고 있다. 2028 대입제도 개편안을 바탕으로 대입 전형을 설계 할 때는 이러한 방식을 훨씬 많은 대학교에서 실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학생부교과 전형과 수능위주 전형에서도 과목 이수 충실도, 학업성취도 뿐만 아니라 학업 수행 내용을 교과학습발달상황과 교과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통해 확인할 것이다. 이제는 단순히 수업 시간에 어떤 활동을 했는지 평가하는 차원에서 과목별 성취수준의 특성에 따른 학습활동의 충실도, 교과교과(목)별 수업의 학습 활동에서 함양한 종합 사고 역량 및 창의 탐구 역량뿐만 아니라 수업 활동 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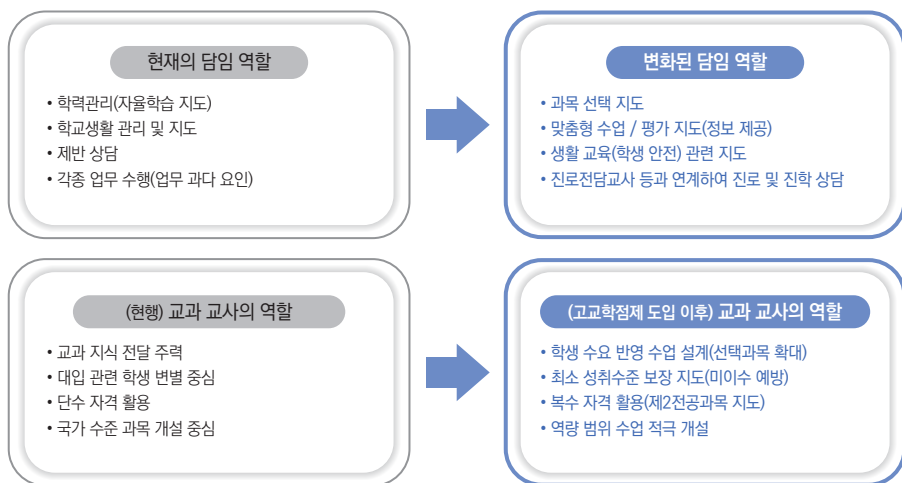
소통/공감 능력, 협업능력 등을 함께 평가할 것이다. 이에 따라 새롭게 바뀌는 대입제도에 대한 대비 측면에서도 2022 교육과정의 특성에 맞는 수업에 대한 변화와 이 학생들의 개별적 특성이 드러나는 학교생활 기록부 기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즉, 5등급제로 변경되어 변별력이 떨어진 내신성적을 학교생활기록부의 내용을 바탕으로 심화시키고 보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2022 교육과정의 다양한 과목을 선택 이수할 것이다. 이러한 과목 선택의 다양화에서 학생들의 개별성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단순한 과목 선택 상황만으로 학생들의 온전한 개별성을 확보하기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의 다양성 확보로 학생들의 개별적 특성과 역량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학교 활동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 활동에 참여하는 과정과 추후 결과물을 바탕으로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학생 개인의 개별성을 보여줄 수도 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학생들이 다양하게 선택한 과목의 수업 활동에서 개별 학교, 개별 과목, 개별 교사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다양성이 기본적으로 확보된 상황에서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는 과정과 역할 및 활용자료, 개인의 결과물의 내용 등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개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교육부에서 발간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르면,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교과별 성취 기준에 따른 성취 수준의 특성 및 학습활동 참여도, 자기주도적 학습에 의한 변화와 성장 정도를 중심으로 기재'하는 항목이다. 따라서 이를 검토해보면 학교 현장에서 어떠한 수업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수행평가는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2 교육과정의 도입 즉, 고교학점제가 2025년부터 고등학교 현장에 도입되었을 때, 기존의 2015 교육과정 체계에서의 수업의 모습과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의 모습이 더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 〈고교학점제에 따른 담임 및 교과 교사의 역할〉



## 2022 교육과정의 핵심 = 깊이 있는 학습 + 핵심 아이디어 + 핵심 역량

고교학점제가 고등학교 현장에 적극적으로 도입되기 위한 행정적인 지원은 다음과 같다. 고교학점제 연구·준비학교 운영, 교육과정의 다양화를 통한 학생의 학습 선택권 보장, 교과별 책임교육 체제 구축, 소인수 과목 개설 확대에 따른 교원 지원 및 교원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학교간 교육협력 강화 및 교육지원청-지자체-대학 등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고교학점제 지원 강화, 고교학점제 학교 공간 조성 지원 등이다.

행정적 지원은 고교학점제를 운영하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실제로 학생과 수업을 진행하는 상황에 대한 수업지도안 연구, 수행평가 개발, 평가도구 개발 등의 실질적인 수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시도 교육청의 지원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그런 상황에서 2022 교육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고 이를 실제 수업과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부분을 강조해야 하는지 잘 살펴봐야 한다.

2022 교육과정 총론 해설에서는 고교학점제가 운영되기 위한 교수·학습을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운영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 가. 깊이 있는 학습

깊이 있는 학습은 **학습자가 학습 내용을 익히고 이를 새로운 상황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핵심적인 내용을 내면화하는 학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깊이 있는 이해와 수행은 단순한 지식의 전달이 아닌 학습자의 경험과 지적 활동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깊이 있는 학습을 위해서는 사고 및 탐구가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학습자가 교과 고유의 탐구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교과가 기반하는 학문 분야의 전문가가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과 개념들을 서로의 관계 속에서 구조화하며 의미를 생성해가는 방식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기능은 분절적인 기술이나 활동이 아니라 높은 수준의 사고와 과정을 통해 지식을 적용, 확장, 실천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깊이 있는 학습’이란 **‘학생의 삶과 연계하여 유의미한 맥락 속에서 배운 내용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삶과 연계한 학습, 교과 간 연계와 통합, 학습과정에 대한 성찰 등을 통해 역량 함양을 가능하게 하는 학습’**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여 교육부 및 사·도교육청에서 보내오는 <교수학습평가> 관련 공문이나 연수에서는 여전히 ‘자기 주도성’, ‘개념 기반 탐구학습’, ‘미래 역량 함양’, ‘서·논술형 기반 생각을 깨내는 평가’와 같은 개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현장에서는 교수학습 혁신을 주도할 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연수와 프로그램을 운영중이다. 최근 관심이 높아지는 IB 교육과정 역시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역량, 탐구, 생각과 질문하는 힘, 삶과 연계한 학습, 학습에 대한 성찰’ 등은 관련된 특정한 몇 과목을 배운다고 길러질 수 없다. 전반적인 교수학습 및 평가의 일관된 가치 속에서 학생들이 자연스러운 생활 양식으로, 문화로 받아들이고 있어야 가능한 것이다.

‘깊이 있는 학습’은 2022 개정교육과정 총론 해설에서 교과 지식을 더 많이 학습해야 한다거나 더 어려운 수준까지 학습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 개념과 원리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내면화하고 생각이나 경험을 연결하여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함**을 의미한다. 깊이있는 학습이 이루어질 때 그 지식은 무기력한 지식이 아니라 삶의 다양한 맥락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살아있는 지식이 되며,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문제 해결의 기초가 될 수 있다.

깊이 있는 학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교수·학습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설계하여 운영되어야 한다고 교육과정 총론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

- 1) 단편적 지식의 암기를 지양하고 각 교과목의 핵심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의 내용 요소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며 학생의 발달 단계에 따라 학습 경험의 폭과 깊이를 확장할 수 있도록 수업을 설계한다.
- 2) 교과 내 영역 간, 교과 간 내용 연계성을 고려하여 수업을 설계하고 지도함으로써 학생들이 융합적으로 사고하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한다.
- 3) 학습 내용을 실생활 맥락 속에서 이해하고 적용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교에서의 학습이 학생의 삶에 의미있는 학습 경험이 되도록 한다.
- 4) 학생이 여러 교과의 고유한 탐구 방법을 익히고 자신의 학습 과정과 학습 전략을 점검하며 개선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스스로 탐구하고 학습할 수 있는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한다.
- 5) 교과의 깊이 있는 학습에 기반이 되는 언어·수리·디지털 기초 소양을 모든 교과를 통해 함양할 수 있도록 수업을 설계한다.

## 나. 핵심 아이디어 중심의 수업 설계

2022 교육과정 총론에서는 단편적 지식의 암기를 지양하고 각 교과목의 핵심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의 내용 요소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며 학생의 발달 단계에 따라 학습 경험의 폭과 깊이를 확장할 수 있도록 수업을 설계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핵심 아이디어는 **교과 기저의 근본이며, 학습의 토대가 되는 개념**들을 의미한다. 이는 영역별로 학습에 초점을 부여함으로써 깊이 있는 학습의 토대를 마련하며, 영역을 구성하는 학습 내용의 세 차원의 기준이 된다. 핵심 아이디어는 교과 학습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내면화, 자기 맥락화해야 할 아이디어로서,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수준에서 표현된다. 따라서 학습자가 그 의미나 가치를 분명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깊이있는 학습이 요구된다.

각 교과와 핵심 아이디어는 학교급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학습 내용으로서, 서로 다른 학교급에서 같은 수준으로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발달 단계에 따라 체계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동일한 핵심 아이디어라고 할지라도 학년이 거듭될수록 그 내용의 폭이 넓어지고 이해 수준이 깊어지게 된다. 이렇게 축적되는 경험을 통해 교과 내 지식을 충분히 이해하고, 교과 역량을 갖출 수 있게 된다.

내용 체계는 ‘핵심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세가지 범주(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의 내용 요소를 제시하고 이에 근거하여 성취기준을 개발해야 한다.

- 지식·이해 : 교과(목) 및 학년(군)별로 해당 영역에서 알고 이해해야 할 내용
- 과정·기능 : 교과 교육의 사고 및 탐구 과정 및 기능
- 가치·태도 : 교과 활동을 통해 기를 수 있는 고유한 가치와 태도



〈2015 교육과정과 2022 교육과정의 내용체계 및 성취기준 비교〉

| 2015 교육과정의<br>내용 체계 및 성취기준                                                                                  | 2022 교육과정의<br>내용체계 주요 요소 및 성취기준의 특징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핵심 개념</li> <li>• 일반화된 지식</li> <li>• 내용 요소</li> <li>• 기능</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핵심 아이디어<br/>: 영역을 아우르면서 해당 영역의 학습을 통해 일반화 할 수 있는 내용을 핵심적으로 진술한 것. 이는 해당 영역 학습에 초점을 부여하여 깊이있는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토대가 됨</li> <li>• 내용 요소<br/>: 교과(목)에서 배워야 할 필수 학습 내용</li> <li>• 지식·이해 : 교과(목) 및 학년(군)별로 해당 영역에서 알고 이해해야 할 내용</li> <li>• 과정·기능 : 교과 고유의 사고 및 탐구 과정 또는 기능</li> <li>• 가치·태도 : 교과 활동을 통해 기를 수 있는 고유한 가치와 태도</li> </ul>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취기준<br/>: 내용 요소의 기능을 결합하여 성취기준 개발</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취기준<br/>: 영역별 내용 요소(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를 학습한 결과 학생이 궁극적으로 할 수 있거나 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도달 정도</li> </ul>                                                                                                                                                                                                                          |

또한 올바른 평가와 수업활동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성취기준, 성취수준, 평가기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 성취기준 : 국가 교육과정에 진술된 성취기준으로 학생들이 교과를 통해 배워야 할 지식(내용 요소)과 이를 통해 수업 후 학생이 할 수 있거나 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능력(기능 요소)을 결합하여 나타난 활동의 기준으로 교수·학습 평가의 실질적인 근거로 교사가 무엇을 가르치고 평가해야 하는지, 학생이 무엇을 학습하고 성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지침이다. 학교 여건, 학생의 특성에 따라 교육과정 및 교과서 내용을 분석하여 교과협의회를 통해 평가준거 성취기준으로 재구조화 할 수 있다.
- 평가기준 : 활동에서 학생의 학습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 각 성취기준에 도달한 정도를 상/중/하의 세 단계로 구분하고, 각 도달 정도에 속한 학생들이 무엇을 알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기술한 것이다. 이는 교수·학습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학생 수준을 고려한 수업 설계에 활용 할 수 있으며, 채점 기준 설정의 근거가 된다.

- 평가요소 : 교육과정 성취기준 도달의 증거로, 학생들이 보여주기를 기대하는 핵심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평가 내용이다.
- 성취수준 : 각 단위 또는 영역에 해당하는 교수·학습이 끝났을 때 학생이 성취하기를 기대하는 지식, 기능, 태도에 도달한 수준을 판단하기 위해 단위 또는 영역 내 성취기준을 포괄하는 전반적인 특성에 도달한 정도를 수준별로 진술 한 것이다. 단원이나 영역별로 교수·학습 계획 수립을 비롯하여, 학생의 성취 정도 평가, 학생 및 학부모와의 의사소통 등에 도움이 되도록 활용할 수 있다.

2024학년도 서류평가 과정에서 서울권 모 대학교에서 서류평가 시스템에 각 교과 성취기준과 성취수준을 텍스트 자료로 입력해서 지원자들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의 기록과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위촉 사정관들이 서류평가를 하면서 각 교과에서 제시된 성취기준, 성취수준과 지원자의 기록이 거의 동일하게 작성되어 있어서 평가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성취기준과 성취수준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평가하는데 활용되어야 한다. 이는 학생들이 성취하기를 기대하는 내용으로 직접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는 상황은 결코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 성취기준, 평가기준, 성취수준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수업을 설계하고 평가를 계획할 때, 학생들에게 어떤 분야의 역량을 보고자 하며, 그것을 위해 어떤 활동들을 학생들에게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한 심도있는 고민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 다. 핵심 역량

2015 교육과정에서는 교육과정 차원에서 핵심 역량을 추구하였다. 교육과정 차원에서의 6대 핵심 역량과 더불어 각 교과별 핵심 역량을 설정하였다. 이로 인해 2015 교육과정 체제에서의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에서는 역량 중심 평가라는 용어가 유행하였다. 2022 교육과정으로 변경되면서도 전체 교육과정의 6대 핵심 역량은 유지되고 기존의 의사소통 역량이 협력적 소통 역량으로만 변경되었다.

2022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을 구현하기 위해 교과 교육과 창의적 체험활동을 포함한 학교 교육 전 과정을 통해 중점적으로 기르고자 하는 핵심 역량은 다음과 같다.

- 1) 자아정체성과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삶과 진로를 스스로 설계하며 이에 필요한 기초 능력과 자질을 갖추어 자기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기관리 역량**
- 2)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영역의 지식과 정보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탐구하며 활용할 수 있는 **지식정보처리 역량**
- 3) 폭넓은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전문 분야의 지식, 기술, 경험을 융합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창의적 사고 역량**
- 4) 인간에 대한 공감적 이해와 문화적 감수성을 바탕으로 삶의 의미와 가치를 성찰하고 향유 하는 **심미적 감성 역량**

- 5) 다른 사람의 관점을 존중하고 경청하는 가운데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며 상호협력적인 관계에서 공동의 목적을 구현하는 **협력적 소통 역량**
- 6) 지역·국가·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개방적·포용적 가치와 태도로 지속 가능한 인류 공동체 발전에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게 참여하는 **공동체 역량**
- 아울러 2015 교육과정에서는 각 교과별 핵심역량도 교과별 총론에서 언급하였다.

#### 〈2015 교육과정 교과별 핵심역량〉

| 교과     | 교과별 핵심 역량                                                                   |
|--------|-----------------------------------------------------------------------------|
| 과학     | 과학적 사고력, 과학적 탐구능력, 과학적 문제해결력, 과학적 의사소통 능력, 과학적 참여와 평생학습 능력                  |
| 국어     | 비판적·창의적 사고 역량, 자료·정보 활용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대인 관계 역량, 문화 향유 역량, 자기 성찰·계발 역량    |
| 기술·가정  | 실천적 문제 해결 능력, 생활 자립 능력, 관계 형성 능력, 기술적 문제 해결 능력, 기술 시스템 설계 능력, 기술 활용 능력      |
| 도덕     | 자기 존중 및 관리 능력, 도덕적 사고능력, 도덕적 대인관계 능력, 도덕적 정서 능력, 도덕적 공동체 의식, 윤리적 성찰 및 실천 성향 |
| 미술     | 미적 감수성, 시각적 소통 능력, 창의·융합 능력, 미술 문화 이해 능력, 자기주도적 미술 학습 능력                    |
| 사회     | 창의적 사고력, 비판적 사고력, 문제 해결력 및 의사 결정력, 의사소통 및 협업 능력, 정보 활용 능력                   |
| 수학     | 문제해결역량, 추론 역량, 창의·융합 역량, 의사소통역량, 정보 처리역량, 태도 및 실천 역량                        |
| 영어     | 영어 의사소통 역량, 자기관리 역량, 공동체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
| 음악     | 음악적 감성 역량, 음악적 창의·융합 역량, 음악적 소통 역량, 문화적 공동체 역량, 음악정보처리 역량, 자기관리 역량          |
| 정보     | 정보문화소양, 컴퓨팅 사고력, 협력적 문제해결력                                                  |
| 제2외국어  | 의사소통 능력, 세계 시민 의식, 정보처리 능력, 정보 검색·활용을 통한 교류능력                               |
| 진로와 직업 | 자아이해와 사회적 역량, 일과 직업 세계 이해 역량, 진로 탐색 역량, 진로디자인과 준비 역량                        |
| 체육     | 건강 관리 능력, 신체 수련 능력, 경기 수행 능력, 신체 표현 능력                                      |
| 한국사    | 역사 사실 이해, 역사 자료 분석과 해석, 역사 정보 활용 및 의사소통, 역사적 판단력과 문제해결능력, 정체성과 상호존중         |
| 한문     | 의사소통 능력, 정보처리 능력, 창의적 사고 능력, 인성 역량, 심미적 감성                                  |

따라서 교과별로 수업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교과별 핵심 역량을 수업과 평가에 잘 적용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었다. 2022 교육과정에서는 2015 교육과정처럼 과목별 핵심 역량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핵심 아이디어를 기준으로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로 내용 체계 범주를 구분하고 있다. 그러면서 따로 과목별 핵심 역량을 2015 교육과정처럼 확실하게 구분하여 규정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과목별 총론의 내용을 바탕으로 2022 교육과정의 과목별 핵심 역량을 다음과 같이 규정해 볼 수 있다.

### 〈2022 교육과정 교과별 핵심역량〉

| 교과 | 교과별 핵심 역량                                                                                                |
|----|----------------------------------------------------------------------------------------------------------|
| 국어 | 비판적·창의적 사고역량, 디지털·미디어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대인관계 역량, 문화향유 역량, 자기성찰·계발 역량                                       |
| 수학 | 문제해결, 추론, 연결, 의사소통, 정보처리                                                                                 |
| 영어 | 영어 의사소통역량                                                                                                |
| 과학 | 과학적 탐구역량, 문제해결 능력, 과학적 의사결정 능력                                                                           |
| 사회 | 창의적 사고력, 비판적 사고력, 문제 해결력 및 의사 결정력, 의사소통 및 협업 능력, 정보 활용 능력                                                |
| 역사 | 자료의 분석·해석 과정을 통해 탐구능력을 기르고 역사지식을 형성                                                                      |
| 도덕 | 비판적이고 배려적인 사고력과 도덕 판단 능력, 정의로운 사회를 지향하는 도덕 공동체 의식, 생태계 위기에 공감하는 도덕적 상상력, 새로운 정보기술 사회가 요구하는 인공지능 및 디지털 윤리 |

현재 많은 대학에서는 활동 중심의 서류평가 방식을 역량 중심 평가로 변화하고 있다. 하지만 역량 중심의 평가가 더욱 구체화 되어야 한다. 역량 중심 평가는 학생이 교과별로 배우고 익힌 사고(력)와 탐구(능력)를 중시하며, 학생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른 다양한 학습 경험을 통해 함양하는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대학 학업 수행을 위한 준비도로 평가한다. 교과 성취도와 고교학점제의 진로·적성에 따른 과목 선택 이수 내용 및 학업 수행 경험의 수준과 깊이를 확인하여 평가함으로써 대학 학업 적응도가 높은 학생들을 선발해야 한다. 또한 학생부 교과성취도는 교과별 학습활동 수행 내용을 바탕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 수준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성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단순 암기 이상의 교과 본연의 깊이 있는 지식을 갖추었는가? 지식과 정보에 대한 판단력과 논리적 사고력으로 주어진 주제를 분석하고 판단할 수 있는가? 비판적 사고력과 분석력으로 주어진 주제를 해석하고 추론하여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가? 관심사에 따른 과목 선택 및 교과 활동에 주도적인 학업 역량이 나타나는가? 타당한 논리적인 사고 체계의 특성이 나타나는가? 주어진 정보와 기존의 지식을 활용하여

문제의 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는가? 등의 내용 등을 평가해야 한다.

이런 내용은 건국대, 경희대, 중앙대, 연세대, 한국외대 5개 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 공통 평가요소 및 평가항목 연구 자료에서도 나타난다. 기존의 탐구 활동을 탐구력으로 학업 역량의 평가항목을 변경하였다.

학생부종합전형은 교과 학습활동을 통해 드러나는 학업 관련 탐구력을 학업역량 평가의 중요한 항목으로 활용해야 한다. 탐구력이란 어떤 대상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고 깊게 꾸준히 연구할 수 있는 역량을 지칭하고 있다. 학업 역량은 교과 학습뿐만 아니라 관심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독서 활동, 글쓰기, 탐구 및 연구 활동, 실험·실습, 교내대회 참여 등 다양한 학습 경험을 통해 향상되는 것이기 때문에, 탐구력은 고차원적인 학업 역량을 보여주는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탐구력을 평가하기 위해 평가자들은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탐구 활동에 얼마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의지가 있는지, 그리고 그 활동을 통해 이론 성과는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교실 수업을 통한 성장 과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교과 시간에 수업 내용에 대해 연계적 질문이나 새로운 문제 해결 방법을 찾고자 노력했는지,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어떤 수업을 수강하였고 수업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탐구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였는지, 수업에서 생긴 궁금증을 풀어보고 싶거나 자신의 역량을 기르기 위해 학교의 어떤 프로그램으로 관심을 확장해 나갔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 수행평가의 내실화와 기록의 구체화

### 가. 수행평가의 내실화

교과 영역에 대한 탐구력 평가는 특정 지식을 잘 사용할 줄 아는지와 탐구력을 신장한 과정도 평가하는데 수행평가는 그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수행평가는 학생 스스로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의 지식과 기능을 적용 또는 활용하는 능력까지 평가하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탐구력을 확인할 수 있다.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탐구 역량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도 있다. 주제 탐구, 프로젝트 학습과 관련한 자율활동을 통해 꾸준한 탐구 의지를 보인 활동을 했을 때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학술 동아리 활동에는 교과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토론, 실험, 연구, 탐구 활동 등이 포함되는데 이를 통해 탐구 역량이 드러날 수도 있다.

이처럼 탐구력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교과 관련 활동이나 실험 실습, 탐구, 연구 활동 등을 통해 드러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학문적 열정이나 지적 관심이 어느 정도인지 살펴본다.

깊이 있는 학습과 핵심 아이디어를 내용 체계로 의미 있는 수업, 그리고 역량 중심의 평가에 대비하는 수업 설계와 평가 계획, 그리고 학교생활기록부의 내실 있는 기록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은 수행평가의 내실화라고 생각한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평가는 성취기준에 근거를 두어야 하며, 교사가 가르치는 내용, 방법, 평가는 일관성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평가는 학습의 과정을 중심으로 실시해야 하는데 즉, 수업 과정을 관찰하고 평가한 기록을 통해 학습자의 사고 과정을 확인하고 문제 해결의 과정을 살펴서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보충할 것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평가의 결과가 학생에게 환류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수행평가의 내실화와 학생 맞춤형 평가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 1) 수행평가를 내실화하고 서술형과 논술형 평가의 비중을 확대한다.
- 2) 정의적, 기능적 측면이나 실험·실습이 중시되는 평가에서는 교과목의 성격을 고려하여 타당하고 합리적인 기준과 척도를 마련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 3) 학교의 여건과 교육활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함으로써 학생 맞춤형 평가를 활성화한다.

따라서 2022 교육과정의 교과별 특징에 따라 진행되는 수업활동 속에서 수행평가의 구체화된 예시를 통해 앞으로 변화될 수업의 모습을 예상할 수 있다.



## 2022 교육과정과 과정 중심 평가와 연계한 과학과 평가와 예시

평가 도구를 개발할 때는 창의융합적 문제 해결력 및 인성과 감성 함양에 도움이 되는 소재나 상황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활용한다.

- ‘과학’의 핵심 개념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 ‘과학’의 과학적 탐구에 필요한 문제 인식 및 가설 설정, 탐구 설계 및 수행, 자료 수집·분석 및 해석, 결론 도출 및 일반화, 의사소통과 협업 등과 관련된 과정·기능을 평가한다.
- ‘과학’에 대한 흥미와 가치 인식, 학습 참여의 적극성, 협동성, 과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태도, 창의성 등을 평가한다.

### [2015 교육과정 예시]

- 물리 I 예시
  - 뉴턴 운동 제2법칙을 확인하는 탐구 사례 분석하기
  - 실생활에서 충격량 개념이 적용된 사례 분석하기
  - 과학 글쓰기 활동을 통한 전자기 유도 원리 이해하기
  - 탐구 활동으로 LED의 정류 작용 이해하기
- 화학 I 예시
  - 극성 분자와 무극성 분자의 전기적 성질 비교하기
  - 다양한 분류 기준에 근거하여 탄화수소를 분류하는 과학 글쓰기
  - 철의 부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 알아보기
- 생명과학 I 예시
  - 감수 분열 과정 UCC제작
  - 유전자 치료의 혜택과 문제점에 관한 글쓰기
  - 약물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조사 및 발표
  - 세척 방법에 따른 세균의 오염 정도 알아보기
- 지구과학 I 예시
  - 우리나라는 지진 안전지대인가 : 토론 및 과학 글쓰기
  - 태양의 흑점 관측 자료를 활용한 태양 자전 주기 구하기

### [2022 교육과정 예시]

-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이용하는 집 모형의 효과 탐구하기
- 일기도, 레이더 및 위성 영상 등 실시간 데이터를 활용하여 날씨 해석하기
-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화산대 및 지진대와 판의 경계와의 관련성 탐구하기
- 생식세포 형성과정을 창의적인 모델로 제작하기
-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분자 구조 모델링하기

## 2022 교육과정과 과정 중심 평가와 연계한 사회과 평가와 예시

평가 요소는 지식·이해에만 치우쳐서는 안 되며, 과정·기능과 가치·태도를 균형 있게 선정한다.

- 지식·이해의 평가에서는 사실적 지식의 습득 여부와 함께 사회현상의 설명과 문제 해결에 필수적인 기본 개념 및 원리, 일반화에 대한 이해 정도 등을 평가하는데 중점을 둔다.
- 과정·기능의 평가에서는 지식 습득과 민주적 사회생활을 하는데 필수적인 정보 수집 및 활용 기능, 탐구 기능, 의사 결정기능, 비판적 사고 기능, 의사소통 기능, 참여 기능 등을 평가하는 데 초점을 둔다.
- 가치·태도의 평가에서는 국가·사회적 요구와 개인적 요구에 비추어 가치의 내면화와 명료화 정도, 가치 분석 및 평가 능력, 공감 능력, 친사회적 행동 실천 능력 등을 평가하는 데 중점을 둔다.

### [2015 교육과정 예시]

- 사회 예시
  - 사회적 갈등에 대한 신문 스크랩
  - 인권 신문 만들기
- 한국 지리 예시
  -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글쓰기
  - 도시와 농촌의 상호 관계 개선 방안 발표
  - 교통·통신 기술의 발달로 변화된 지역의 특징과 미래 연구
- 경제 예시
  - 합리적 소비 및 선택의 경험 발표하기
  - 시장 실패 탐구 보고서
- 사회·문화 예시
  - 사회적 소수자 차별 개선을 위한 UCC 스토리보드 만들기
  - 내가 즐기는 대중매체 보고서
  - 정보 사회의 도래와 대응 템플릿

### [2022 교육과정 예시]

- 국제사회의 분쟁을 협동 학습 등을 통해 조사하도록 하여 정보 활용 능력, 의사소통 능력 함양을 촉진한다. 또한 시민으로서 우리의 역할에 대해 생활속에서 실천 가능한 내용을 담은 공익 광고,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 중심의 과제를 제시하여 관찰 평가, 동료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경제 수학 : 국민연금 제도 이해를 통한 재무 설계〉

[illegible]

### 나.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의 구체화

2023년 초에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 예시 도움 자료를 발간하였다. 기존에 나왔던 버전 1에서는 내용 중심으로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기재하는 예시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후에 나왔던 사례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는 내용을 범주화하여 이를 바탕으로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기록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교과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교사의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수업과 전문적인 평가의 결과로 작성되는 자료이다. 이에 교사가 마주한 개별 상황 및 여건에 따라 선호하고 추구하는 형태가 달라질 수 있다.

각 교과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의 예시는 교육과정 성취기준에 따른 수업 상황을 상정하고, 이에 대한 평가 과제를 제시하며 그 결과가 기재된 것으로 구성하여 교사의 '교육과정 - 수업 - 평가 - 기록'의 일체화를 지원하고자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성취기준 재구조화에 따라, '성취기준 : 평가 과제'의 비율이 1:1인 경우와 1:N인 경우, N:1인 경우로 나누어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내용을 범주화하여 준비하고 기록한다면 충분히 고교 학점제가 진행되는 상황속에서도 학생들의 개별적인 특성과 역량을 구분하여 기록할 수 있다. 특히 수행 평가의 내용을 과정과 결과까지 기록함으로 학생들이 수행평가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주제 선정의 계기와 활용한 자료, 탐구의 과정 및 학생이 주장하고자 하는 결론 및 의견 등을 기록함으로 학생들의 개별성을 확보할 수 있다.

| 내용구분                                  | 상세 진술 내용                                                                                      |
|---------------------------------------|-----------------------------------------------------------------------------------------------|
| 학생의 성취수준<br>(파란색)                     | 해당 성취기준에 대해 학생이 결과적으로 도달한 성취수준에 대한 특성<br>※ 구체적인 평가를 통해 관찰한 내용을 '성취기준 단위 평가기준'을 참고하여 포괄적으로 진술함 |
| 평가 과제를 통해 관찰된 학생의 수행 과정 및 결과<br>(초록색) | 구체적인 평가 문항이나 평가 과제를 통해서 관찰한 학생의 수행 과정 및 수행 결과 특성<br>※ 성취수준에 대한 판단을 내리게 된 근거나 상세 내용에 해당함       |
| 교과역량 또는 핵심역량<br>(빨간색)                 | 평가나 수업을 통해 관찰된 역량에 대한 특성                                                                      |
| 학생 교과 특성에 대한 교사 총평<br>(검정색)           | 특정 성취기준에 국한되지 않은, 교과 학습평가 및 수업과정에서 수사·상시로 교사가 기록한 내용 중심의 학생 특성                                |

### 〈수학과 확률과 통계 예시〉

| 학생의 성취수준 | 수행과정 및 결과 | 역량 | 교사 총평 |
|----------|-----------|----|-------|
|----------|-----------|----|-------|

(...) 평소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여 개선점 및 추가점에 대한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생각을 명료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등 친구들과 활발히 소통함. **실생활 상황에서 표본 추출의 원리를 설명하고, 모평균을 추정하여 정확하게 해석함.** '생활 속의 통계적 추정'이라는 주제로 일일 스마트폰 사용 시간에 대한 온라인 설문지를 제작하고, 수집된 설문 결과를 통계 처리하여 실태를 발표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함. 모집단과 표본 개념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서 설문 결과 통계 프로그램으로 처리하여 자료를 그래프로 표현하고, 자료를 통해 얻은 표본평균을 활용하여 모평균을 정확하게 추정함. 그래프 분석 결과로 문제점 해결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등 정보 처리역량이 성장하였음을 확인함. (...)

| 교육과정 성취기준                                     |              | 평가기준 |                                                      |
|-----------------------------------------------|--------------|------|------------------------------------------------------|
| [12학통3-05]<br>모집단과 표본의 뜻을 알고 표본 추출의 원리를 이해한다. | [평가준거 성취기준①] | 상    | 표본 추출 방법과 원리를 이해하고, 실생활 상황에서 표본 추출의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
|                                               |              | 중    | 모집단과 표본의 뜻을 알고, 간단한 상황에서 표본 추출의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
|                                               |              | 하    | 모집단과 표본, 표본의 크기의 뜻을 말할 수 있다.                         |
| [12학통3-07]<br>모평균을 추정하고, 그 결과를 해석할 수 있다.      |              | 상    | 표본평균을 이용하여 모평균을 추정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모평균 추정의 결과를 해석할 수 있다. |
|                                               |              | 중    | 표본평균을 이용하여 모평균을 추정할 수 있다.                            |
|                                               |              | 하    | 신뢰도, 신뢰구간의 뜻을 말할 수 있다.                               |

### 평가과제

- 모집단과 표본을 뜻을 이해하고, 그 뜻과 표본추출의 원리를 기반으로 간단한 상황에서 표본 추출 과정 발표하기
-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구한 표본평균을 이용하여 모평균을 추정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 제시하기

고교학점제가 2025년부터 도입이 된다. 대부분의 교사들은 교육과정의 변화를 가르치는 내용의 변화로만 인식한다. 하지만 내신성적 산출체계의 변화로 인하여 기존 2015 교육과정 차원에서의 수업 설계와 평가 그리고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에 대한 고민은 훨씬 더 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2022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깊이 있는 학습'을 대학들은 학교생활기록부를 평가할 때 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핵심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구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수행평가의 내실화'를 통해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

## 학생의 과목 선택은 어떻게 해야 할까?

---



### 김용진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영석고등학교 교사  
前 서울시교육청 대학진학지도지원단 학과별 분석팀장  
前 대교협 대입상담센터 상담교사  
前 서울중등교육과정연구회 총무 국장

---

### 1. 과목 선택의 중요성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의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하는지 궁금한 것이 당연한 일일 것이다. 학생들 중에서는 자신의 진로를 확고하게 정한 학생도 있고, 어느 정도 범위로 좁힌 학생도 있고, 전혀 정하지 못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각자의 사정과 상황은 조금씩 다르지만 고등학교는 학사 일정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는 시점이 정해져 있다. 그렇다면 학생들 입장에서 고교학점제에서의 과목 선택은 어떻게 해야 할까?

고교학점제가 되더라도 과목 선택의 기본 원리는 2015 개정 교육과정과 다르지 않다. 다양한 과목 중에서 자신이 배울 과목을 스스로 선택하는 것은 학생이 생애 전반에 걸쳐 삶을 설계하고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과정이다. 학생들의 꿈과 희망은 매우 다양하므로 자신의 꿈과 희망에 맞는 과목을 선택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학생들은 우선적으로 ‘나는 무슨 일을 좋아하는지(흥미)’ 혹은 ‘나는 무엇을 잘 하는지(적성)’를 고려하여 과목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의 진로에 대한 고민을 구체적으로 한 후에,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한다면 어떤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면 자신에게 더 필요한 과목은 무엇이고 배우고 싶은 과목은 무엇인지를 찾아보아야 한다.

선생님과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적성과 진로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과목을 선택하고, 스스로 선택한 과목을 성실하게 학습함으로써 성장하게 될 것이다. 이 때 중요한 것은 어느 과목을 선택했든 자신이 선택한 과목을 열심히 공부함으로써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다. 진로를 고려하여 과목을 선택하고 선택한 과목에 대해 충실하게 학습하는 것은 대학 입학에서 학생부 서류 평가와 관련이 깊다. 학생부 서류 평가는 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필수적 과정이며, 최근에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나 수능 위주 전형에서도 서류 평가를 도입하는 대학들이 늘고 있다.

대학들은 학생이 선택한 과목을 지원자의 전공 관련 관심과 노력, 적성과 소질, 자기주도성, 발전가능성 등의 관점으로 평가하여 선발하고자 한다. 그런 까닭에 학생이 대학에서 수학할 전공 관련 과목을 스스로 선택하여 이수했다면 전공에 대해 흥미와 관심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때, 특정 교과 과목의 이수 여부뿐만 아니라 이수 과목의 수준, 이수 과목의 경향성, 다양한 교과교육의 경험 등을 활용하여 고교 교육활동 전반을 살피고 있다.

교과 성적을 평가할 때 학생이 이수한 과목의 선택 상황을 고려합니다. 소수 학생이 선택한 과목이나 난이도가 높은 과목을 이수하여 수치상 결과가 나쁠 수 있지만, 학생의 도전 정신과 호기심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 도전하지 않은 학생에 비하여 더 좋은 평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소규모 학교나 소수 학생이 이수하는 과목을 수강하는 것이 서류평가에서 결코 불리하지 않습니다.

-서울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 안내-

## 2. 과목 선택의 방향

대학 진학을 희망한다면 대학에 가서 공부하는데 기초가 되는 과목은 배워야 한다. 특히 수학과 과학의 학습이 필요한 모집단위에 지원하고자 한다면 수학과 과학 과목을 충분히 이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다수의 대학들이 학생부 평가 과정에서 진로 역량 등의 영역으로 진로에 필요한 과목의 이수 여부와 해당 과목의 성취 수준을 평가 요소로 함을 명시하고 있다.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지원하고자 하는 모집 단위에서 배워야 하는 과목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자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목표 대학이 분명하다면, 해당 대학의 전공 안내서를 참고하면 된다. 대학에서 학과에 대한 소개나 학과 교육과정으로 제시하는 내용을 보면, 대학에 진학하여 해당 내용을 공부하기 위해서 그 기초 단계로 고등학교에서 어떤 과목을 공부해야 하는지 알 수 있다.

일부 학생들은 일단 대학에 입학한 후에 해당 과목을 공부하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자신이 목표로 한 진로에 필요한 공부를 소홀히 한다면 설령 대입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대학에서 전공을 공부할 때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또한 전공에 대한 기초 영역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생각하지 못했던 소질이나 적성을 발견하여, 진로 희망 분야를 변경할 수도 있다. 특정 분야에 막연한 흥미를 가졌다가 기초 공부를 하다 보니 자신에게 맞지 않음을 파악하는 경우가 매우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학에 진학하여 공부를 계속하고자 하는 학생은 어떤 경로로 대학을 진학하든 고교 3년 동안 희망하는 진로에 필요한 고등학교 수준의 과목을 잘 공부하여 자신의 역량을 성장시키는 데 주력해야 한다.

학생부종합전형은 여러분이 지닌 학업능력의 우수성을 가장 중요한 평가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여러분이 이수한 교과목의 성취수준은 물론 선택한 과목의 세부적인 내용도 평가요소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학생 여러분이 **고등학교에서 교육과정을 통해 익히는 역량은 대학에서 전공하고자 하는 학과의 교육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하는 초석**이 되며 그 배움의 과정에서 드러난 학생의 우수한 역량을 판단하는 것이 학생부종합전형의 핵심입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교생활 가이드북, 서울대학교-

자연과학, 공학 등의 분야로 진로를 정한 학생은 수학과 과학 교과목의 경우, 깊이 있는 수준까지 이수하면 좋다. 여건이 된다면 모집 단위에 따라서 수학은 수능 공통 과목인 ‘대수’, ‘미적분Ⅰ’, ‘확률과 통계’는 물론 ‘기하’와 ‘미적분Ⅱ’까지 선택할 필요가 있다. 대체로 과학은 일반 선택 과목을 배우고, 진로 선택 과목이나, 융합 선택 과목을 배우게 될 것이다.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을 모두 배우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과목의 쉽고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진로를 고려했을 때 더 필요한 과목을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이공 계열 전공 과목은 물리학과 화학 관련 지식을 많이 필요로 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자연 계열의 진로를 희망하지 않아도 수학 교과목을 적극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상경 계열의 경우에는 인문/자연의 이분 체제에서는 인문에 속하지만, 학문의 성격상 상당한 수준의 수학적 역량을 요구한다. 따라서 상경 계열 등 수학 교과 지식이 좀 더 필요한 전공으로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이라면 수학 교과에서 다른 학생들보다 추가로 1~2과목을 더 선택하여 공부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진로를 정하지 못한 학생은 2학년 1학기에 과학 일반 선택 과목 중에서 1~2과목 정도 이수하면 좋다. 과학 과목을 공부해 본 후에, 과학 영역에 대한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판단하면 된다. 과학을 공부한 후, 관련 분야가 소질과 적성에 맞지 않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인문·사회 계열로 진로를 결정하는 경우는 다음 학기에 관련 과목을 선택하면 된다. 과학을 공부해 보니 공부하기에도 괜찮고, 흥미도 생기는 경우에는 자연 계열의 어떤 분야로 진로를 정하면 된다. 자연 계열로 진로를 결정할 경우에는 과학 교과목의 다른 선택 과목들을 추가로 더 선택하여 학습할 수 있다.

### 3. 진로 유형에 따른 과목 선택 예시

지금부터 몇 가지 진로 유형에 따른 과목 선택에 대한 예시를 들어 보려 한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시일 뿐이며, 학생의 진로와 상황에 맞게 예시와 다른 과목을 선택할 수도 있다. 또한 대학마다 전공 및 전공 기초 과목이 조금씩 다르므로 학생이 관심 있는 대학의 모집 단위 홈페이지에서 대학교 교육과정, 이수 경로 등을 확인하고 참고해야 한다.

1) 인문 계열

특정 언어와 그에 관련한 문화를 탐구하는 어문학 분야, 역사·철학 등 인간과 세계의 문화를 탐구하는 인문학 분야, 개인과 사회 각 분야의 구조와 현상을 탐구하는 사회과학 분야 및 광고·언론 계열 등이 해당한다. 언어 소통 능력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학과 문화를 배우고 경험하는 분야이므로 사회 교과와 과목을 충분히 선택하고, 제2외국어도 일정 수준까지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본다면 문학과 어학 관련 전공은 해당 언어에 대한 이해와 습득뿐만 아니라, 해당 문화에 대한 폭넓은 정보와 지식이 필요하다. 역사나 철학 계열에서는 인간과 세계에 대한 관심, 다양한 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식견 및 인문학 전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 광고나 언론, 사회학, 법, 행정 등의 분야는 다양한 시각을 가진 사람과의 소통 능력과 자료를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인문 계열에 필요한 이수 권장 과목은 아래와 같았다.

| 구분    | 과목                                                                                          |
|-------|---------------------------------------------------------------------------------------------|
| 기초    | 화법과 작문, 독서, 언어와 매체, 문학, 고전 읽기, 수학 I, 수학II, 확률과 통계<br>영어 회화, 영어 I, 영어 독해와 작문, 영어II, 영미 문학 읽기 |
| 탐구    | 한국지리, 세계지리, 세계사, 동아시아사, 경제, 정치와 법,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br>윤리와 사상, 사회문제 탐구 중 택 4~6                |
|       | 물리학 I, 화학 I, 생명과학 I, 지구과학 I, 생활과 과학 중 택 1~2                                                 |
| 생활·교양 | 기술·가정, 정보, 제2외국어 I·II, 한문 I·II 중 택 4~5                                                      |

이를 바탕으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인문 계열 이수 권장 과목을 구성한다면 아래와 같을 것이다. 다만 이 분야는 세부 전공에 따라 특정 과목을 이수하는 것보다는 기본적인 과목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이수하기를 권장하는 경우가 많다.

| 구분                         | 과목                                                                                                                                                             |
|----------------------------|----------------------------------------------------------------------------------------------------------------------------------------------------------------|
| 국어, 수학, 영어                 |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문학, 대수, 미적분 I, 확률과 통계, 영어 I, 영어II,<br>영어 독해와 작문 이수<br>주제 탐구 독서, 문학과 영상, 영미 문학 읽기, 영어 발표와 토론,<br>독서 토론과 글쓰기, 세계 문화와 영어, 매체 의사소통, 미디어 영어 중 택 1~2 |
| 사회, 과학                     | 세계시민과 지리, 세계사, 사회와 문화, 현대사회와 윤리 중 택 3~4<br>한국지리 탐구, 동아시아 역사 기행, 정치, 법과 사회, 윤리와 사상, 인문학과<br>윤리 중 택 2~4<br>역사로 탐구하는 현대 세계, 윤리문제 탐구 중 택 1~2                       |
| 기술·가정/정보,<br>제2외국어, 한문, 교양 | 기술·가정, 정보, 제2외국어 I·II, 한문 I·II 중 택 4~5                                                                                                                         |

## 2) 상경 계열

문·이과를 구분하던 시절에는 이과는 수학·과학 교과를, 문과는 사회 교과와 과목을 많이 배우게 했다. 상경 계열 분야의 전공 과목은 주로 사회 교과와 관련이 있으나 수학 교과와 지식이 필수적인 부분도 많다. 국제 감각을 익히기 위해 일반 사회 영역만이 아니라 역사와 지리 등 사회 교과와 과목을 광범위하게 선택하고,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사고력을 기르기 위해 특히 수학 교과와 과목을 충분히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15 개정 교육과정 체제에서 상경 계열을 위한 과목은 아래와 같다.

| 구분    | 과목                                                                                       |
|-------|------------------------------------------------------------------------------------------|
| 기초    | 화법과 작문, 독서, 언어와 매체, 문학, 수학 I, 수학 II, 확률과 통계, 경제 수학 또는 미적분, 영어 회화, 영어 I, 영어 독해와 작문, 영어 II |
| 탐구    | 한국지리, 세계지리, 세계사, 동아시아사, 경제, 정치와 법,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사회문제 탐구 중 택 4~6                |
|       | 물리학 I, 화학 I, 생명과학 I, 지구과학 I, 생활과 과학 중 택 1~2                                              |
| 생활·교양 | 기술·가정, 정보, 제2외국어 I·II, 한문 I·II 중 택 4~5                                                   |

위 과목 체제를 바탕으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상경 계열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한 과목 추천은 아래와 같다.

| 구분                      | 과목                                                                                                                                           |
|-------------------------|----------------------------------------------------------------------------------------------------------------------------------------------|
| 국어, 수학, 영어              |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문학, 대수, 미적분 I, 확률과 통계, 영어 I, 영어 II, 영어 독해와 작문 이수<br>미적분 II, 경제 수학, 영어 발표와 토론 중 택 1~2<br>독서 토론과 글쓰기, 실용 통계, 세계 문화와 영어 중 택 1~2 |
| 사회, 과학                  | 세계시민과 지리, 세계사, 사회와 문화, 현대사회와 윤리, 정치, 법과 사회, 경제, 윤리와 사상 이수<br>국제 관계의 이해, 사회문제 탐구, 금융과 경제생활 중 택 1~2                                            |
| 기술·가정/정보, 제2외국어, 한문, 교양 | 정보, 인공지능 기초, 제2외국어, 제2외국어 문화 중 택 3 이상                                                                                                        |

### 3) 간호·보건 계열

과학과 사회 교과의 과목을 두루 배울 필요가 있는 분야이다. 화학과 생명과학에서 배우는 지식이 활용되는 분야이므로 과학 교과의 경우 해당 과목은 심화 수준까지 선택할 것을 권장한다. 환자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이 필요하므로 윤리나 법에 관련한 과목이나 인간에 대한 이해를 돕는 윤리학, 심리학 등에 관련한 과목도 선택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간호, 보건 계열 진학 학생을 위한 이수 권장 과목 모형은 아래와 같다.

| 구분    | 과목                                                                                           |
|-------|----------------------------------------------------------------------------------------------|
| 기초    | 화법과 작문, 독서, 언어와 매체, 문학, 수학 I, 수학 II, 확률과 통계, 영어 회화, 영어 I, 영어 독해와 작문, 영어 II 이수<br>미적분 중 택 0~1 |
| 탐구    | 정치와 법,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중 택 2~3                                                                 |
|       | 화학 I, 생명과학 I, 화학 II, 생명과학 II                                                                 |
| 생활·교양 | 기술·가정, 정보, 제2외국어 I, 보건, 심리학 중 택 2~4                                                          |

그리고 이를 2022 개정 교육과정 체제의 과목으로 변경한다면, 아래와 같을 것이다.

| 구분                         | 과목                                                                                                                 |
|----------------------------|--------------------------------------------------------------------------------------------------------------------|
| 국어, 수학, 영어                 |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문학, 대수, 미적분 I, 확률과 통계, 영어 I, 영어 II, 영어 독해와 작문 이수<br>주제 탐구 독서, 독서 토론과 글쓰기, 실용 통계, 실생활 영어 회화 중 택 1~2 |
| 사회, 과학                     | 현대사회와 윤리, 화학, 생명과학, 세포와 물질대사, 생물의 유전 이수<br>법과 사회, 윤리문제 탐구, 물질과 에너지, 화학 반응의 세계 중 택 2~3                              |
| 기술·가정/정보,<br>제2외국어, 한문, 교양 | 정보, 보건, 인간과 심리, 제2외국어 중 택 2~3                                                                                      |

#### 4) 생활 과학 계열

식품영양학, 의류학 등의 분야를 통칭하는 계열로 전통적으로 인문과 자연 계열에서 모두 선발하는 경우가 많았던 분야이다. 과학에서는 화학과 생명과학을 기본으로 하며, 식품영양학의 경우 통계 자료의 해석을 위해 일반사회, 지리 영역의 사회 과목도 이수하면 도움이 된다. 의류학과 의 경우 의상디자인의 복식사를 공부하기 위해 세계사 등 역사 과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패션 관련 비즈니스를 위해 경제 과목도 도움이 된다.

| 구분    | 과목                                                                                           |
|-------|----------------------------------------------------------------------------------------------|
| 기초    | 화법과 작문, 독서, 언어와 매체, 문학, 수학 I, 수학 II, 확률과 통계, 영어 회화, 영어 I, 영어 독해와 작문, 영어 II 이수<br>미적분 중 택 0~1 |
| 탐구    | 세계사, 경제,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세계 지리 중 택 2~3                                                        |
|       | 화학 I, 생명과학 I 이수<br>화학 II, 생명과학 II 중 택 1~2                                                    |
| 생활·교양 | 기술·가정, 제2외국어 I 중 택 1~2                                                                       |

이를 바탕으로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과목 이수 모형은 아래와 같다.

| 구분                      | 과목                                                                                                      |
|-------------------------|---------------------------------------------------------------------------------------------------------|
| 국어, 수학, 영어              | 독서와 작문, 문학, 대수, 미적분 I, 확률과 통계, 영어 I, 영어 II, 영어 독해와 작문 이수<br>미적분 II, 실용 통계, 실생활 영어 회화, 세계 문화와 영어 중 택 2~4 |
| 사회, 과학                  | 화학, 생명과학 이수<br>세계사, 세계시민과 지리, 사회와 문화, 경제, 물질과 에너지, 화학 반응의 세계, 세포와 물질대사, 생물의 유전 중 택 3~5                  |
| 기술·가정/정보, 제2외국어, 한문, 교양 | 기술·가정, 제2외국어, 생활과학 탐구 중 택 2~3                                                                           |

## 5) 자연 과학 계열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등 과학 네 분야의 과목을 두루 배우고, 특히 관심이 있는 분야는 심화 수준까지 배우도록 선택할 것을 권장한다. 수학은 충분히 배울 필요가 있으며, 정보 교과도 자연과학과 연결되는 과목이므로 선택을 고려할 수 있다.

자연 과학 계열 진학 학생을 위한 2015 개정 교육과정 이수 권장 과목은 아래와 같다.

| 구분    | 과목                                                                                |
|-------|-----------------------------------------------------------------------------------|
| 기초    | 화법과 작문, 독서, 언어와 매체, 문학, 수학 I, 수학II,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 영어 회화, 영어 I, 영어 독해와 작문, 영어II |
| 탐구    | 한국지리, 경제, 정치와 법,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중 택 1~2                                             |
|       | 물리학 I, 화학 I, 생명과학 I, 지구과학 I 중 택 3~4<br>물리학II, 화학II, 생명과학II, 지구과학II 중 택 2~3        |
| 생활·교양 | 기술·가정, 정보, 인공지능 기초, 제2외국어 I·II, 한문 I·II 중 택 4~5                                   |

이를 바탕으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자연 과학 계열을 희망하는 학생을 위한 권장 과목은 아래와 같다.

| 구분                         | 과목                                                                                                                                          |
|----------------------------|---------------------------------------------------------------------------------------------------------------------------------------------|
| 국어, 수학, 영어                 |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문학, 대수, 미적분 I, 확률과 통계, 미적분II, 기하, 인공지능 수학, 수학과제 탐구, 영어 I, 영어II, 영어 독해와 작문 중 택 9~11                                          |
| 사회, 과학                     |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이수<br>역학과 에너지, 전자기와 양자, 물질과 에너지, 화학 반응의 세계, 세포와 물질 대사, 생물의 유전, 지구시스템과학, 행성우주과학, 과학의 역사와 문화, 융합과학 탐구 중 지원 학과와 관련하여 택 4~6 |
| 기술·가정/정보,<br>제2외국어, 한문, 교양 | 정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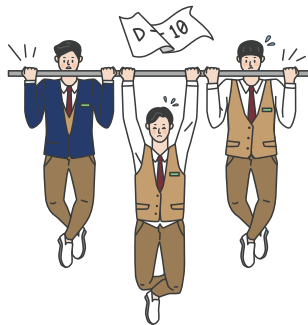
## 6) 공학 계열

공대 전공 과목은 수학을 기본으로 하므로 미적분은 아주 중요하다. 대학에서 벡터를 많이 사용하므로 기하 영역을 깊이 있게 배울 필요가 있다. 전공 교재의 이해를 위해 영어 실력 또한 잘 키워놓아야 한다. 과학은 가급적 네 분야의 과목을 모두 배우고, 그 중 일부 과목은 심화 수준까지 배울 수 있도록 선택하는 것을 권장한다. 네 분야를 모두 배울 수 없는 경우에는 자기에게 더 필요한 과목 위주로 선택한다. 물리학 분야를 충실하게 공부하지 않고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은 전공 과목 학습이 매우 어려울 수 있다. 프로그래밍에 관한 내용들은 공과대학의 거의 모든 학과에서 공부하기 때문에 컴퓨터 활용 능력이 대학교 공부에 도움이 될 것이다.

건축 계열에서는 역사, 예술 관련 과목을 기초로 지리적 요소와 사회·환경적인 요소들을 포괄하고 있으므로, 관련 분야의 학생들은 사회 교과에서 관련 과목을 이수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반면에 생명 관련 분야에서는 윤리적인 주제들도 이슈가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참고할 필요가 있다.

공학 계열 진학 학생을 위한 2015 개정 교육과정 이수 권장 과목은 아래와 같다.

| 구분    | 과목                                                                                                                    |
|-------|-----------------------------------------------------------------------------------------------------------------------|
| 기초    | 화법과 작문, 독서, 언어와 매체, 문학<br>수학 I, 수학 II,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 인공지능 수학<br>영어 I, 영어 독해와 작문, 영어 II                             |
| 탐구    | 세계사, 경제, 생활과 윤리 중 지원 학과와 관련하여 택 1~2<br>물리학 I, 화학 I, 생명과학 I, 지구과학 I 중 택 3~4<br>물리학 II, 화학 II, 생명과학 II, 지구과학 II 중 택 2~3 |
| 생활·교양 | 기술·가정, 정보, 인공지능 기초, 제2외국어 I, 한문 I 중 택 2~3                                                                             |



이를 바탕으로 공학 계열 진학 학생을 위한 2022 개정 교육과정 체제에서의 이수 권장 과목은 아래와 같이 제시할 수 있다.

| 구분                      | 과목                                                                                                                                                                                     |
|-------------------------|----------------------------------------------------------------------------------------------------------------------------------------------------------------------------------------|
| 국어, 수학, 영어              |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문학, 대수, 미적분 I, 확률과 통계, 미적분II, 기하, 영어 I, 영어II, 영어 독해와 작문 이수<br>인공지능 수학, 실용 통계, 수학과제 탐구, 실생활 영어 회화, 영어 발표와 토론 중 택 0~2                                                    |
| 사회, 과학                  | 세계시민과 지리, 세계사, 사회와 문화, 경제, 현대사회와 윤리 중 택 1~2<br><br>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중 택 3~4<br>역학과 에너지, 전자기와 양자, 물질과 에너지, 화학 반응의 세계, 세포와 물질대사, 생물의 유전, 지구시스템과학, 행성우주과학, 융합과학 탐구 중 지원 학과와 관련하여 택 3~4 |
| 기술·가정/정보, 제2외국어, 한문, 교양 | 정보, 인공지능 기초, 데이터 과학, 소프트웨어와 생활 중 택 2~3                                                                                                                                                 |

최근 여러 대학에서 졸업논문 대신 전공지식을 바탕으로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과제를 학생들이 스스로 기획·설계·제작(캡스톤디자인)하는 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이 증가하고 있어 고등학교 과정에서 문제해결력과 창의력 신장을 위한 활동을 많이 한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7) 예술·체육 계열

이 분야에 관심이 많다면 학교에서 해당 교과 과목을 더 선택할 수는 있다. 하지만 실기가 동반되는 예술·체육 계열 과목은 단위 학교에서 개설하기 쉽지 않아, 학교에 따라서는 국가가 정한 필수 이수 학점 이상을 초과해서 더 배우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학교 간 공동 교육과정 등을 활용하면 좋다. 다른 나라의 예술과 체육에 대한 이해를 위해 역사, 지리 영역에 관련한 과목을 선택하도록 지도할 수도 있다. 또한 전공에 따라서는 과학 계열의 과목이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이를 바탕으로 예술, 체육 계열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이수 과목 모형은 다음과 같다.

| 구분    | 과목                                                                                                                                   |
|-------|--------------------------------------------------------------------------------------------------------------------------------------|
| 기초    | 화법과 작문, 독서, 언어와 매체, 문학, 수학 I, 수학II, 확률과 통계, 영어 회화, 영어 I, 영어 독해와 작문, 영어II                                                             |
| 탐구    | 세계사, 경제,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여행지리 중 택 3~4                                                                                                 |
|       | 물리학 I, 화학 I, 생명과학 I, 지구과학 I, 생활과 과학 중 택 1~3                                                                                          |
| 체육·예술 | 음악: 음악 이론, 음악 연주, 시창·청음, 음악 전공 실기<br>미술: 미술 창작, 평면 도형, 미술 전공 실기<br>예술: 연기, 시나리오, 연극의 이해, 연극 감상과 비평<br>체육: 체육 탐구, 스포츠 개론, 체육 전공 실기 기초 |
| 생활·교양 | 기술·가정, 정보, 제2외국어 I, 한문 I 중 택 3~4                                                                                                     |

이를 바탕으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예술, 체육 계열로 진학하려는 학생들은 어떤 과목을 배워야 할지 제시해 보면 아래와 같다.

| 구분                      | 과목                                                                                                                                                                                                   |
|-------------------------|------------------------------------------------------------------------------------------------------------------------------------------------------------------------------------------------------|
| 국어, 수학, 영어              |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문학, 주제 탐구 독서, 문학과 영상, 매체 의사소통, 대수, 미적분 I, 확률과 통계, 실용 통계, 영어 I, 영어II, 영어 독해와 작문, 실생활 영어 회화, 미디어 영어 중 택 4~8                                                                            |
| 사회, 과학                  | 세계사, 사회와 문화, 현대사회와 윤리, 경제, 법과 사회, 인문학과 윤리, 윤리와 사상, 역사로 탐구하는 현대 세계, 윤리문제 탐구,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세계 중 지원 학과와 연관하여 택 3~4<br>물리학, 생명과학, 역학과 에너지, 화학 반응의 세계, 세포와 물질대사, 생물의 유전, 기후변화와 환경생태 중 지원 학과와 연관하여 택 1~2    |
| 예술                      | 음악: 음악 이론, 음악사, 시창·청음, 음악 전공 실기, 음악과 문화<br>미술: 미술 이론, 드로잉, 미술사, 미술 전공 실기, 미술과 사회<br>예술: 연극과 몸, 연극과 말, 연기, 연극 감상과 비평, 영화의 이해, 영화 감상과 비평<br>체육: 스포츠 개론, 기초 체육 전공 실기, 심화 체육 전공 실기, 스포츠 경기 체력, 스포츠 경기 분석 |
| 기술·가정/정보, 제2외국어, 한문, 교양 | 정보, 데이터 과학, 제2외국어, 생활과학 탐구, 지식 재산 일반 중 택 1~2                                                                                                                                                         |

지금까지 학생들이 많이 진학하는 대표적인 유형을 중심으로 고교학점제인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과목 선택 유형을 정리해 보았다. 다만, 실제 대학의 학과들은 매우 다양하고, 최근에는 소위 무전공 모집이라고 불리는 전공 자율선택제 등으로 대학 진학 후의 학생들의 진로 변경 가능성을 열어두는 대학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 제시된 사례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학생의 성적이나 학교의 상황에 따라서, 혹은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의 특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교사와 학생, 학교가 함께하는

# 학생부종합전형 이야기

열 번째 시리즈



# 03 무전공 선발 확대



# 무전공 선발을 준비하는 대학의 자세



**김윤식**

경상국립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경상국립대학교 교수입학사정관

경상국립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심의위원

## 1. 서론

여기에 학생 A와 학생 B가 있다. A는 어릴 때부터 비행기를 좋아했다. 모형비행기 조립에서부터 시작해 각종 비행기 모형을 사 모았고, 각종 비행기 정보를 인터넷에서 조사하여 자기만의 자료를 축적하였다. 일정 나이가 되자 직접 모형 비행기 제작에 들어갔다. 사람 크기의 모형 여객기를 만들어 실제로 공중에 띄우는 게 목표였다. 단순히 모형 비행기 조립은 각각의 조각과 부품을 필요한 곳에 잘 연결하고 끼으면 되었지만, 실제 하늘을 나는 모형 비행기 제작은 고려할 게 아주 많았다. 가장 먼저 모터를 구해야 했고, 이를 바탕으로 추력, 항력, 양력, 중력 등을 계산해야 했다. 동체 재질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에 따라 무게가 달라졌고, 실제 작동에 필요한 건전지 무게까지 고려해야 했다. 이착륙에 필요한 바퀴도 필요했고, 공중에서 방향을 바꾸기 위한 주날개의 플랩(flap)과 스포일러(spoiler)가 필요했고, 꼬리날개에 엘리베이터(elevator)와 러더(rudder)도 달아야 했다. 그리고 무선으로 이 모든 장치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모두 연결해야 했다. A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쳤다. 뜨는가 싶다가 바닥에 처박히길 수십 번. 그때마다 망가진 부품을 다시 설치하고, 수식을 다시 확인하고, 계산을 다시 했다. 그리고 마침내 모형 비행기를 하늘에 띄웠다.

B는 유전학을 좋아했다. B가 유전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시드는 과정이 단순히 식물의 일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과정에도 일정한 법칙이 있다는 멘델의 유전법칙을 알고부터였다. 완두콩의 형질이 우성과 열성으로 나뉘어 다음 세대에 이어진다는 사실이 신기했다. B는 완두콩에서 발견된 부모세대 형질의 다음 세대로의 이어짐 현상이 동물에서도 그대로 나타날 것으로 보았다. 그것을 확인하고자 레오파드 게코(leopard gecko) 도마뱀을 길러보기로 했다. 도마뱀 중에서는 크기가 크지 않고 관리가 상대적으로 쉬울 뿐 아니라 번식도 용이해 식물에서 나타나는 형질의 유전 관계를 확인하기 쉬웠기 때문이다. 특히 '모프'(morph)라고 불리는 변이종에서 특정 형질이 다음 세대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하기가 쉬웠다. B는 도마뱀을 키우면서, 생태, 환경, 특성, 이상행동 여부, 질병 감염 여부 등을 상세히 관찰

해 기록으로 남겼다. 몇 년이 지나면서 B의 기록물도 차곡차곡 쌓여갔다.

이후 A와 B의 길은 크게 갈렸다. A는 자신의 취미 활동을 고등학교로까지 이어갔고 이것을 기반으로 항공 관련 대학에 지원했고 입학에 성공했다. 대학 생활도 크게 나쁘지 않았다. 물리학이나 역학과 같은 수업에서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교수와 직접 토론도 했고, 뜻 맞는 친구들과 팀을 만들어 이전에 제작했던 항공기보다 더 큰 항공기를 제작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했다. 대학 졸업 후에도 항공 분야로 진출하고 싶어했다.

B는 고등학교 진학과 동시에 유전 관련 모든 활동을 접어야 했다. 유전학이 너무 좋아 선택했던 도마뱀 육종과 관련된 내용만으로는 대학에 가기 어려웠고, 대학 입시를 위한 별도의 공부를 해야 했기 때문이다. 대학 입시에서 좋은 성적을 내려면 좋아하는 과목 외에도 다양한 과목의 공부를 똑같이 잘 해야 한다. B는 고등학교 진학하자마자 도마뱀 육종 관련 활동을 모두 중단하고 입시 공부에 매달렸다. 그렇지만 생각만큼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았다. 그럼에도 유전학과 관련된 학과를 선택하려고 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학교에서 반대했다. 고등학교의 평판이 소위 말하는 상위권 대학에 몇 명을 보냈느냐로 결정되는 상황에서 A의 적성이나 관심보다는 상위권 대학에 한 명이라도 더 보내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이다. 결국 A도 성적에 맞춰 학교를 선택하고 학과를 선택했다. 유전학과 관련 없는 전공이었다. 전공이 자신의 관심 분야가 아니라서 수업에 집중하기 어려웠고, 관심 자체가 없는 탓에 강의에 집중하지도 못했다. 수업시간에 질문을 하는 것은 언감생심이었다. 그저 받아 적기 바빴고, 시험 때가 되면 소위 말하는 선배들의 ‘족보’를 받아 공부했다. 덕분에 성적은 그리 나쁘지 않았다.

A와 B 모두 지인의 자녀들 이야기이다. 다만, A는 미국의 이야기이고, B는 우리나라의 이야기라는 게 차이점이다. 물론, A가 미국 상황을 대표하는 학생도 아니고, B가 우리나라 상황을 대표하는 학생이라고 할 수는 없다. 당연히 지역마다, 학교마다, 학생마다 차이가 있어 결과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자신의 관심 분야를 살려 대학에 진학할 가능성이 우리나라보다는 높은 게 사실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학생의 특성이나 관심보다는 어느 학교에 갔느냐 하는 ‘학교명’이 더 중요하게 여겨진다. 학생의 장점이나 관심은 거의 항상 뒷전으로 밀린다. 그리고 학생은 자신의 진짜 적성이나 특성도 모른 채 성적에 맞춰 간 대학교의 전공이 그때부터 나의 적성이 되고 나의 특성이 된다.

이러한 미국과 우리나라 사이의 대학 입시 차이는 대학교 수준에서의 실력 차이, 더 나아가서는 사회 및 기업 차원에서의 경쟁력 차이를 만든다. 어릴 때부터 한 우물을 파 성인이 되어서까지 그 분야에서 일을 하는 사람과, 자신의 적성이나 특성과 무관하게 10대 후반 혹은 20대 초반에 성적에 맞춰 전공을 선택한 사람 사이의 경쟁력 차이가 클 것이라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우리나라에서도 학교에서 제공하는 교과 성적이 조금 낮더라도 특정 분야에 높은 관심도나 성취도를 보인 경우 해당 분야로 대학을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 적이 있었다. 지금 명맥만 남아있는 입학사정관제이다. 그러나 공부가 아닌 방법으로도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부작용이 속출했고 온갖 편법이 난무했다. 유명 학술지에 고등학생 명의를 논문이 실리고, 연주회가 열리고, 저서의 저자 자리에 고등학생의 이름이 올라가고, 학생이 가본 적도 없는 곳에서의 봉사활동 실적이 학생부에 기재됐다.

실적이 필요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각종 경진대회, 공모전이 전국적으로 유행했고, 곳곳에서 고등학생 인턴도 급증했다. 학교에서는 무수한 동아리가 만들어졌고, 동아리 내에서 리더십을 강조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했음을 강조하기 위해 각자가 동아리 장(長)이 되고, 서로 이름을 빌려주는 동아리 품앗이도 횡행했다. 일부는 없는 실적을 만들어내기 위해 문서를 위조하는 일까지 벌였다. 당연히 제도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리 없었다. 그에 따라 학생의 개성이나 특성,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학생을 선발하자는 제도의 취지는 점차 퇴색했고, 나중에는 공정성 논란에까지 휩싸이면서 급격하게 축소되었다.

이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었더라면, 고등학교 진학과 동시에 수년 동안 축적해왔던 유전 관련 자료들을 모두 파기하고 대입에 필요한 공부를 해야 했던, 그리고 성적에 맞춰 학교와 전공을 선택해 공부에 관심을 잃은 B와 같은 학생들을 크게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B와 같은 학생이 대학에 진학한 이후에도 자신의 관심사항을 살려 관련 분야도 진출하게 되었다면, 해당 학생에게는 거의 20여년 간의 지식과 경험이 축적되어 해당 분야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크게 기여했을 것이다. 이러한 제도가 각종 편법의 난무 속에 퇴색하게 된 점은 무척이나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무전공 선발제도는 이런 시점에 나왔다. 어릴 때부터 특정 분야에 관심을 가진 학생들은 선발 자체가 쉽지 않았고, 성적에 맞춰 대학과 전공을 선택한 학생들은 좋아서 선택한 전공이 아니라서 전공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졌다. 첫 번째 부분은 입학사정관제 등으로 이미 시행해보았지만 각종 편법이 난무해 새로운 대안 마련이 쉽지 않았다. 결국 대안은 두 번째 부분에서 찾을 수밖에 없었다. 성적에 맞춰 학교와 전공을 선택하는 부분을 수정해, 전공 선택 없이 입학한 이후 1년여의 시간 동안 여러 관심 전공이나 분야를 경험해보도록 유도하고 그러한 경험 등을 바탕으로 학생으로 하여금 자신의 전공을 최종 선택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의도 자체는 나쁘다고 할 수 없다. 위에서 언급했지만, 우리나라 입시제도에상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방식이다. 자신의 적성이나 개성 혹은 특성에 대해 고민해보지 않고 오직 입시 공부에만 매달렸다가 대학에 온 학생들에게, 이제 스스로 자신의 적성 등을 고려해 전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자는 데 누가 반대할 수 있겠는가.



## 2. 무전공 선발을 앞둔 대학의 고민

무전공 선발의 의의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이제 고민은 대학에 넘어왔다. 대학 입장에서 선발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선발 이후가 더 문제이다. 이론과 실재는 많이 다르기 때문이다. 앞서 설명했지만 무전공 선발제도의 도입 취지는 나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론일 뿐 실제 학생을 선발하고 관리하고 이탈을 막고 제대로 전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는 대학이 접해야 하는 현실은 많이 다르다.

가장 먼저 고려되는 것이, 우리나라 대학 입시에서 '전공' 우선보다는 '학교'가 우선적으로 고려된다는 점이다. 요즘에야 의학 관련 전공에 몇 명을 보내느냐 하는 것으로 고등학교의 평판이 좌우되지만, 최근 까지도 서울대학교에 몇 명의 학생을 보내느냐, 조금 넓게는 소위 말하는 '스카이'(서울대, 고려대, 연세대)에 몇 명의 학생을 보내느냐, 더 넓게는 수도권 대학에 몇 명의 학생을 보내느냐로 명문고등학교나 아니냐가 결정되었다. 이런 사회적 압력 속에서 고등학교는 전공이나 학과보다는 '학교명'을 더 중시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고, 학생에게도 알게 모르게 학교 평판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로의 진학을 권장 혹은 강요하였다.

이러한 관행이 무전공 선발에 중요한 이유는 대학 입학 후 갖게 될 1년여에 걸친 전공 탐색 과정이 의미를 가지려면, 해당 학교가 학생이 가고자 하는 '최종 종착지' 학교여야 하기 때문이다. 학생이 선택한 학교가 자신이 가고자 하는 최종 종착지에 해당되는 학교라면, 당연히 학생은 고등학교 내내 대학 입시 때문에 미뤄졌던 전공 탐색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목적지에 도착한 이상 이제는 무엇을 할지를 선택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종의 학교 내 정착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해당 학교가 최종 종착지 학교가 아니고 중간 기착지 학교라면 학생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자신이 가고자 하는 최종 목적지가 아닌데 정착할 생각을 할까. 자신이 목표로 하던 목적지에 가기 위해 다시 한 번 비상을 꿈꾸지 않을까. 이런 학생이 학교에서 이런저런 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다양한 전공을 탐색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참여할까. 사실 회의적이다. 이미 현재 입학한 학교가 최종 목적지가 아닌 학생들이 '반수'라는 선택을 하고, 학교에서 제공하는 어떠한 활동이나 과정에 관심도 보이지 않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기 때문이다. 이런 학생들은 아예 학교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마음이 떠난 학생들을 붙잡기는 정말로 힘들다. 설득을 위해 일대일 면담을 하고 싶어도 학교에 나타나지 않는 학생을 어떻게 할 방법은 없다.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유리천장'(glass ceiling)을 스스로의 노력으로 깨뜨리고, 자신의 분야에서 전망 좋은 곳에 취업을 하고 좋은 실적을 내며 살아가는 선배들을 소개시켜주고 싶어도 이미 마음이 돌아서 있는 학생에게는 어떠한 의미도 갖기 어렵다. 실제로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한 학생 이탈률을 조사해보면, 고학년인 경우에는 전공에 대한 실망이나 전망이 더 좋다고 판단되는 전공으로의 전과/전학 등이 주요 이탈 원인이지만, 1학년의 경우에는 학교명 자체 때문에 이탈하는 경우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무전공 선발 학생들에게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오히려 더 심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학과나 전공에 소속되어 있더라도 학과, 학과의 교수나 선배나 동기들로부터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고, 그런 기회를 이용해 해당 학과나 전공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할 수 있다. 그러나 무전공으로 들어온 학생들의 경우 이런 소속감을 갖기 어렵고 그에 따라 해당 학교에 마음을 둘 기회를 잡기도 상대적으로 어렵다. 학생들에게 밀착 접근이 가능한 학과나 전공이 없다는 것은 학과나 전공 차원에서 학생을 붙잡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학교' 차원에서 학생을 잡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학교' 차원에서 학생을 붙잡기는 더 힘들다. 앞서 언급했듯이, 우리나라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학과나 전공보다 '학교명'을 중시하는 선택을 하기 때문이다. 특정 학과나 전공에 대한 소속감도 없는 상황에서, 학교 차원에서 학생을 붙들기는 더 어려울 수밖에 없다. 또 학교 차원에서 학생들에게 전공 탐색을 지원할 경우, 그룹형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개인 밀착형 안내 때보다 해당 학교에 학생들의 마음을 안착시키기는 더 어렵다. 일반적으로 학과나 전공에서 신입생이 들어오면, 여러 차례에 걸친 학과 소개 행사, 교수들과의 만남, 선배들과의 만남, MT, 동아리 모임, 체육대회 등을 거치면서 그냥 학과가 아닌 '우리 학과' 혹은 '내가 다니는 학과'라는 인식이 만들어진다. 그런 행사에 참여하고 '우리 학과'라는 인식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보통은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그 시기가 지나면 새로운 신입생이 들어오게 되고, 그 때부터는 내가 '우리 학과' 행사를 계획하고 신입생들의 마음을 다독여주는 역할을 맡게 된다. 온전히 마음이 학과에 안착하게 되면서 정말로 학과의 일원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들은 단순히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높은 수준의 개인 밀착형 행사로 진행될 때 성과가 좋다.

무전공 선발에서는 이러한 행사와 과정을 만들기 쉽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다. 당연히 '우리 학교' 혹은 '내 학교'라는 인식을 만들어주기가 그만큼 더 어려운 일이 될 수 있다. 무전공 선발을 해야 하는 대학교에서 이러한 문제에 철저히 대비를 하지 않을 경우, 중간 기착지형 학생을 양산할 수 있고 이는 학교 차원에서 중도탈락률을 높여 대학 전체를 대상으로 한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 중간 기착형 학생은 크게 세 가지 유형에서 많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하나는 중하위권 대학에서 상위권 대학으로의 이탈, 둘째는 지방대학에서 수도권 대학으로의 이탈, 셋째는 상위권 대학에서 의학 관련 전공으로의 이탈 등이다. 학교 전체 차원에서의 무전공 선발이든, 단과대학 차원에서의 무전공 선발이든, 학생의 이탈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학생들 심리, 현재의 상황 등을 잘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10대 후반 혹은 20대 초반 때는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에 영향을 쉽게 받는 경향이 있다. 무전공 선발로 입학했는데, 그 학생들 중 일부가 재수나 반수 등을 한다고 할 경우,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그 영향에 그대로 노출될 수 있다. 우리나라 대학 신입생들에게 고등학교 때까지의 노력과 고생한 것에 대한 보상은 '학교명'인 경우가 많다. 특히 신입생들에게 '학교명'은 그 동안의 노력한 성과를 보여주는 일종의 메달과 같은 성격을 갖고 있어 특히 더 예민하다.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 재수나 반수를 한다고 하면 마음이 흔들릴 가능성이 높고, 자칫하면 많은 학생들이 이런 움직임에 그대로 휩쓸릴 수 있다. 이러한 분위기가 조성될 경우, 무전공 선발은 해당 학교에 안착하기보다는 오히려 최종 종착지를 바꾸고자 하는 집단적인 움직임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그만큼 무전공 선발을 추진하고 그렇게 선발한 학생들을 학교에 정착시키고 소속감을 만들어주는 데에 대한 고민이 많이 필요하다.

### 3. 대학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그렇다면 무전공 선발을 하는 대학은 어떤 자세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앞서 무전공 선발 제도 도입 취지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론일 뿐 실제 현실에 적용할 경우 의도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는 별개의 문제임을 이야기하였다. 우리나라 입시제도의 특성,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성향, 학생들과의 관계, 단기간에 소속감을 만들어주기 어려운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대학은 무전공으로 학생들을 선발해야 하고, 그렇게 선발한 학생들이 이탈하지 않고 해당 학교에 정착하도록 유도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의 적성을 찾고 전망 좋은 분야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쉽지 않은 일이다. 대학이 준비해야 할 것들을 몇 가지 정리해보았다.

#### 1) 지원 동기에 따른 학생의 구분

무전공 선발의 가장 큰 전제조건은 학생이 본인이 지원한 학교를 최종 종착지로 선택해야 한다는 점이다. 학생이 최종 종착지로써의 해당 학교를 선택했다면 당연히 학생은 학교에서 지원해주는 학과나 전공 탐색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고, 본인 스스로도 관심 있는 학과나 전공을 찾아가 교수님과 면담도 하고 재학생들과의 만남도 추진할 것이다. 학교로서는 가장 바람직한 형태의 학생이고, 무전공 선발의 도입 취지에 가장 적합한 학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무전공으로 선발되는 학생 모두가 이런 학생일 수는 없다. 선발된 학생 대다수가 자신의 적성이나 특성을 잘 몰라 일단 시간을 벌여보자는 목적으로 입학한 학생일 수도 있지만, 최종 종착지인 학교로 가기 위한 중간 기착지로써 선택한 학생일 수도 있고, 무엇을 해야 할지 정말로 아무 생각이 없어 지원한 학생일 수도 있다.

따라서 무전공으로 학생을 선발한 이후 학교가 해야 할 가장 급선무는 우리 학교가 최종 종착지인 학생, 중간 기착지로 여기는 학생, 일단 대학은 가고보자는 의도로 입학한 학생 등 유형을 구분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 개개인에 대한 밀착형 면담은 기본이다. 개별 학과나 전공에서는 우리 학생이라는 인식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면담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지만 무전공 선발 학생의 경우에는 학교 혹은 단과대학 차원에서 별도의 인력을 투입해 면담과 상담이 진행되어야 한다. 각 학교의 입학사정관들이 이 역할을 맡을 수도 있고, 교양과정 담당 교수나 강사가 맡을 수도 있고, 학교 내 별도의 인력이 투입되어 담당할 수도 있다. 일부에서는 외부의 전문 컨설팅 기업이나 상담 전문 인력에 외주를 주는 방안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재학생의 지원 혹은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학생 vs. 교수' 혹은 '학생 vs. 입학사정관' 또는 '학생 vs. 컨설턴트'의 관계가 학생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이나 편안함을 주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럴 때는 재학생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고민을 들어주는 활동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 2) 학생별 개별 밀착 상담 진행

밀착형 면담이나 상담으로 학생의 유형을 구분했다면, 학교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학생별 맞춤형 접근을 해야 한다. 최종 종착지로 입학한 학생의 경우에는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교과 및 비교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학과나 전공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관심 있는 2~3개 전공을 선택하도록 하여 해당 학과/전공에서 제공하는 과목을 청강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실험 등에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해당 학과/전공 행사 등에도 일부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그 과정 속에서 해당 학과/전공 교수 및 재학생들과의 상담이나 면담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유도해야 한다.

문제는 최종 종착지로 여기지 않는 학생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데 있다. 면담 등을 통해 이런 학생을 선별해냈다면 이들 학생들이 해당 학교를 최종 종착지로 선택하도록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 '마음이 떠난' 학생을 잡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다. 그럼에도 학교에 나오도록 독려하고 각종 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수밖에 없다. 다년간의 경험에 비춰볼 때, 이런 학생들도 학기 초에는 학교에 나오는 경향이 있으며 학교 행사에도 적극적이지는 않더라도 참여하는 경향이 있다. 재수를 하든 반수를 하든, 초기에는 조금 쉬어간다는 생각들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전공 선발 학생들에 대한 각종 행사나 프로그램 등이 가능하면 학기 초에 집중 배치하는 것이 적절하다.

중간 기착지 형태로 입학한 학생들의 경우 학과나 전공에 대한 관심보다는 학교명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별 학과나 전공에 대한 설명보다는 학교의 전반적인 평판, 정부 사업의 수주 현황, 장학금 현황, 발전 방향, 배출한 유명인 등 학생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설명해주는 것이 좋다. 이들에게는 학과나 전공보다 학교명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대학생들이나 고등학생들 사이에 퍼져 있는 대학들의 서열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뜻이다. 어른들의 입장에서 보면 크게 중요할 것 같지 않은 이 대학 서열이 20대에게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대학 선택의 척도가 된다. 이 서열의 어느 위치의 대학에 재학하느냐를 갖고 자부심을 갖기도 하고 열등감 혹은 패배감을 갖는 것이 20대들이다.

학교 측에서 대학 서열이 별로 안 중요하다거나 서열이 전부는 아니다 혹은 우리 학교가 실제로는 학생들 사이에서 도는 서열보다 훨씬 낫다고 아무리 주장해도 학생들에게 수용되기는 쉽지 않다. 대학 서열에 대한 인식이 워낙에 강하기 때문이다. 대학 서열을 무조건 무시하거나 중요성을 부정하기보다는 20대의 눈높이에서 판단하고 접근하는 것도 필요하다. 따라서 학교의 장점도 부각해야 하겠지만 입시결과가 매년 개선되고 있어 서열이 바뀔 수 있다 라든가 사회적인 인식이나 평판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종의 학교에 대한 자긍심을 갖도록 유도하는 전략이다.

물론, 쉽지는 않다. 그러나 다년간의 경험으로 볼 때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전국 단위 각종 공모전이나 경진대회 등에서 대학 서열상 앞에 위치한 대학의 학생들을 제치고 우승하고 그런 대학의 학생들보다 더 취업을 잘 하고 더 좋은 조건으로 유학을 가는 등의 이야기를 해주었을 때, 실제로 그런 학생들과 이야기할 기회를 만들어주었을 때, 학생들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많이 보아왔다. 그런 성취를 달성한 학생들의 경우 자존감이 매우 높을 뿐 아니라 자신감에 차 있는 경우가 많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런 학생들은 자신의 내부에 있던 대학 서열의 유리천장을 깬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이런 학생들의 조언은 마음을 정하지 못해 학교

에 아직까지 안착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상당한 호소력을 갖는 경우가 많다.

무전공으로 선발된 학생들 가운데 최종 종착지로 결정하지 못한 학생들에게도 이런 전략은 유효할 것으로 본다. 다만, 누가 얼마나 밀도있게 학생들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설득하고 생각을 바꿀 기회를 줄 것인가 하는 것은 많은 시간이 투입되는 어려운 일인 만큼 누가 담당하든 쉽지 않은 일이 될 것이다. 그러나 더 많은 학생들을 우리 학교에 안착하도록 하려면 꼭 필요한 과정이다.

### 3) 학과/전공 선택의 최종 단계

특정 전공 선택 없이 입학한 학생들이 1년여의 기간 동안 전공 탐색을 하고 각종 교과 및 비교과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나면 자신의 적성이나 장점 등을 고려한 학과나 전공을 선택해야 하는 시점이 온다. 아마도 이때쯤이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이나 장점 등에 적합한 학과나 전공을 선택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대학 4학년 중에도 자신의 적성이나 특성이 무엇인지 자신이 잘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런데 1년여의 시간 동안 이런저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행사에 참가했다고 정확하게 자신의 적성이나 특성을 찾아내 학과나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학생이 과연 많을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

학생들에게는 또 한 번의 갈등의 시간이 다가온다. 바로 앞으로의 전망 혹은 유망성 혹은 성장가능성이라는 선택 기준과 사회적 평판 혹은 인식이라고 하는 선택 기준 때문이다. 이 두 기준은 학생들이 무언가를 선택해야 할 때 생각 외로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 앞으로의 전망이나 유망성은 내가 그 분야로 갔을 때 취업도 잘 되고 높은 소득도 벌고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고, 사회적 평판이나 인식은 내가 어느 학과나 전공을 다닌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등을 고려하는 것이다.

자신의 적성이나 장점 등을 찾지 못한 학생의 경우 자연스럽게 앞으로 전망이 좋다고 알려진 인기 있는 학과나 전공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자신의 적성을 찾았다고 생각한 학생들의 경우에도 자신의 적성과 해당 전공의 전망이 일치할 때는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고민을 하게 된다. 이런 고민 앞에 놓였을 때 상당수 학생들은 자신의 적성이나 장점을 살리는 선택을 하기보다는 전망 좋고 유망해 보이는 분야를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내 적성과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전공을 선택했는데 졸업 후의 길이 쉽지 않을 경우 되돌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 다른 판단 기준으로는 학문이나 전공의 범용성이 있다. 해당 분야를 전공했을 때 졸업 후 갈 수 있는 분야가 많느냐 혹은 적으냐의 기준이다. 특정 분야를 전공했는데 졸업 후 갈 수 있는 분야가 광범위하고 다양하다면 범용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고, 갈 수 있는 곳이 특정 직역이나 업종 외에는 없다면 범용성이 낮다고 할 수 있다. 학생들이 전공의 범용성을 고려하는 것은 졸업 후 미취업이나 조기 퇴직 등의 불안감에서 벗어나고 싶어서이다. 만약 범용성이 높아 갈 수 있는 곳이 많다면 필요하면 언제든지 새로운 직업을 구할 수 있다.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그만큼 줄일 수 있는 것이다.

그 외에도 전공 공부의 어려움이나 힘든 정도도 학생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 어려운 과목이 많아서 공부하기 힘든 학과나 전공은 선택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고, 상대적으로 공부 내용이 쉬운 학과나 전공은

선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공학 계열보다는 인문·사회학 계열로, 기초학문보다는 응용학문 쪽으로, 인문학보다는 경상 계열로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학생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선택 기준을 고려하면 학생들이 1년여의 진로 탐색과정을 거친 후 어떤 선택을 할지가 대략적으로 잡힌다. 위에서 제시한 기준들의 교집합에 해당되는 분야들이다. 전망 좋고, 사회적 평판도 나쁘지 않으면서, 범용성 높고, 공부하기도 상대적으로 쉬운 전공들이 될 것이다.

이러한 학생들의 선택은 학교로 하여금 또 다른 고민을 하게 만든다. 바로 소위 말하는 인기 있는 학과나 전공으로의 쏠림 현상이다. 쏠림 현상이 벌어지면 1년여에 걸쳐 진행된 진로 탐색을 위한 각종 행사나 프로그램 등의 의미가 많이 퇴색해진다. 학교 내 다양한 학과와 전공을 소개하고 체험하게 했는데 결국 최종적으로 학생들이 선택하는 학과나 전공은 소수의 인기 있고 전망 좋고 범용성도 높은 학과나 전공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위험 회피적(risk averse) 성향을 가진 개인들은 그 개인이 학생이 되었던 성인이 되었든 유사한 상황에서 거의 동일한 선택을 한다. 특정 학과나 전공으로의 쏠림 현상을 막기 어렵다는 뜻이다.

이 상황에서 학교는 선택을 해야 한다. 학생들이 원하는 학과나 전공으로 모두 보낼지 아니면 일부는 보내고 일부는 상대적으로 인기가 낮아 학생들의 선택을 받지 못한 학과나 전공으로 보낼지를. 만약 학생들의 선택을 존중하는 선택을 할 경우에는 해당 학과나 전공에서 모두 수용 가능한지, 선이수과목은 없는지, 학생이 줄어드는 비인기 학과나 전공은 어떻게 할지 등의 문제를 풀어야 한다. 학생들이 쏠리는 학과나 전공에서는 학생 수가 갑자기 늘어나 불만을 가질 수 있고, 그렇지 못한 학과나 전공에서는 학교가 해당 학과나 전공을 방치한다고 불만을 가질 수 있다. 더욱이 비인기 학과나 전공이 기초학문에 해당되는 분야라면 더욱 그렇다. 실제로 1학년 말에 학과나 전공을 선택하도록 하는 과학기술원 계열 대학교의 경우, 수업 내용이 어려운 기초학문 분야에 지원하는 학생 수가 다른 인기 학과에 비해 현저하게 적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특정 학과나 전공으로 진로를 결정하면 그 결정을 그대로 반영해 준다고 한다.

또한, 학과나 전공에 따라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학습 능력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 학과나 전공을 선택하게 할 경우 학습을 못 쫓아가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경상 계열이다. 요즘의 경상 계열 과목들은 수학 및 통계학 지식을 많이 이용하는데 이런 분야 기초가 부족한 학생들은 수업 내용을 쫓아가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또한 학과나 전공에 따라서는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이 많은 경우도 있다. 영어 기초가 부족하다면 당연히 수강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단순히 학생의 선택만으로 해당 전공으로 가게 하는 데는 상당한 위험이 따른다고 할 수 있다.

학생들의 선택을 최대한 존중해주되 학과나 전공별로 인원을 배정하는 것으로 결정해도 문제는 발생한다. 어떤 기준으로 학과별 인원을 배정할지를 두고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학과나 전공별로 특정 인원을 배정하면 쏠림 현상은 방지할 수 있지만 학생들의 불만이 늘어날 우려가 있다. 다양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학년 동안의 성적으로 선택의 우선권을 줄 수도 있고, 성적 외에 해당 학과나 전공 등에 대한 자신만의 포트폴리오나 보고서 등을 평가해 우선권을 줄 수도 있다. 해당 학과나 전공의 교수 등이 성적과 보고서 및 면접 등을 통해 학생들의 적성이나 학업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학생들을 선발할 수도 있다.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일이다.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든 학생들의 선택을 100% 반영해주지 않는 쪽으로 결론이 난다면, 학생들의 불만은 생길 수밖에 없다.

결국 1년여의 진로 탐색이 끝나고 학과나 전공을 선택하게 하더라도, 여전히 자신의 장점과 적성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학생들 대부분일 가능성이 높고, 그런 이유로 전망 좋으면서 사회적 평판도 나쁘지 않은, 범용성 높고 수업 내용도 어렵지 않은 학과나 전공으로의 쏠림 현상은 피하기 어렵다. 학교에서도 사전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

#### 4) 학과/전공 선택 이후의 관리

무전공 학생들의 학과/전공 선택이 끝났다고 모든 일이 마무리되는 것은 아니다. 학과나 전공 입장에서 보면 무전공 학생들은 입학과 동시에 들어온 학생들보다 1년 늦게 전공 분야에 들어온 학생에 해당된다. 교육 측면에서 선이수 과목이나 일부 전공과목 수강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교우 관계 측면에서 이미 만들어진 또래집단에 포함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1년여의 전공 탐색기간이 끝난 뒤 무전공으로 선발된 학생들을 받은 학과나 전공은 뒤쳐진 전공 수업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인지, 이미 형성된 또래집단에 어떻게 포함되도록 할 것인지 등에 대해 고민을 해야 한다.

대학 본부에서도 이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학과나 전공과 긴밀히 연계할 필요가 있으며, 무전공으로 생활하던 1년여 동안 축적된 해당 학생에 대한 자료나 정보 등이 학과나 전공 쪽으로 이전되어 학생에 대한 관리 등이 연계성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

## 4. 끝맺는 말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면, 학교 측면에서 무전공 선발 제도의 성패는 (i) 학교가 학생의 최종 종착지가 되도록 유도할 수 있는지의 여부, (ii) 얼마나 많은 학생을 적성과 장점을 살려 관련 학과나 전공에 연결시켜줄 수 있는지의 여부, (iii) 어떻게 학생들의 선택을 존중해주면서도 특정 학과나 전공으로의 쏠림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지의 여부 등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학교가 이러한 난제를 해결하고 무전공 선발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려면 많은 노력과 시간과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생들에 대한 세밀한 접근이 필요한 점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현재 무전공 선발과 관련된 논의들을 살펴보면, 가장 근본적인 문제부터 시작해 정말로 심도 있게 무전공 선발 제도의 정착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지의 의문이다. 정부에서 무전공 선발 제도로 학생을 선발하라고 강요하니까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몰며 겨자 먹기식으로 도입한다는 인상을 많이 받는다. 앞서 언급한 문제점 때문에 아직까지도 무전공 선발에 반대 의견을 가진 교수들도 많다.

무전공 선발제도는 학교 측면에서도 다양한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학생 입장에서라도 반드시 유리한 제도라고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1년여라는 짧은 기간 내에 자신의 적성과 장점을 발견해야 하고, 이러한 발견을

바탕으로 내게 적합한 학과나 전공을 선택해야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학교에서 제공하는 행사나 프로그램에 기반해 결정을 해야 한다. 학교라는 영역을 벗어난 더 넓은 분야의 경험을 쌓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기에는 제약이 많다. 이런 관점에서 영미권에서 하고 있는 ‘갭이어’(gap year) 제도 도입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본다. 갭이어는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 생활을 시작하기 전 1년여 동안 다양한 사회 경험을 하고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을 의미한다. 학교라는 틀을 아예 벗어나 자유롭게 여행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경험을 쌓는다.

우리나라는 서두에서 제시했던 A와 같은 학생을 선발하고 교육시키기에는 아직까지 한계가 많다. 그 방향이 맞는 방향일 수 있지만 우리나라 교육제도가 갖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그러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돌파해보고자 나온 제도가 무전공 선발제도이다. 따라서 무전공 선발제도는 최종 형태의 제도라기보다는 현실의 문제를 조금 완화시켜보자는 의미의 임시방편 성격이 강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인터넷 용어 중에 ‘덕후’라는 말이 있다. 더 줄여서 ‘덕’이라고도 한다. 일본말 ‘오타쿠’에서 ‘오덕후’라는 말을 거쳐 만들어진 단어로, 특정 분야에서 일반인들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지식과 경험 혹은 아이템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일컫는다. 서브컬처(subculture)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데, 부정적인 의미도 갖고 있지만 긍정적인 의미도 갖고 있다. 그러한 덕후 사회에서 취미활동의 방향성이나 규모가 상대적으로 매우 커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서양덕’(양덕) 혹은 ‘미국덕’이라 불리는 사람들이다. 서론에서 소개한 A와 같은 학생이 대표적인데, 대부분 사람들이 비행기 모형 조립 정도에 그칠 때 실제 모형을 주문 제작하고 각종 전기 시설을 내부에 설치해 실제로 하늘에 띄우는 사람들이나 단순 취미로 하는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의미로 많이 사용된다.

우리나라 대학 입시제도가 장기적으로 B와 같은 학생을 없애고 A와 같은 학생이 많아지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러기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많다. 우리나라도 언젠가 성적에 맞춰 전공을 선택하고 그렇게 선택한 전공에 자신을 억지로 꿰어 맞추는 방식이 아닌,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잘하는 분야를 전공으로 선택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우리나라의 장기적인 경쟁력을 위해서라도, ‘덕후’가 자신이 ‘덕질’하는 분야로 대학을 가고, 해당 분야의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우리나라에도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다.



# 2025학년도 대학별 무전공 모집과 우리의 선택



이용찬

광운대학교 선입입학사정관

## 들어가는 말

2024년 5월 30일 교육부는 전공자유선택 모집계획이 포함된 2025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전공자유선택 모집은 학생들에게 흥미·적성에 맞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정책이다.

전체 대학의 전공자유선택(이하 무전공) 모집인원은 2024학년도에 비해 2025학년도에 크게 늘었다. 수도권 대학(51개교)의 경우 2024학년도 7,518명에서 2025학년도 25,648명으로 무전공 모집인원이 전년 대비 약 18,130명(약 340%) 증가했다. 수험생들은 확대된 무전공 모집 정보를 잘 확인하여 대학진학에 활용해야 한다.

무전공 입학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학생들에게 본 글은 무전공 입학이 무엇인지, 무전공 입학이 가능한 대학은 어디인지(2025학년도 기준) 안내하고자 한다.

## 1. 무전공 입학이란 무엇일까?

무전공 입학은 대학 입학 시 특정 전공을 정하지 않고 입학한 후 일정 기간 동안 다양한 학문 분야를 경험하고 탐색한 후에 자신에게 맞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자신에게 맞지 않는 전공을 선택하여 전공 변경으로 인한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줄일 수 있고, 다양한 전공의 기초 과목을 수강하면서 폭넓은 배움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 • 무전공 선발?

대학 신입생이 전공을 정하지 않고 입학한 뒤 진로를 탐색하고 2학년에 올라갈 때 전공을 자유롭게 택하는 제도

### • 무전공 선발 유형

#### 유형1 통합모집

자유전공학부 등으로 입학한 뒤 2학년 때 의대, 사범대 등 특수학과를 제외하고 모든 전공을 고를 수 있음

#### 유형2 계열모집

계열이나 단과대 단위로 입학한 뒤 해당 계열이나 단과대 내에서 전공을 고를 수 있음

올해 대학들은 학사 구조 및 모집 단위의 개편과 인원 조정을 통해 무전공 선발 인원을 확정했다. '유형1'(통합모집)은 전공을 정하지 않고 학생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자유전공학부와 유사하게 입학 후에 대학 내에서 원하는 전공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단, 국가 자격증이 필요하거나 학제가 다른 보건·의료·건축 및 사범계열, 예체능계열, 그리고 계약학과는 이 유형에서 제외된다. '유형2'(계열모집)는 계열 또는 단과대학 단위로 학생을 모집한 후, 해당 단과대학 내에서 모든 전공을 자유롭게 선택하거나 학과별 정원의 150% 이상 범위 내에서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이다.

## 2. 대학별 무전공 모집 현황은?

### 1) 유형별 무전공 모집 현황

〈표 1〉 2025-2026학년도 전형별 무전공선발 모집규모 변화

(단위:%)

| 구분            | 년도      | 학생부교과 | 학생부종합 | 논술    | 수능    |
|---------------|---------|-------|-------|-------|-------|
| 유형1<br>(통합모집) | 2025학년도 | 36.26 | 15.51 | 12.24 | 35.99 |
|               | 2026학년도 | 11.27 | 12.81 | 10.95 | 64.97 |
| 유형2<br>(계열모집) | 2025학년도 | 29.03 | 14.5  | 14.14 | 41.91 |
|               | 2026학년도 | 15.61 | 12.37 | 6.24  | 65.78 |

※ 출처 : 대학입학정보포털 어디가

우선, 2025-2026학년도 전형별 무전공 모집인원은 유형별로 다소 변동이 있는데 〈표1〉의 유형별 무전공 선발 추세를 통해 알 수 있다. 2025-2026학년도 모집인원의 변동추이를 살펴보면, 통합모집인 유형1의 경우 2025학년도에 35.99%이던 수능전형이 2026학년도에는 64.97%로 크게 늘고, 학생부교과전형은 36.26%에서 11.27%로 크게 줄어든다. 학생부종합전형과 논술전형의 무전공 모집인원도 2025학년도와 비교하여 2026학년도에는 약간 줄어들 예정이다.

계열모집인 유형2 무전공 선발 경우도 유형1의 변화폭과 비슷한 양상이다. 2025학년도에 41.91%였던 수능전형은 65.78%로 크게 늘고, 학생부교과전형은 29.03%에서 15.61%로 크게 줄어든다. 학생부종합전형과 논술전형도 약간 줄어든 예정인데, 유형2의 논술전형 모집인원은 14.14%에서 6.24%로 유형1보다 감소폭이 더욱 크다.

전반적으로 2025학년도 무전공 모집은 학생부교과전형(36.26%)과 수능전형(35.99%)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며, 2026학년도에는 수능전형에서 가장 많이 모집한다는 특징이 있다. 지원시 무전공 선택을 고려하고 있는 학생이라면 수능전형과 학생부교과전형에 많은 기회가 있다는 점을 참고하면 좋겠다.

## 2) 전형별 무전공 모집인원

대학입학정보포털 어디가 홈페이지에는 대학별 2025학년도 수시모집 무전공 선발 현황이 공개되어 있다. <표 2>는 수도권 주요대학 무전공 선발 현황이 일부 내용이다. 수도권에 있는 ① 사립대 및 공립대 (서울시립대)와 ② 국립대(서울대, 서울과학기술대, 인천대 포함)의 유형별 무전공 선발현황을 한눈에 파악 할 수 있다.

<표 2> 2025학년도 수시모집 수도권 주요대학 유형별 무전공 모집 현황

| 번호 | 대학명   | 구분 | 입학정원<br>(명) | 학과 명칭(모집단위 명칭) | 주/야간 | 모집인원<br>(명) | 유형<br>구분 |
|----|-------|----|-------------|----------------|------|-------------|----------|
| 1  | 건국대학교 | 본교 | 3,399       | KU자유전공학부       | 주간   | 308         | 유형1      |
|    |       |    |             | 문과대학 자유전공학부    | 주간   | 49          | 유형2      |
|    |       |    |             | 이과대학 자유전공학부    | 주간   | 24          | 유형2      |
|    |       |    |             | 공과대학 자유전공학부    | 주간   | 195         | 유형2      |
|    |       |    |             | 사회과학대학 융합전공학부  | 주간   | 74          | 유형2      |
|    |       |    |             | 융합과학기술원 자유전공학부 | 주간   | 33          | 유형2      |
|    |       |    |             | 생명과학대학 자유전공학부  | 주간   | 46          | 유형2      |
| 2  | 경희대학교 | 본교 | 4,830       | 자율전공학부         | 주간   | 165         | 유형1      |
|    |       |    |             | 자유전공학부         | 주간   | 241         | 유형1      |
| 3  | 고려대학교 | 본교 | 4,284       | 학부대학           | 주간   | 36          | 유형1      |
|    |       |    |             | 자유전공학부         | 주간   | 95          | 유형1      |
|    |       |    |             | 공과대학           | 주간   | 65          | 유형2      |
| 4  | 광운대학교 | 본교 | 2,057       | 자율전공학부(자연)     | 주간   | 266         | 유형1      |
|    |       |    |             | 자율전공학부(인문)     | 주간   | 142         | 유형1      |
| 5  | 국민대학교 | 본교 | 2,996       | 자유전공           | 주간   | 300         | 유형1      |
|    |       |    |             | 미래융합전공         | 주간   | 528         | 유형1      |
|    |       |    |             | 법학부            | 주간   | 77          | 유형2      |
|    |       |    |             | 경영학부           | 주간   | 116         | 유형2      |
|    |       |    |             | 자동차융합대학        | 주간   | 75          | 유형2      |
|    |       |    |             | 건축학부           | 주간   | 44          | 유형2      |

| 번호 | 대학명     | 구분    | 입학정원<br>(명) | 학과 명칭(모집단위 명칭)  | 주/야간 | 모집인원<br>(명) | 유형<br>구분 |
|----|---------|-------|-------------|-----------------|------|-------------|----------|
| 6  | 단국대학교   | 본교    | 2,527       | 퇴계혁신칼리지         | 주간   | 267         | 유형1      |
|    |         |       |             | 인문계열광역          | 주간   | 38          | 유형2      |
|    |         |       |             | 사회계열광역          | 주간   | 148         | 유형2      |
|    |         |       |             | 공학계열광역          | 주간   | 108         | 유형2      |
|    |         |       |             | SW융합계열광역        | 주간   | 34          | 유형2      |
|    |         | 제2캠퍼스 | 2,352       | 울곡혁신칼리지         | 주간   | 173         | 유형1      |
|    |         |       |             | 인문사회계열광역        | 주간   | 107         | 유형2      |
|    |         |       |             | 자연공학계열광역        | 주간   | 166         | 유형2      |
| 7  | 동국대학교   | 본교    | 3,138       | 열린전공학부(인문)      | 주간   | 119         | 유형1      |
|    |         |       |             | 열린전공학부(자연)      | 주간   | 110         | 유형1      |
|    |         |       |             | 경찰사법대학 경찰행정학부   | 주간   | 62          | 유형2      |
|    |         |       |             | 바이오시스템대학        | 주간   | 34          | 유형2      |
| 8  | 서강대학교   | 본교    | 1,747       | 인문학기반자유전공학부     | 주간   | 67          | 유형1      |
|    |         |       |             | SCIENCE기반자유전공학부 | 주간   | 40          | 유형1      |
|    |         |       |             | SI기반자유전공학부      | 주간   | 50          | 유형1      |
|    |         |       |             | 인문학부            | 주간   | 120         | 유형2      |
|    |         |       |             | 사회과학부           | 주간   | 90          | 유형2      |
|    |         |       |             | 지식융합미디어학부       | 주간   | 98          | 유형2      |
| 9  | 서울여자대학교 | 본교    | 1,697       | 자유전공학부          | 주간   | 138         | 유형1      |
|    |         |       |             | 인문자유전공          | 주간   | 33          | 유형2      |
|    |         |       |             | 사회과학자유전공        | 주간   | 44          | 유형2      |
|    |         |       |             | 과학기술융합자유전공      | 주간   | 37          | 유형2      |
|    |         |       |             | 미래산업융합자유전공      | 주간   | 30          | 유형2      |
|    |         |       |             | 언론영상학부          | 주간   | 60          | 유형2      |
|    |         |       |             | 심리, 인지과학학부      | 주간   | 38          | 유형2      |
|    |         |       |             | 지능정보보호학부        | 주간   | 48          | 유형2      |
| 10 | 성균관대학교  | 본교    | 3,462       | 자유전공계열          | 주간   | 280         | 유형1      |

| 번호 | 대학명     | 구분 | 입학정원<br>(명) | 학과 명칭(모집단위 명칭) | 주/야간 | 모집인원<br>(명) | 유형<br>구분 |
|----|---------|----|-------------|----------------|------|-------------|----------|
| 11 | 세종대학교   | 본교 | 2,727       | 자유전공학부         | 주간   | 223         | 유형1      |
|    |         |    |             | 인문사회계열         | 주간   | 122         | 유형2      |
|    |         |    |             | 경상호텔관광계열       | 주간   | 126         | 유형2      |
|    |         |    |             | 자연생명계열         | 주간   | 126         | 유형2      |
|    |         |    |             | IT계열           | 주간   | 125         | 유형2      |
|    |         |    |             | 공과계열           | 주간   | 208         | 유형2      |
| 12 | 숙명여자대학교 | 본교 | 2,160       | 자유전공학부         | 주간   | 303         | 유형1      |
|    |         |    |             | 첨단공학부          | 주간   | 78          | 유형2      |
| 13 | 송실대학교   | 본교 | 3,021       | 자유전공학부(인문)     | 주간   | 183         | 유형1      |
|    |         |    |             | 자유전공학부(자연)     | 주간   | 256         | 유형1      |
| 14 | 아주대학교   | 본교 | 2,183       | 자유전공학부(자연)     | 주간   | 108         | 유형1      |
|    |         |    |             | 자유전공학부(인문)     | 주간   | 58          | 유형1      |
|    |         |    |             | 첨단바이오융합대학      | 주간   | 75          | 유형2      |
|    |         |    |             | 프린티어과학학부       | 주간   | 109         | 유형2      |
|    |         |    |             | 경제정치사회융합학부     | 주간   | 104         | 유형2      |
| 15 | 연세대학교   | 본교 | 2,183       | 언더우드학부         | 주간   | 150         | 유형2      |
|    |         |    |             | 융합인문사회과학부      | 주간   | 148         | 유형2      |
|    |         |    |             | 융합과학공학부        | 주간   | 81          | 유형2      |
|    |         |    |             | 글로벌인재학부        | 주간   | 11          | 유형2      |
|    |         |    |             | 상경계열           | 주간   | 70          | 유형2      |
|    |         |    |             | 생명과학부          | 주간   | 20          | 유형2      |
| 16 | 이화여자대학교 | 본교 | 3,207       | 인문계열           | 주간   | 174         | 유형1      |
|    |         |    |             | 자연계열           | 주간   | 149         | 유형1      |
|    |         |    |             | 스크랜튼학부         | 주간   | 41          | 유형1      |
|    |         |    |             | 국제학부           | 주간   | 54          | 유형2      |
|    |         |    |             | 인공지능데이터사이언스학부  | 주간   | 114         | 유형2      |

| 번호 | 대학명          | 구분    | 입학정원<br>(명) | 학과 명칭(모집단위 명칭)       | 주/야간 | 모집인원<br>(명) | 유형<br>구분 |
|----|--------------|-------|-------------|----------------------|------|-------------|----------|
| 17 | 인하대학교        | 본교    | 3,807       | 자유전공융합학부             | 주간   | 270         | 유형1      |
|    |              |       |             | 공학융합학부               | 주간   | 131         | 유형2      |
|    |              |       |             | 자연과학융합학부             | 주간   | 40          | 유형2      |
|    |              |       |             | 경영융합학부               | 주간   | 44          | 유형2      |
|    |              |       |             | 사회과학융합학부             | 주간   | 41          | 유형2      |
|    |              |       |             | 인문융합학부               | 주간   | 33          | 유형2      |
|    |              |       |             | 전기전자공학부              | 주간   | 189         | 유형2      |
|    |              |       |             | 영미유럽인문융합학부           | 주간   | 60          | 유형2      |
| 18 | 중앙대학교        | 본교    | 3,780       | 인문대학                 | 주간   | 36          | 유형2      |
|    |              |       |             | 사회과학대학               | 주간   | 25          | 유형2      |
|    |              |       |             | 경영경제대학               | 주간   | 52          | 유형2      |
|    |              |       |             | 공과대학                 | 주간   | 31          | 유형2      |
|    |              |       |             | 자연과학대학               | 주간   | 30          | 유형2      |
|    |              |       |             | 창의ICT공과대학            | 주간   | 150         | 유형2      |
|    |              | 제2캠퍼스 | 1,175       | 생명공학대학               | 주간   | 65          | 유형2      |
| 19 | 한국외국어<br>대학교 | 제1캠퍼스 | 1,774       | 자유전공학부(서울)           | 주간   | 100         | 유형1      |
|    |              |       |             | 영어대학                 | 주간   | 37          | 유형2      |
|    |              |       |             | 핵심외국어계열              | 주간   | 54          | 유형2      |
|    |              |       |             | 특수외국어(유럽지역)계열        | 주간   | 24          | 유형2      |
|    |              |       |             | 특수외국어(인도아세안지역)계<br>열 | 주간   | 24          | 유형2      |
|    |              |       |             | 특수외국어(중동지역)계열        | 주간   | 21          | 유형2      |
|    |              |       |             | 중국학대학                | 주간   | 21          | 유형2      |
|    |              |       |             | 일본학대학                | 주간   | 16          | 유형2      |
|    |              |       |             | 사회과학대학               | 주간   | 31          | 유형2      |
|    |              |       |             | 상경대학                 | 주간   | 26          | 유형2      |

| 번호 | 대학명          | 구분            | 입학정원<br>(명) | 학과 명칭(모집단위 명칭)                | 주/야간 | 모집인원<br>(명) | 유형<br>구분 |
|----|--------------|---------------|-------------|-------------------------------|------|-------------|----------|
|    | 한국외국어<br>대학교 | 제2캠퍼스         | 1,701       | 자유전공학부(글로벌)                   | 주간   | 224         | 유형1      |
|    |              |               |             | 인문대학                          | 주간   | 21          | 유형2      |
|    |              |               |             | 국가전략언어계열                      | 주간   | 52          | 유형2      |
|    |              |               |             | 경상대학                          | 주간   | 19          | 유형2      |
|    |              |               |             | 자연과학대학                        | 주간   | 48          | 유형2      |
|    |              |               |             | 공과계열                          | 주간   | 67          | 유형2      |
|    |              |               |             | Cultuer & Technology 융합대<br>학 | 주간   | 30          | 유형2      |
|    |              |               |             | 시융합대학                         | 주간   | 20          | 유형2      |
| 20 | 한양대학교        | 본교            | 2,907       | 한양인터칼리지학부                     | 주간   | 250         | 유형1      |
|    |              | 분교<br>(ERICA) | 2,317       | LIONS자율전공학부(전계열)              | 주간   | 223         | 유형1      |
|    |              |               |             | LIONS자율전공학부(자연계열)             | 주간   | 130         | 유형2      |
|    |              |               |             | LIONS자율전공학부(인문사회<br>계열)       | 주간   | 95          | 유형2      |
|    |              |               |             | 디자인계열                         | 주간   | 138         | 유형2      |
|    |              |               |             | 바이오신약융합학부                     | 주간   | 73          | 유형2      |
| 21 | 홍익대학교        | 본교            | 2,373       | 서울캠퍼스자율전공(자연.예능)              | 주간   | 267         | 유형1      |
|    |              |               |             | 서울캠퍼스자율전공(인문.예능)              | 주간   | 193         | 유형1      |
|    |              |               |             | 자율전공(미술대)                     | 주간   | 79          | 유형2      |
|    |              | 제2캠퍼스         | 1,291       | 세종캠퍼스자율전공(자연.예능)              | 주간   | 176         | 유형1      |
|    |              |               |             | 세종캠퍼스자율전공(인문.예능)              | 주간   | 175         | 유형1      |
|    |              |               |             | 자율전공(과기대)                     | 주간   | 51          | 유형2      |
|    |              |               |             | 상경학부                          | 주간   | 170         | 유형2      |

※ 출처 : 대학입학정보포털 어디가

예를 들면, 광운대는 자율전공학부로 자연계열(266명), 인문계열(142명)을 모집(유형1) 한다. 아주대의 경우 유형1과 유형2를 모두 모집하는데 자율전공학부를 자연계열과 인문계열로 통합모집(유형1)하고, 첨단 바이오융합대학, 프린티어과학학부, 경제정치사회융합학부로 계열모집(유형2)을 하고 있다.

수험생이 준비하고 있는 전형에 따라 대학별로 모집규모가 다르다. 모집인원 규모는 수험생의 지원여부를 판단하는 데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표 3>은 2025학년도 수시 및 정시모집 수도권 주요 대학의 전형별 무전공 모집인원이다. 특히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에서 입학정원 대비 무전공 모집인원이 많은 대학은 국민대(1,139명), 홍익대(1,111명), 단국대(1,041명), 세종대(930명), 한양대(990명), 한국외대(835명), 인하대(808명), 건국대(738명), 이화여대(532명), 연세대(480명) 순으로 올해 무전공 모집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 2025학년도 수시 및 정시모집 수도권 주요대학 무전공 모집인원

| 대학명      | 입학정원(명) | 무전공 모집인원(명) | 무전공 모집비율 |
|----------|---------|-------------|----------|
| 국민대학교    | 2,996   | 1,139       | 38.0%    |
| 홍익대학교    | 3,664   | 1,111       | 30.3%    |
| 단국대학교    | 4,879   | 1,041       | 21.3%    |
| 세종대학교    | 2,727   | 930         | 34.1%    |
| 한양대학교    | 5,224   | 909         | 17.4%    |
| 한국외국어대학교 | 3,475   | 835         | 24.0%    |
| 인하대학교    | 3,807   | 808         | 21.2%    |
| 건국대학교    | 3,399   | 738         | 21.7%    |
| 이화여자대학교  | 3,207   | 532         | 16.6%    |
| 연세대학교    | 2,183   | 480         | 22.0%    |
| 서강대학교    | 1,747   | 469         | 26.8%    |
| 아주대학교    | 2,183   | 454         | 20.8%    |
| 송실대학교    | 3,021   | 439         | 14.5%    |
| 서울여자대학교  | 1,697   | 428         | 25.2%    |
| 광운대학교    | 2,057   | 408         | 19.8%    |
| 경희대학교    | 4,830   | 406         | 8.4%     |
| 중앙대학교    | 4,955   | 389         | 7.9%     |
| 숙명여자대학교  | 2,160   | 381         | 17.6%    |
| 동국대학교    | 3,138   | 325         | 10.4%    |
| 성균관대학교   | 3,462   | 280         | 8.1%     |
| 고려대학교    | 4,284   | 200         | 4.7%     |

※ 각 대학 2025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최종 모집인원은 반드시 해당 대학의 수시 모집요강, 정시 모집요강을 통해 확인하기 바람

※ 단국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홍익대는 본교와 분교(캠퍼스)를 합친 인원임

여기서 주의할 점은 무전공 모집인원이 늘어난 것은 기존 학과 모집인원의 감소를 의미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무전공 전형으로 모집인원이 늘어난 학과의 경우 다른 전형의 모집인원이 감소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야 한다.

## 2) 무전공 모집 전형별 현황

다음 <표 4>는 2025학년도 수시 및 정시모집 수도권 주요대학의 전형별 무전공 모집 인원이다. 수시 모집(학생부교과, 학생부종합, 논술)과 정시모집(수능) 각 전형별 무전공 모집인원과 각 대학의 입학정원 대비 무전공 모집비율이다. 모집인원이 많을수록 색상을 진하게 표시했다.

<표 4> 2025학년도 수시 및 정시모집 수도권 주요대학 전형별 무전공 모집인원

| 대학명     | 모집인원(명) (모집비율) |               |               |                |
|---------|----------------|---------------|---------------|----------------|
|         | 수시모집           |               |               | 정시모집           |
|         | 학생부교과          | 학생부종합         | 논술            | 수능             |
| 건국대학교   | 257<br>(7.6%)  | 179<br>(5.3%) | 174<br>(5.1%) | 128<br>(3.8%)  |
| 경희대학교   | 236<br>(4.9%)  | 23<br>(0.5%)  | 8<br>(0.2%)   | 139<br>(2.9%)  |
| 고려대학교   | 18<br>(0.4%)   | 60<br>(1.4%)  | 15<br>(0.4%)  | 107<br>(2.5%)  |
| 광운대학교   | 0<br>(0%)      | 0<br>(0%)     | 0<br>(0%)     | 408<br>(19.8%) |
| 국민대학교   | 85<br>(2.8%)   | 279<br>(9.3%) | 0<br>(0%)     | 774<br>(25.8%) |
| 단국대학교   | 205<br>(4.2%)  | 288<br>(5.9%) | 108<br>(2.2%) | 440<br>(9%)    |
| 동국대학교   | 115<br>(3.7%)  | 13<br>(0.4%)  | 20<br>(0.6%)  | 177<br>(5.6%)  |
| 서강대학교   | 51<br>(2.9%)   | 164<br>(9.4%) | 40<br>(2.3%)  | 214<br>(12.2%) |
| 서울여자대학교 | 26<br>(1.5%)   | 62<br>(3.7%)  | 22<br>(1.3%)  | 318<br>(18.7%) |
| 성균관대학교  | 20<br>(0.6%)   | 120<br>(3.5%) | 30<br>(0.9%)  | 110<br>(3.2%)  |
| 세종대학교   | 223<br>(8.2%)  | 0<br>(0%)     | 0<br>(0%)     | 707<br>(25.9%) |

| 대학명      | 모집인원(명) (모집비율) |                |               |                |
|----------|----------------|----------------|---------------|----------------|
|          | 수시모집           |                |               | 정시모집           |
|          | 학생부교과          | 학생부종합          | 논술            | 수능             |
| 숙명여자대학교  | 0<br>(0%)      | 0<br>(0%)      | 0<br>(0%)     | 381<br>(17.6%) |
| 송실대학교    | 47<br>(1.6%)   | 0<br>(0%)      | 0<br>(0%)     | 392<br>(13%)   |
| 아주대학교    | 72<br>(3.3%)   | 146<br>(6.7%)  | 20<br>(0.9%)  | 216<br>(9.9%)  |
| 연세대학교    | 0<br>(0%)      | 231<br>(10.6%) | 0<br>(0%)     | 139<br>(6.4%)  |
| 이화여자대학교  | 9<br>(0.3%)    | 70<br>(2.2%)   | 17<br>(0.5%)  | 393<br>(12.3%) |
| 인하대학교    | 88<br>(2.3%)   | 113<br>(3%)    | 48<br>(1.3%)  | 559<br>(14.7%) |
| 중앙대학교    | 239<br>(4.8%)  | 0<br>(0%)      | 0<br>(0%)     | 150<br>(3%)    |
| 한국외국어대학교 | 107<br>(3.1%)  | 304<br>(8.7%)  | 85<br>(2.4%)  | 339<br>(9.8%)  |
| 한양대학교    | 215<br>(4.1%)  | 340<br>(6.5%)  | 50<br>(1%)    | 264<br>(5.1%)  |
| 홍익대학교    | 278<br>(7.6%)  | 265<br>(7.2%)  | 196<br>(5.3%) | 372<br>(10.2%) |

※ 각 대학 2025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최종 모집인원은 반드시 해당 대학의 수시 모집요강, 정시 모집요강을 통해 확인하기 바람  
 ※ 단국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홍익대는 본교와 분교(2캠퍼스)를 합친 인원임

수시모집부터 살펴보면, 학생부교과전형으로 무전공 모집인원이 많은 대학으로는 홍익대(278명), 건국대(257명), 중앙대(239명), 경희대(236명), 세종대(223명), 한양대 215명, 단국대(205명) 순이다. 학생부종합전형으로 무전공 모집인원이 많은 대학은 한양대(340명), 한국외대(304명), 단국대(288명), 국민대(279명), 홍익대(265명), 연세대(231명) 순이다. 논술전형으로 무전공 모집인원이 많은 대학은 홍익대(196명), 건국대(174명), 단국대(108명) 순이다. 홍익대(739명)를 비롯하여 한양대(645명), 건국대(610명), 단국대(601명), 한국외대(496명)는 수시모집에서 무전공 선발에 적극적인 대학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시모집에서 무전공 선발에 적극적인 대학은 국민대(774명), 세종대(707명), 인하대(559명), 단국대(440명), 광운대(408명)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화여대(393명), 송실대(392명), 숙명여대(381명), 홍익대(372명), 한국외대(339명), 서울여대(318명), 한양대(264명)도 상당히 많은 인원을 정시에서 무전공으로 선발하고 있다.

## 나가는 말

기존의 학생부종합전형에 준비하던 학생들도 얼마든지 무전공 모집에 도전할 수 있다. 대학에서 학생부종합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할 때, 학생이 고교 과정에서 자신이 정한 목표에 도전한 경험이 있는지,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자기 주도적으로 관심 분야에 대해 탐구하고 활동한 경험이 있는지 관심을 갖고 평가한다. 뿐만 아니라 고교 생활에서 교과 수업과 각종 활동을 성실하고 참여하고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협력하는 모습까지 살펴본다. 이처럼 학생부종합전형에서 평가하는 진로역량, 학업역량, 인성이 우수한 학생이라면, 학생부종합전형으로 무전공 입학하여 대학에서도 얼마든지 자신의 잠재력을 펼칠 수 있으리라 기대할 수 있다.

한편 학생부교과전형이나 수능으로 지원하는 경우, 기존 학과별 모집인원을 조금씩 가져와서 무전공 모집인원으로 합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모집인원의 변화는 입시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모집인원의 변화를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세종대의 경우 2025학년도에 학생부교과전형 자유전공학부 신설(223명)로 학생부교과전형에서 국제학부 모집인원이 작년 17명에서 올해 2명으로 크게 줄었다.

광운대의 경우도 2025학년도 정시모집 자유전공학부가 신설되었는데 작년 정시 가군 54명에서 올해 16명으로 크게 감소했다. 이처럼 무전공 선발이 확대가 되는 학교의 경우 기존 학과의 모집인원이 크게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학생부교과전형과 수능전형 지원자는 전년도 입시결과를 통해 올해 입시결과를 예측하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

지금까지 2025학년도에 확대되는 무전공 선발 전형 및 특징을 간단히 살펴보았다. 무전공 입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각 대학의 모집 요강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각 대학별 무전공 모집 명칭이 다르기 때문에 모집 명칭 또한 잘 확인해야 한다.

필자도 무전공으로 대학에 입학하여 다양한 분야의 기초 과목을 탐색하고 경험한 이후 원하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었다. 대학에 첫발을 내딛는 학생에게 무전공 입학은 자신만의 길을 찾아 자신의 잠재력을 펼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므로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서 후회 없는 선택이 되길 바란다.



교사와 학생, 학교가 함께하는

# 학생부종합전형 이야기

열 번째 시리즈



**부록**

**광운대학교 학부 및 학과 안내**



# 전자정보공과대학

College of Electronics & Information Engineering



전자공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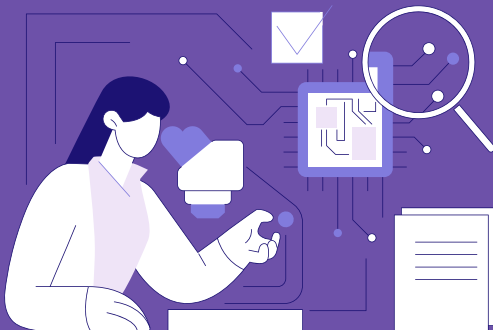
전자통신공학과

전자융합공학과

전기공학과

전자재료공학과

반도체시스템공학부





## 전자공학과

전자공학과는 현재 광운대학교의 대표 학과로서 20명의 교수진, 660여명의 학부생, 70여명의 대학원생이 “창의성과 실무능력을 갖춘 엔지니어”의 양성을 목표로 통신/AI신호처리, RF집적회로설계, 차세대반도체/바이오 등 주요 전자분야들의 연구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 ☑ 주요 교육 프로그램

- 공학교육인증(ABEEK) 프로그램
- 반도체 전공트랙 사업
- Brain Korea(BK21) 2단계 사업
- 인공지능 반도체 연계 전공 사업



전자계열 취업률

# 78%

(2023)

SCI 논문편수

# 1.057

전임교원 1인당 (2023)

교외연구비 단위:천원

# 267,322

전임교원 1인당 (2023)

### ☑ 주요 진로 방향

#삼성 #하이닉스 #대학원 #반도체 #인공지능 #통신 #전자





## 전자통신공학과

전자통신공학과는 광운대학교의 대표적 첨단 기술 학과로 전자통신 분야 핵심 기술에 대해 교육과 연구개발을 통해 핵심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통신, 네트워크, 인공지능, 반도체, 디지털시스템 등을 포괄한 SW-HW 융합 전문 교육 및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 주요 교육 프로그램

- 공학인증프로그램 운영과 동시에 1. 반도체 및 디지털시스템 트랙, 2. 통신/네트워크 및 인공지능 트랙의 2가지 교육과정을 운영
-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융합소프트웨어, 인공지능반도체 등의 여러 연계전공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



2013년, 2017년

### 최우수학과 선정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주관 산업계관점 대학평가 정보통신분야

### ☑ 주요 진로 방향

- # 차세대 통신 및 네트워크 : SK Telecom, KT, ETRI 등
- # 인공지능/시스템/메모리반도체 : 삼성전자, SK하이닉스, ASML 등
- # 인공지능 및 소프트웨어 : 네이버, 카카오 등
- # 그 외 전자공학분야 전반





## 전자융합공학과

전자융합공학과는 광운대학교 대표 첨단 IT 융합학과로 전자정보통신 기술 뿐 아니라 이를 기반으로 하는 융복합 핵심 기술에 대한 교육과 연구를 통해 IT융합 분야의 핵심 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 ☑ 주요 교육 프로그램

- 다양한 융복합 교과목
- 캡스톤(졸업설계실습 프로젝트)
- Brain Korea(BK21) 사업
- 공학교육인증(ABEEK) 프로그램



취업률

**75.4%**

(2023)

학생 상담

**18.9건**

전임교원 1인당

전공 교육만족도

**3.86**

3년 평균

### ☑ 주요 진로 방향

# 삼성/LG # 전자/반도체/방위산업/자동차  
# 다양한/폭넓은





## 전기공학과

전기공학과에서는 큰 스케일의 신재생에너지, 지능형 전력망, 전기기계 분야뿐만 아니라 신소재 반도체소자, 바이오센서, 초음파 의료영상, 인공지능 등 다양한 분야를 융합하여 세계적 수준의 연구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러한 최신 연구 결과를 반영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교육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 ☑ 주요 교육 프로그램

- 미래 전력기술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
- 전국 에너지 공동 학점 과정
- 지능형로봇 마이크로모듈 프로그램
- 공학교육인증(ABEEK) 프로그램



높은 취업률  
**77%**  
(2023)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  
논문발표  
**4편**  
세계적 수준의 연구 (2023)

기술이전  
**15억**  
국내 최고 수준의 실용적  
기술 연구

### ☑ 주요 진로 방향

#삼성 #LG #SK하이닉스 #전력 #에너지 #현대모비스 #건설





## 전자재료공학과

전자재료공학과는 50년의 역사를 지닌 학과로서, 전자와 재료의 융합을 통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의 국가 전략 산업에서의 핵심 전문 인력을 양성합니다. 현재 10명의 교수님이 300여명의 학과 재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으며, 50여명의 석·박사 대학원생과 함께 활발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 주요 교육 프로그램

-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
- 광운 ICT 학부생 연구 프로그램(KWIX)
- 학부생 참빛설계
- 캡스톤 디자인
- 전자재료인의 날 장학금 수여
- 졸업생 선배들과의 대화



2021년~2024년 4년 연속  
**우수학과 선정**  
전자재료공학과  
**50년 전통**

SCI 논문편수  
**1.245**  
전임교원 1인당 (2023)

교외연구비 단위:천원  
**241,992**  
전임교원 1인당 (2023)

### ☑ 주요 진로 방향

#삼성 #LG #대기업 #외국계기업 #반도체 #이차전지 #세라믹





## 반도체시스템공학부

### 반도체시스템공학전공 |

반도체시스템공학부는 우리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휴대폰, 컴퓨터, TV 등 전자정보기기의 핵심역할을 하는 반도체 분야에 집중된 교육을 제공한다. 교육과정은 인공지능, 모바일컴퓨팅, 무선통신, 메모리 등 차세대 반도체시스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반도체의 설계 및 제작에 필요한 기초부터 심화 및 응용 과목으로 구성된다.

#### ☑ 주요 교육 프로그램

-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
- 반도체전공트랙 사업
- 인공지능반도체 인력양성 사업
- IDEC (반도체설계센터, IC Design Education Center)



3

반도체 인력양성 사업

7

전임 교원 수

16

교수 평균 교육/기업 경력연수

#### ☑ 주요 진로 방향

#글로벌 #반도체 #반도체시스템 #팹리스 #파운드리  
#대학원 #연구소



# 인공지능융합대학

College of AI Converge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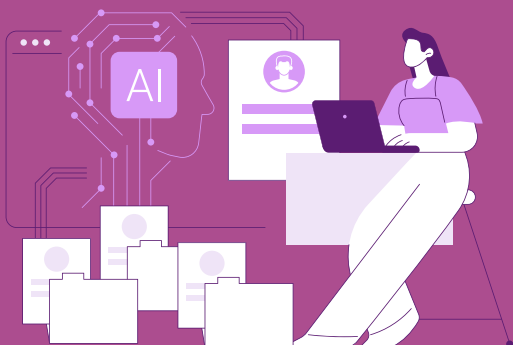


컴퓨터정보공학부

소프트웨어학부

정보융합학부

로봇학부





## 컴퓨터정보공학부

컴퓨터정보공학부는 컴퓨터 관련 기초분야 및 최신 응용분야에 대한 연구와 교육을 통하여 컴퓨터 기반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엣지 컴퓨팅, 임베디드 컴퓨팅, 컴퓨팅 시스템 등 최신 기술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 ☑ 주요 교육 프로그램

-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
- SW역량검정(TOPCIT) 평가
- KW-IPP 장기현장실습
- 학술 중앙동아리 COM'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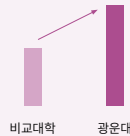
취업률

70%

교외 연구비

138%

비교대학 대비 높은 우수 교수진



### ☑ 주요 진로 방향

#컴퓨터 관련 기업 및 연구소(삼성, LG, KT, 현대, Naver, Kakao 등)  
 #정보시스템 관련 SI, 벤처 기업, 정보기술업체  
 #공기업, 교육기관, 공공기관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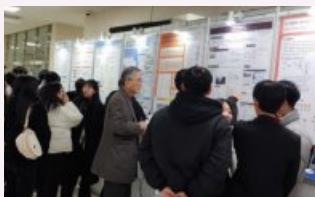


## 소프트웨어학부

소프트웨어학부는 정보화 사회의 핵심인 소프트웨어 기술을 배우고 연구하는 곳입니다. 소프트웨어 전공 및 인공지능 전공을 포함한 전 분야의 포괄적인 교과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탄탄한 기초와 응용 능력을 갖추도록 합니다. 더불어 컴퓨터 비전,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증강/가상현실(AR/VR), 정보 보안 등 미래를 이끌어갈 유망 기술 분야를 각 분야의 최고 교수가 심도 있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를 선도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 ☑ 주요 교육 프로그램

-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세부전공 운영
- 공학교육인증(ABEEK) 프로그램 운영
- 캡스톤설계(졸업작품) 수행 및 졸업작품전시회 개최
- KW-IPP 장기현장실습 운영
- SW역량검정(TOPCIT) 평가 졸업요건 반영
- 소프트웨어 실습 위주의 교과목 이수체계 운영



### 취업률

# 74.8%

(2022년~2023년 평균)

### ☑ 주요 진로 방향

#대기업(삼성/LG 등) 및 IT기업(KT/네이버/카카오 등)  
 #소프트웨어 관련 전 분야  
 #국가(공공기관) 및 산업체의 연구직 진출





## 정보융합학부

최근 인공지능의 급격한 발전은 우리에게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더욱 향상된 능력을 발현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보융합학부는 데이터 중심의 인공지능 기술과 사람 중심의 컴퓨팅 인터페이스의 융합을 목표로 인재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데이터사이언스 및 비주얼 테크놀로지 전문 분야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연구하는 10명의 교수진이 학생들의 진로와 교육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 ☑ 주요 교육 프로그램

- 지능형 로봇사업
- 스마트 인공지능 실습
- 데이터사이언스 세부 전공
- 비주얼 테크놀로지 세부 전공



### ☑ 주요 진로 방향

#인공지능솔루션 #데이터분석솔루션 #영상솔루션  
#대기업 #중견기업 #대학원





## 로봇학부

### AI로봇전공 | 정보제어·지능시스템전공

로봇학부는 국내 최초의 로봇 전공 학부로 4차 산업 혁명을 위한 창의·실무형 로봇 인재 양성을 위해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AI로봇 전공과 정보제어·지능시스템 전공으로 나누어지며 현재 9명의 교수님이 340여명의 재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 ☑ 주요 교육 프로그램

-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커리큘럼
- 혁신융합대학 지능형로봇학과 운영
- 공학교육인증(ABEEK) 프로그램
- 국내외 각종 대회 수상 경험이 풍부한 로봇게임단 RO:BIT(로빗) 및 학술소모임 바람 등



국내 최초  
로봇전문학부

혁신융합대학  
지능형로봇 참여

국내외 수상 경험이  
풍부한 소모임

#### ☑ 주요 진로 방향

#대기업 및 IT기업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대학원



# 공과대학

College of Engineering



건축학과(5년제)

건축공학과

화학공학과

환경공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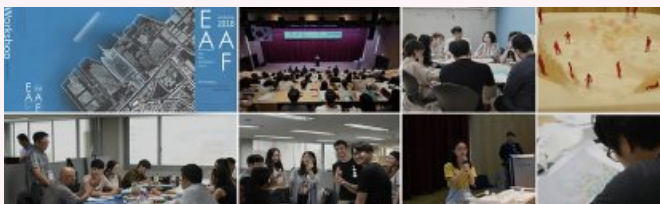


## 건축학과

광운대학교 건축학과에서는 독자적으로 여러 가지 행사 및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함으로써, 인간과 자연과 건축의 조화를 추구할 수 있는 유능한 건축인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3U(U-design)를 설정하여 이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 ☑ 주요 교육 프로그램

- 광운대학교 건축학사 학위
  -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KAAB) 인증기준 준수, 건축학교육전문학위 인증 취득
  - 캔버라협약(Canberra Accord) 인증기관들과 유네스코 세계건축가 연맹(UNESCO-IA), 건축학교육인증기구(UVCAE)가 동시에 인정하는 전문학위 프로그램
  - 학위취득과 동시에 등록 건축사의 자격요건



### 건축학과 3U(U-design)

#### Universalis Design

동북아시아의  
국제적 건축인 양성

#### Unicus Design

창의적  
건축인 양성

#### Utilitas Design

실무에 적용 가능한  
건축인 양성

### ☑ 주요 진로 방향

#건설회사 #CM(건설관리) #친환경 #감리회사 #국영기업체  
#구조 #관공서 #연구기관





## 건축공학과

건축공학은 자연재해 등의 외력에 견딜 수 있는 강건한 구조물로 설계하는 건축구조 분야, 에너지 효율 및 탄소 중립 등 지속 가능한 건축을 설계하는 건축환경 분야, 건설사업의 기획부터 준공까지 전 과정을 총괄하는 건설관리 분야, 건축공학기술에 BIM, AI, IoT 등 스마트 기술을 접목하는 건축IT 분야에 대해 배우는 학과입니다.

### ☑ 주요 교육 프로그램

- 공학교육인증(ABEEK) 건축공학프로그램
- 하·동계 방학 현장실습지원 프로그램
- IPP (Industry Professional Practice; 장기현장실습)
- 멘토·멘티 프로그램, 건축공학인의 밤 등 선후배 교류 프로그램
- 애깅(풋살), LAL (농구), 리을(e-sports), 보금자리(연합봉사) 등 팀워크, 리더십, 사회적 책임감 등을 기를 수 있는 다양한 학과 소모임 운영



취업률 (전년 비에 2.3% 증가)

# 81.3%

2023년 공과대학 내 1위

전공교육만족도

# 82점

공과대학 내 1위 점수

연 수상이력

# 5회 이상

외부학술대회 및 공모전 등

### ☑ 주요 진로 방향

#현대 #삼성 #포스코 #LH #창의적인 구조 엔지니어 #지속 가능한 친환경 건축 전문가 #첨단 기술의 스마트 건설 전문가 #책임감 있는 프로젝트 매니저 #꼼꼼하고 안전 제일 현장감독





## 화학공학과

화학공학과는 종합학문으로 그 응용 분야의 폭이 매우 넓어 석유화학, 반도체, 대체에너지, 바이오공정, 신약개발, 의료기기, 유무기 신소재, 정밀화학, 공정자동화, 청정기술 등 첨단 분야를 포함하는 새로운 연구 분야가 끊임없이 창출되고 있습니다.

### ☑ 주요 교육 프로그램

- 공학교육인증(ABEEK)프로그램



취업률 (전년 비해 2.3% 증가)

# 81.3%

2023년 공과대학 내 1위

전공교육만족도

# 82점

공과대학 내 1위 점수

연 수상이력

# 5회 이상

외부학술대회 및 공모전 등

### ☑ 주요 진로 방향

#대기업 #연구원 #기술창업 #정부기관 #대학원 진학





## 환경공학과

환경공학과는 수질, 대기, 폐기물, 토양 전반에 관한 환경기초과학 및 환경정화기술에 관한 지식을 포함하여 환경영향평가, 환경정책, Capstone Design 등 사회에서 요구되는 환경 전문가에 필요한 교과과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환경문제를 해결을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기초지식과 응용 분야의 지식, 환경시설물의 설계, 시공, 건설 및 유지관리를 위한 공학적 지식을 함께 습득할 수 있는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 주요 교육 프로그램

- 공학교육인증(ABEEK) 프로그램



산업계관점 대학평가  
**최우수등급**

2014년, 2018년

**우수등급**

2023년

장민 교수, 코두루 교수

**세계 상위 2% 과학자 명단 선정** 2023년

양재규 교수

**스승의 날 교육부장관표창** 2023년

장윤영 교수

**참빛학술상 수상** 2024년

### ☑ 주요 진로 방향

#대기업 #공공기관 (한국환경공단, 수자원공사,  
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산업기술원 등) #공무원/  
군무원 (보건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육해공군본부 등)  
#환경전문업체 #정부출연연구기관 #국제기구



# 자연과학대학

College of Natural Scienc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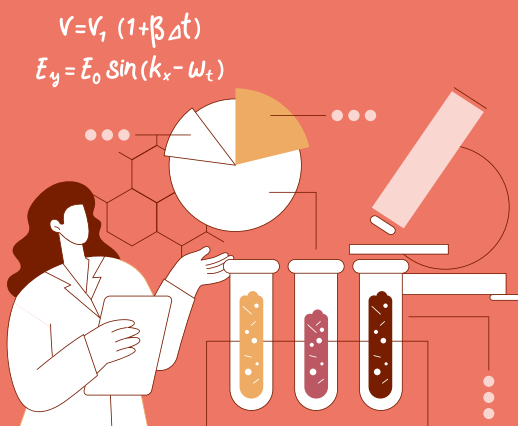


수학과

전자바이오물리학과

화학과

스포츠융합과학과





## 수학과

수학과는 AI, 공학, 자연과학, 사회과학의 고급 기술 언어로서의 현대 수학을 학습합니다. 이를 통해 순수수학 연구 분야, 수학교육 분야, 금융/보험권, 빅데이터, 계산과학 등 IT 분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 ☑ 주요 교육 프로그램

- 수학교육 및 연구 트랙
- 금융 및 보험 트랙
- AI/빅데이터/기계학습 트랙
- 계산과학 트랙
- 국제 수학 모델링 대회 참석



$$\frac{2}{8} \left( \neq \frac{1}{4} \right)$$

8명의 교수진 중  
2명이 전 세계 top 1% 수학자  
(Highly Cited Researcher)



거의 모든 전문 분야의  
기술언어로서 진출 분야 무한대

### ☑ 주요 진로 방향

#수학교육/연구(대학원) #금융/보험(농협 등) #AI(삼성, LG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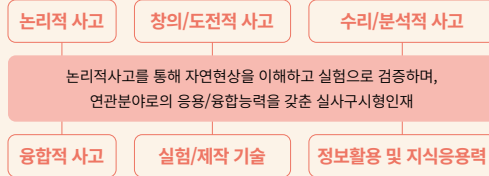


## 전자바이오물리학과

전자바이오물리학과는 물리학을 기반으로 플라즈마, 전자 소재 및 소자, 반도체 등 다양한 과학기술 분야를 응용할 수 있는 융합과학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 ☑ 주요 교육 프로그램

- 현장 맞춤형 실험·실습 교육
- Open Lab & Internship
  - 분야 : 플라즈마, 반도체, 디스플레이, 농업 및 환경, 바이오 등
- 다양한 학과 소모임 활동 (축구, 농구, 풍물)



### ☑ 주요 진로 방향

- # 반도체 / 디스플레이 / 태양전지 / 전자소자  
공정·소재·부품·장비 분야
- # 플라즈마 관련 바이오헬스 장비 제작·계측 분야





## 화학과

화학과는 물질의 구조에 대한 이해와 반응, 합성, 분석 등을 탐구하는 자연 과학 분야로, 다양한 현대적 실험 장비를 활용하여 배운 지식을 실체화합니다. 또한 학문 연구 및 생산 활동의 기초를 다질 수 있는 교과를 따라, 다변하는 현대 산업사회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고도의 전문인 육성을 기본 교육 방침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 주요 교육 프로그램

- OT학기제 및 다양한 학과 활동을 통한 재학생 및 졸업생과의 만남
- 화학인의 밤
- 교수진과 학생들이 함께하는 화학과 연합MT
- 캡스톤 프로그램
- 실험실 학부 인턴
- 학과 동호회 활동



### ☑ 주요 진로 방향

#삼성전자, LG디스플레이, SK하이닉스 등 반도체/전자/디스플레이 분야 다수 진출

#의료용 센서 및 신약 개발 분야

#식품, 화장품, 도로 및 소재 관련 다수 분야에 대한 일치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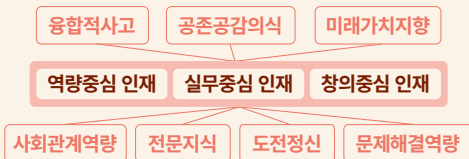


## 스포츠융합과학과

스포츠융합과학과는 스포츠의 사회적·문화적·경제적 가치의 증대로 인한 스포츠 산업의 육성과 전문 인력 및 전문지도자의 양적 및 질적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스포츠와 관련된 지식, 정보, 문화를 기반으로 인문·사회 및 과학기술 분야를 융합하여 스포츠 과학의 발전과 우수한 전문가 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 주요 교육 프로그램

- 스포츠전문지도자 및 실무자로 성장하기 위한 다양한 학과 자체적 소모임 有
- 다양한 실기실습과목(전공골프, 라켓스포츠, 해양스포츠, 오리엔티어링, 동계스포츠, 전공원드서핑, 전공축구 등) 有
- 실기 수업 뿐만 아니라 여러 스포츠 분야의 이론 수업(스포츠사회학, 스포츠및운동심리학, 트레이닝방법론, 운동생리학, 스포츠빅데이터 분석, 스포츠미디어 등) 有
- 다양한 스포츠 관련 분야로 나간 선배들의 특강 有



### ☑ 주요 진로 방향

#스포츠잡알리오 연계 교육 및 실습, 스포츠영양연구소, 체육실기, 트레이너, 연춘체전, 스포디, 스포츠분야 진로/취업 지원 산학협력체결



# 인문사회과학대학

College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국어국문학과

영어산업학과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산업심리학과

동북아문화산업학부





## 국어국문학과

국어국문학과는 국어학, 고전문학, 현대문학의 세부 분야를 기본으로 하여, 글로벌 시대를 대비한 융합 및 응용 분야(대조언어학, 비교문학, 디지털 인문학, 고전 콘텐츠 현대화) 및 글쓰기 창작, 출판 실무 등의 교육에도 힘쓰고 있다. 전통과 응용의 조화를 통해 학생들은 국어국문학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할 뿐만 아니라, 창작 및 콘텐츠 제작 등 관련 응용 분야로 진출하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 ☺ 주요 교육 프로그램

#### ▪ 학술 답사

봄 학기에 학생, 교수 등 학과 전 구성원이 함께 국내외 국어국문학 관련 장소를 답사하고 학과 구성원들끼리의 공동체 의식 함양

#### ▪ 잡지 <연춘문학> 제작

매년 새로운 콘셉트로 책 기획부터 집필 및 출판 전체 과정을 학생들이 직접 경험해 나갈 수 있는 연간 진행 자치 활동

#### ▪ 학술제

가을 학기에 진행되는 학과 행사로 <연춘문학> 등 그 해에 진행된 학생 자치 활동의 성과를 공유



재학생 교육과정 만족도 평균

**4.03**

(2023년)

### ☺ 주요 진로 방향

#한류 #문화의 중심 #작가 #출판 #기자





## 영어산업학과

고급 영어 의사소통 능력과 영미문학 및 어학 전반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영어 산업 분야에서 활약할 수 있는 융합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언어 데이터 분석, 기계 번역 실습 및 인턴, 영어교육 실습, 교환학생 프로그램, 산학협력 등 현장 중심 교육을 제공한다.

### ☑ 주요 교육 프로그램

- 영어문화콘텐츠개발
- 영어언어데이터분석
- 기계번역프로그램 (산학협력)
- 영어교육프로그램( KW-TESOL 수료증)



**학과평가  
우수학과 선정**

(2020년/2021년/2023년)

**교육부  
CK특성화 사업선정**

(2016-2019년)

**전국 대학생 영어  
연극대회 대상**

(2020년/2021년/2023년)

### ☑ 주요 진로 방향

#번역매니저 #언어데이터 분석가 #문화콘텐츠 기획자  
#영어교육전문가





##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광운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는 글로벌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융합형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미디어엔터테인먼트전공, 인터랙티브미디어커뮤니케이션전공, 전략커뮤니케이션전공 등 3가지 전공트랙을 운영하여 다양한 교과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 주요 교육 프로그램

- 학술·취업 동아리 운영(아이뮤, 애드가, 아르마스 등)
- 학부 연계전공 운영 (OTT미디어프로듀싱 연계전공, 실감미디어 연계전공, 엔터테인먼트경영 연계전공 등)
- 학부 해외 교류 프로그램 운영(미국 Ball State University 등)
- 전공 미리보기 특강, 졸업생과의 대화, 네트워크 데이, 사제동행 행사 등 학부 졸업생, 재학생, 교수 간 교류



취업률

**75.3%**

(2023년)

### ☑ 주요 진로 방향

#엔터테인먼트 #마케팅 #콘텐츠기획 #AI





## 산업심리학과

산업심리학(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은 응용심리학의 한 분야로 심리학의 제반 원리들을 기업, 산업체 공공기관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조직체에 적용하는 학문입니다. 산업심리학은 조직 내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학문으로, 조직 내 인력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인사선발, 배치, 교육, 팀 훈련, 수행평가, 작업 동기, 조직몰입과 조직의 생산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조직개발 등을 다루고 있으며, 인간-기계 체계에서의 인간의 수행을 이해하는 인간공학을 다루기도 합니다.

### ☑ 주요 교육 프로그램

- 졸업생 선배와 함께하는 현장 특강
- 산업심리학과 자체 학술제 등



### ☑ 주요 진로 방향

#광고 & 마케팅 전문가, 소비자 심리 분석 전문가,  
데이터 & 리서치 분석 전문가, 인사·노무 관련 전문가,  
조직개발(교육) 전문가, 인지공학 전문가, 사용자 경험  
및 환경 전문가, 리더십코칭 전문가, 커리어전문가,  
청소년상담사, 상담심리사, 임상심리사





## 동북아문화산업학부

2008년 문을 연 동북아문화산업학부는 세계 문화산업 중심지로 자리를 잡아가는 동북아지역의 정세와 문화산업 제방면을 연구하는 학부로, 어학 능력 뿐 아니라 문화콘텐츠 기획 및 제작 능력을 갖춘 창의적 글로벌 인재양성을 목표로 한다.

### ☑ 주요 교육 프로그램

- 중·일 어학연수 / 중·일 위탁교육 / 중국 문화캠프
- 학술 답사, 학술제
- 콘텐츠 및 상품 제작 실습



취업률

**70.6%**

(2023년)

해외 언어문화연수

(1년 2회)

중·일 위탁교육

(1년 1회)

### ☑ 주요 진로 방향

#엔터테인먼트 #콘텐츠기획개발 및 제작 #OTT #항공, 관광  
#기획, 국내외 영업, 마케팅 등



# 정책법학대학

College of Law and Public Policy



행정학과

법학부

국제학부





## 행정학과

우리 행정학과에서는 정책과 행정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국가행정에 대한 배경지식과 사회 문제 해결 능력배양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행정학과 학생들이 학과에서의 배움을 통하여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비영리기관, 연구소, 민간기업 등에 진출하여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인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 ☑ 주요 교육 프로그램

- 법조인력양성프로그램
- 학과 내 모의 국무회의
- 사회복지학 연계전공
- 지방공무원 다수 배출
- 행정 실무진 멘토링
- 경찰범죄학 연계전공
- 소모임 5개



### ☑ 주요 진로 방향

#공공인재 #공무원 #공기업 #공공기관 #비영리공익법인





## 법학부

법학부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적합한 실무 중심의 법률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기본적인 모토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일반법학전공, 기업법무전공, 과학기술법무전공으로 세분화하여 각 분야에 필요한 기본적인 법률 지식은 물론 문제해결능력을 배양하고 있습니다.

### ☑ 주요 교육 프로그램

- 법조인력양성 프로그램
- 로스쿨반
- 노무사반
- 법학전공지도회
- 공무원반
- 졸업생과의 멘토링



매년 두 자리 숫자의  
공무원 및 자격증

200명 이상의  
법조인력

### ☑ 주요 진로 방향

#법조인 #노무사 #공무원 #공기업 #공공기관 #금융기관  
#법무법인 #특허법인





## 국제학부

국제학부는 글로벌 융합 시대를 선도할 전문성과 국제감각을 갖춘 소통융합형 인재와 지역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국제관계·국제정치경제·국제경영·지역학·문화인류학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교과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폭넓은 시각과 전문지식을 제공하고,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와 글로벌 이슈에 대한 분석 능력을 함양합니다.

### ☑ 주요 교육 프로그램

- 전공 트랙(심화전공)
  - 국제관계 트랙, 중국지역 트랙, 본지역 트랙
- 일본, 중국 대학과 학생 교류세미나 개최
- 동북아, 영어권 지역 교환학생
- 전공진로탐색 지도



취업률

**67%**

5년간 평균

토익

**830점↑**

최근 3개년 졸업생

소모임

**5개**

학부 내 지역학 포함

일본, 중국 대학과의  
학생교류세미나 참가

2023년 분교학원대학 및  
신슈대학 방문  
2024년 대원민족대학 및  
대련외국어대학 방문

### ☑ 주요 진로 방향

#열림마음 #글로벌 마인드를 가진 국제 전문인력  
 #해외영업 #해외지사 주재원 #외국계기업 #무역담당자  
 #금융기관 #언론사 #공무원 #공기업 #국제기구 #여행사



# 경영대학

College of Business



경영학부

국제통상학부



## 경영학전공 |

경영학의 정통 분야라고 할 수 있는 경영정보, 마케팅, 인사조직, 생산운영, 재무, 회계영역에서 전문 지식을 통합적으로 함양하여, 졸업 후 기업의 핵심 부서에서 업무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융합적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비즈니스 환경 속에서 경쟁력 있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데이터 분석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융합적 전문 지식과 실무 능력을 갖춘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합니다.

### ☑ 주요 교육 프로그램

- 전공별 스터디 그룹을 통한 심도 있는 전공 연구 (COMARS(마케팅), KWUSFI(금융), NOBA(산업), ERP연구회(경영정보))
- 공인회계사(CPA)반 운영 및 지원 (현재28기 21명, 29기 15명)
- 기업 탐방 및 현업 선배와의 만남
- 실무에 강한 커리큘럼으로 구성 : 재무관리, 고급회계, 소비자 행동, 조직인사, 전략, 경영과학, 비즈니스 데이터 분석 등의 과목을 통해 실제 비즈니스 상황에서 적용 가능한 전문 지식을 습득



전임교원 강의비율

**82%**

(2023년)

연간 장학금

**260만원**

학생 1인당

**자격증 취득  
지원 제도**

(예: 공인노무사, 재정관리사, AFPK, CPIM, CFA, 증권분석사, 금융자산관리사, 빅데이터 준전문가 등)

### ☑ 주요 진로 방향

#전문경영인, 컨설턴트, 경영연구원, 전략기획, 창업, 교수 #경영전략 #마케팅 #인사전략 #재무 #회계 #생산 #국제경영 #경영정보 #SCM #회계사 #노무사# 세무사 #컨설턴트 #ERP #브랜드 #데이터분석 #CRM #기술혁신 #벤처경영/창업 #금융기관 #광고기획 #공기업



## 빅데이터경영전공 |

빅데이터경영전공은 경영학과 인공지능을 함께 배우는 첨단 전공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경영학의 기본 원리는 물론 최신 빅데이터 기술까지 함께 배우면서 미래를 이끌어갈 융합형 경영 전문가로 성장합니다.

데이터 분야 전문가로 자리잡기 위해 필요한 전공능력 함양은 물론, 관련 자격증 취득을 적극 지원합니다.

### ☺ 주요 교육 프로그램

- 데이터과학 인재양성 프로그램
  - BI 전문도구인 Tableau 공인 자격증을 보유한 데이터 전문가 양성
  - R/Python 기반 데이터과학 자격인 ADsP 및 SQL 개발자 자격증 (SQLD) 취득지원
- 이론과 실무를 융합한 교과 과정 운영
  - 경영학 : 경영학의 기본 원리 이해
  - 빅데이터응용 : 데이터 분석 기법, 인공지능 알고리즘 등 첨단 전공 지식 습득
- 경영과 AI융합 : 데이터분석 기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역량 함양



SAP ERP 관련 자격증

**10명↑**

(매년 2회 자체 교육과정 시행)

서울 주요 대학 10개교

**빅데이터융합 강세**

(최근 3년간 인문계열 입시 분석 결과)

### ☺ 주요 진로 방향

#데이터분석가 #데이터과학자 #빅데이터경영 컨설턴트  
 #프로덕트매니저 #프로젝트매니저 #디지털마케팅전문가  
 #CRM 분석가 #소셜미디어분석가 지원자격증 :  
 SAP ERP 관련 자격증 (교내 자체프로그램 실시)  
 국가공인 데이터분석 전문가(ADsP, ADP),  
 빅데이터분석기사, SQL전문가, 데이터아키텍처



## 국제통상학부

국제통상학부는 국제경제, 국제경영, 무역실무에 대한 융합된 지식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학기간 중 영어는 물론 중국어, 일본어 등 다중 언어 능력을 함양하고 빅데이터 분석 및 인공지능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 전문가를 양성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량을 기반으로 졸업 후 금융권, 해외영업, 해운물류 등 관련 분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 주요 교육 프로그램

- 외국어 연수 3주 프로그램
  - 재학 기간 중 1회 전원 지원
  - 호주카톨릭대학교(시드니)
  - 중국 하이난대학교(하이난)
- 국제통상학부 동문장학금
  - 연간 10명 규모 장학금 시상
  - 입학정원 대비 25% 선발



취업률

**70.4%**

(2023년)

해외연수

**35명 지원**

(2023년)

전국규모 공모전

**4회 입상**

(2023년)

### 주요 진로 방향

#관세사#해외영업#금융권#해운물류#대학원



# 참빛인재대학

College of Veritas et Lux Talents Development



금융부동산법무학과

게임콘텐츠학과

스마트전기전자학과

스포츠상담재활학과





## 금융부동산법무학과

금융부동산법무학과는 금융·부동산에 대한 지식을 법학을 기반으로 경제학·경영학·회계학을 가미하여 제공합니다. 금융, 보험, 부동산 분야에 관한 법 이론 및 실무를 융합한 교과과정을 통해 금융 및 부동산 거래·관리 분야에서 법적 지식을 갖춘 자산관리 전문인력을 양성합니다.

### ☑ 주요 교육 프로그램

- 2주기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LiFE 2.0)
- 학생 주도형 참빛설계학기를 운영하여 정규학점 인정
- 예비대학 프로그램으로 집중이수제(OT학기제)를 운영하여 학점 인정
- 성인학습자 친화형 온라인 강의 운영



### 1

국내 유일의 금융법무와  
부동산법무 융합학과

융합적사고

전문지식

문제해결역량

지속가능한 발전지향

공감·소통역량

### ☑ 주요 진로 방향

#금융법 #부동산법 #금융·부동산 전문가 #제2의 진로  
#100세시대 자산관리 전문가





## 게임콘텐츠학과

게임콘텐츠학과는 게임 산업의 성장과 변화에 대응하여 게임 개발 및 디자인 전문가 양성하여 체계적이고 업무에 적합한 교육과정으로 성공적인 경력 쌓을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합니다. 다수의 게임학석사, 게임학 박사 배출로 풍부한 인적 네트워크와 창업 및 취업 멘토링 및 독창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으로 게임 산업 혁신을 주도할 창의적 인재를 양성합니다.

### ☑ 주요 교육 프로그램

#### ▪ Game Planning

①개론(기획, 소재) ②제작(스토리텔링, 시나리오) ③시스템(인터페이스, 캐릭터, 아이템, 몬스터, 전투 등) ④레벨디자인(맵, 월드레벨디자인 등) ⑤게임마케팅, 튜토리얼, 유료화 정책 등 ⑥문서작성(기획서 및 역기획서) ⑦포트폴리오

#### • Game Programming

#### • Game Graphics

#### • Game Sound



광클 (클라이밍)

야잘 (야구 직관 동아리)

재직톤 (프로그래밍)

다양한 전시회 관람(KOBA, PlayX4, G스타 등)

### ☑ 주요 진로 방향

#게임 기획자 #게임 디자이너 #게임 프로그래머 #콘텐츠 기획자  
#게임 사운드 디자이너 #게임 테스터 #게임 운영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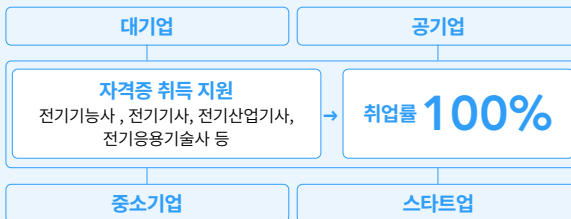


## 스마트전기전자학과

스마트전기전자학과는 글로벌 정보화시대의 평생교육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필요한 융합 기술 및 창의적인 전문 기술 개발을 위한 교과과정을 제공합니다. 특히, 초연결·초융합·초지능을 기반으로 변화하는 사회/직업 구조에서 공학적인 사고를 기반으로 미래 기술을 선도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스마트전기전자학과는 기초적인 전기전자이론과 소프트웨어 융합 교육을 통한 폭넓은 전문지식 및 기술을 함양한 인재를 양성합니다.

### ☑ 주요 교육 프로그램

-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융합한 체계적인 교육
- 마이크로컨트롤러와 라즈베리파이를 이용한 임베디드 시스템 설계 및 디자인 교육
- 드론공학, 로봇공학 및 제어를 위한 인공지능 교육



### ☑ 주요 진로 방향

#대학원 진학 #공무원 #기사 기술사 자격증 취득 후 대기업  
취업 #개인 창업





## 스포츠상담재활학과

스포츠상담재활학과는 다양한 스포츠 현장에서 체계적인 운동프로그램을 응용 및 적용할 수 있는 실전형 전문인력과 스포츠 멘탈리티까지의 통합적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체육인은 물론 지역사회 구성원의 평생 건강을 선도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 ☑ 주요 교육 프로그램

- 다학년다학기제(스포츠 헬스케어 전문인재 양성 프로젝트)
- 스포츠데이핑 실무 교육
- 심리운동/운동발달재활 자격증 연계과정



### ☑ 주요 진로 방향

#운동재활 #건강운동관리사 #스포츠지도사  
#스포츠심리상담





교사와 학생, 학교가 함께하는

## 학생부종합전형 이야기

열 번째 시리즈

발행일 2024년 9월

발행인 천장호

발행처 광운대학교 입학처 입학사정관실

기 획 광운대학교

디자인/인쇄 영광정밀인쇄사 T. 053-421-4438

© 광운대학교, 2024

이 책은 2024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되었으며,  
본 제작물의 저작권은 광운대학교에 있습니다.